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10년까지 늘어납니다.
문의전화 0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7월 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34 호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브라이언 베리

올해로 한국에서 생활한지 꼭 30년째다. 나의 불교인연을 돌이켜보면 전생 어느 순간에 부처님 회상에서 살았었을 것이라고 믿어진다. 그것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던 인과때문이다.

당시로서는 한국생활에 적응하느라 종교생활은 염두에 둘 수 없었다. 그렇게 10여년을 지냈는데 79년부터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겼다. 순전히 직관(直觀)으로 조계사에 가야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행동으로 옮겼다. 사실 나는 지금까지 생활의 대부분을 직관에 따르고 있다. 그때 법당에서 10여분 조용히 앉아있다가 나왔을 뿐인데, 마음이 편안했고그 마음이 10여일을 유지했다. 그 인연으로 절도, 기웃거리고 불서도 읽고 불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정열을 쏟았다. 여러 스님들과 도반들에게 108배 참회절을 하라는 말을 듣고는 매일 아침 108배를 시작했던 것도 당시 일이다. 마음 속으로 수억 다생동안 내가 지었던 잘못, 특히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 지었던 업장이 녹아지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공부도 때가 있다지만 수행도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80년대가 나에게는 초발심으로 수행정진에 가장 원력이 컸던 때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릎이 약해져 108배를 하지는 못한다. 대신 108참회문을 염송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고 있다. 사람은 반드시 싫은 사람을 만나게 마련이다. 부처님께서도 원수는 스승이라고 가르치셨다.

살아가면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 악업을 짓지 말자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내 나름의 적극적인 참회 방법을 개발했다. 그것은 나와 구체적으로 인연닿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눈길이 닿은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총만하게 사십시오"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 우연히 눈이 마주친 사람 등등에게 이런 염(念)을 했다. 놀랍게도 이렇게 생활하고 부터는 사람에 대한 삿된 분별심이 없어졌다. 고백하건대 부처님처럼 동체대비의 실천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확연히 느끼며 살고있다.

((주)대우 근무 · 미국인)

"새로 악업 짓지말자" 다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대장경 전산화 불심 재결집하자

100일 동안 2만여명 동참…가족 · 사찰단위 참여 필요

3월 24일 시작된 팔만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팔만후원인 모집 캠페인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에 일반인의 호응이 잇따른 반면 불교계의 참여가 의외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월 30일로 모집 캠페인 1백일을 맞은 (사)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는 1백일동안 참가한 인원이 2만1천여명, 모금액은 6억2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기대했던 8만명의 후원인과 모금액 18억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라는 것.

한보사태 등 경제적 불황과 북한동포돕기운동에의 국민 관심집중이 원인이라는 견해도 제시됐지만 무엇보다도 21세기 전자대장경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당초 1백일을 예상했던 캠페인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각종 행사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장경 전산화는 오자(誤字)나 이체자(異體字)의 교정작업이 43% 끝난 상태이며, 오는 9월 문장을 읽기 쉽게 해주는 표점작업을 위해 표점위원회를 구성, 여규를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폰트 코드 정리와 함께 한자 및 한글대장경 전산화를 병행한다. 전산화 작업에 정부는 올해 4억원을 책정, 지원하고 있으나 년 20~30억원이 드는 예산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다. 소장 종립스님은 "21세기 팔만대장경은 한 개인이 많은 돈을 내서 이루기 보다는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정성을 모아 전자대장경이라는 첨단사회의 문화유산으로 탄생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기석 기자〉



성수대교 재개통…"부실참사 없길" 붕괴참사 2년8개월만에 복구된 성수대교가 3일 재개통됐다. 개통식에 참석한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김수환 추기경, 조순 서울시장 등이 국화송이를 강물에 던지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앞서 6일 27일 이자리에서 한국불교청년회가 주최한 안전운행 기원과 희생자 천도를 위한 법회가 봉행됐다. 〈조선일보 사진제공〉

종교편향 예방기구 '설치'

전불련등 10여개 단체 추진…고발창구도 마련

교계 10여개 신행단체들이 모여 불교탄압 종교편향사건에 대처하고 예방하는 상설기구를 추진하고 있다.

조계종중앙신도회 전불련 대불청 대불련 전승련 중앙승가대학생회 우리는선우 교통통신원불자회 조계사청년회 등 신행단체 대표들은 특정종교 편향사건을 관장하는 불교대책위원회(가칭)를 상설화해야 한다며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에 긴급 제안했다. 이것은 최근 육군특수전학교 불교탄압사건 등 잇따르는 종교편향사건을 당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고 종단차원의 특별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설치토록 강력히 요청한 것.

추진중인 특정종교편향 불교대책위는 군불교탄압사건은 물론 언론 학교 공공기관 시설 등 사회전반에서 발생되는 불교권익 침해에 대해 즉각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 제도적인 장치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불교대책위는 산하 각 단체들이 실무를 분장해 운영한다는 원칙아래 종교편향 고발창구는 조계종중앙신도회에 설치하고 사례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은 대불청 호법단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단체의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실사에 나서며 불교탄압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나서로 합의했다.

한편 육군 특수전학교 불교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원혜조계종포교부장)는 1일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뒤 자진해체했다.

바미얀대불 폭파위기 넘겼다

탈레반군 공식발표…국제여론에 굴복

회교분리주의자 탈레반 반군의 폭파 위협에 시달리던 세계 최대 석불 바미얀 대불이 한국 불교계와 유네스코 본부 등의 노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탈레반의 물라 모하메드 오말 최고평의회 의장과 무라비 압둘 홍보문화 차관 등은 최근 "바미얀 대불을 보존하겠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구좌 1천원」 그늘진 곳에 신문 법보시

우연히 접하게된 단 한마디의 가르침일지라도 그것이 마음밭에 뿌려지면 반드시 싹이 터서 크나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사구게를 받아 지니거나 남을 위해 알려주면 그 복덕은 삼천대천세계에 가득차도록 칠보를 보시한 복덕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요즘같이 탐진치가 범람하고 소외와 갈등이 심할 때에는 더욱이나 한마디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인간방생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에 현대불교신문은 가르침의 사각(死角)지대인 군부대,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및 해외교민시설 등을 대상으로 '신문 보내기 법보시운동'을 전개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은 그동안에도 꾸준히 법보시운동을 벌여왔습니다만 보다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1구좌당 동참금액을 대폭 낮춰 '월 1천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정성으로 만드는 신행지 현대불교신문을 소외당하고 있는 이웃에 보냅시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군 · 경찰 · 교도소등에 보급
자동이체 · 온라인 통해

■ 대상처: 군부대 경찰 교화기관 각급 교육기관 병원 사회복지관 및 연변지역 등 해외교민 시설

■ 동참방법: 매월 또는 수시로 1000원 이상 계좌이체나 온라인 입금

■ 자동이체 계좌번호
국민은행 006-01-0783-830(현대불교신문사)
제일은행 100-20-560799 (현대불교신문사)
서울은행 15501-226911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36053 (현대불교신문사)
뱅크라인 50-01-124050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를 하시면 매월 은행에 가는 부담이 덜어지고 필요한 곳에 지속적으로 신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입금 계좌번호 (지정 법보시)
국민은행 023-25-0007-820(현대불교신문사)

■ 참여방법: 입금하시기 전에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를 밝혀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혹은 은행에 가셔서 위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02)737-8881 (영업부)
(02)722-4162 (편집국)

현대불교신문사

'종교간 대화위' 결성

16일 6개종교 대표모임

종교간 대화위원회가 결성된다. 성광스님(前 조계종총무원 기획실장)을 비롯한 불교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 천도교 등 주요종단 실무자들은 6월 30일 종단협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16일 각 종교대표 모임을 열어 사업계획과 대화위원회 정관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본사 사령

임연태 취재1부 차장
〈1997년 7월 3일자〉

먹거리와 바꾸는 北 문화재 19면
여름불교학교 테마 2題 17면
열린마당 - 軍 종교시책 2면



사 설

청소년보호에 나서자

요즈음 청소년들이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을 안가져본 사람들이 드물 정도로 청소년들의 폭력비행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일히 그 사례를 든다는 것이 무모할 정도로 그 행태가 심각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기성세대의 일각에서는 두가지의 극단적인 반응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심각한 청소년들의 행태를 마치 전체 청소년들의 문제인 것처럼 크게 확대해석하는 경우이다. 다른 한쪽은 내집 아이는 그런 행태와는 거리가 멀다고만 생각하여 우리 사회의 저변에 널리 깔려있는 병폐조차 은폐하거나 외면하려는 경우이다. 어느쪽이든 주된 청소년들의 중심행태를 알지 못한 반응임에는 틀림이 없다. 청소년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는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걸맞는 해법을 중의를 모아 시행한다면 우려하는 어떤 문제든 긍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청소년 보호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단 환영한다. 보호법이란 이름이 시사하듯이 무엇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면 그 무엇은 기실 부정적 영향을 줄 행태들임에 틀림이 없다. 보호를 내세워야할 만큼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들이 부정적이라면 그 책임은 다분히 기성세대들의 몫이다.

정신의학에서는 정신결정론이란 가설을 바탕으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틀을 삼는데 그 핵심이 원인지워지지 않은 결과는 없다는 논리다. 어떤 행동의 결과도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이야기니 불가의 윤회적인 생각과 틀리지 않다. 그런 몫으로 생각하면 청소년들의 부정적 행태는 기성세대의 원인제공의 결과이고 그 청소년들의 미래는 결국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지금의 보호법을 낳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자면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법률적 뒷받침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이 법률적 뒷받침으로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연관부서나 사회·가정에서 도와야 한다.

우선 법률적 내용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보자. 이 점은 어느 한 분야에서만 관심을 갖는다고 될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꾸어야 할 일이면 과감히 바꾸자. 기존의 관행을 들어 이 법률을 시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더 크고 넓게 생각해 본다면 관행을 바꾸고 적응하는데 온힘을 기울이도록 권해 본다.

다음으로는 종교적인 역할이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팽배하고 있는 물질중심적 사고나 이로 인한 병리적 행동양태들을 교정하고 부정적 주변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에 종교계가 앞장서야 한다.

생각해 보면 지금과 같은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부재나 병폐로 인해 생겨났다고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가정에서의 교육도 자녀가 귀하다는 한가지 이유로 가정교육의 적정기를 놓치고 학교에서도 인성을 뒤로 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병을 유발시켰고 사회에 나가서는 격렬한 경쟁을 통해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는 재주만을 가르쳤으니 문제가 없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를 바르게 고치고 바른 영향을 주며 바른 열매를 얻기 위해선 종교적 역할이 크다는 뜻이다. 불교계는 간절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독거리면서 함께 생각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이 7월1일을 기하여 시행되었으니 지금까지 관심을 가졌던 것보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단단히 해보도록 하자는 뜻이다.

종교활동 현황

군종장교 66% 군목사 상명하복式 종교편향

군부대에는 불교 기독교 가톨릭 등 3개 종파가 각각 성직자를 파송하여 고유의 종교활동과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군대는 포교(선교)의 황금어장'이란 말까지 있지만 불교는 타종교와 비교할 때 조직·내용면에서 엄청난 열세에 놓여있다.

96년 5월 현재 군종장교 현황을 보면 불교가 97명(20%), 기독교가 324명(66%), 천주교가 70명(14%)씩 활동하고 있다. 또 군내 종교시설은 법당 305동(22%), 기독교 856동(62%), 천주교 216동(16%)씩을 점유하고 있어 기독교와는 숫적으로 3배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다. 종교별 신자현황은 불교가 16만1천여명, 기독교가 30만1천1백여명, 기독교가 8만7백여명으로 나타나 있다.

불교의 군대내 위상이 100여년 짧은 역사의 기독교와 비교할 때 현격한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 군목제도의 도입과 근 20여년동안 군내 종교활동을 기독교의 독점으로 방치한 사회·정치적 구조의 편향이라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3월 육군 특수전학교의 분뇨투척 사건과 5월 육군 논산훈련소의 군목·조교들의 기독교 신앙 강요도 연대급 이하 부대에 군법사가 전무한 현실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이같은 주장을 증명하는 예다. 현재 훈련병들의 인성 및 인격교육은 군종장교가 맡고 있는데 군종장교의 66%가 군목사인데다 연대급이하 소규모 부대에서는 3대종교 가운데 기독교 목사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인성교육시간이 자연스럽게 특정종교의 선교시간으로 둔갑하고 만다는 것.

따라서 병역법·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군종장교의 병적 편입의 자격요건을 넓혀 군종수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군부대내 종교정책의 형평은 종단과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여론도 높다. 꾸준한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개선안

종교평등 보장 주안

육군 특수전학교 종교편향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군종 발전을 위해 현행법규의 제·개정과 보완 그리고 금번 사건의 교훈을 전 장병 및 군종장교에게 주지시켜, 거듭나는 계기로 삼는 동시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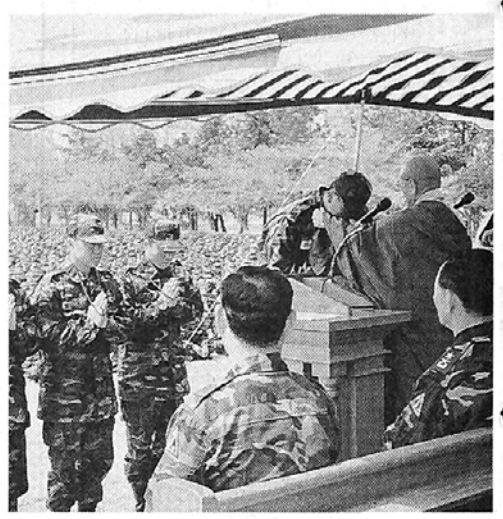
이를위해 군은 △7월중에 준법적 효력을 가진 국방부 훈령을 제정하고 △종교활동 관련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을 9월중에 개정하고 △각군규정을 단계적으로 제·개정 및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군종병과 운영 개선방안을 위한 세부시행 계획으로 △군종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검토(97.7한) △군종병 선발 및 교육제도 검토(97.7한) △교육기강 확립 및 교육성적 인사관리 반영 등 군종장교 양성 및 보수교육 강화(97.9한) △사단급 함대급 비행단급에 군종통합 사무실(군종참모부) 운영(97.10한) △군종실무지침서 발간(97.12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자율적인 종교활동 보장을 위해 신자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군종활동을 지양하고 군종장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

열린마당

軍 종교시책

최근 일부 군부대에서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군의 종교시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 군승 충원등 불교계의 대책마련도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와 예비역군법사, 군포교 현장에서 보살행을 펼치는 불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軍내 종교활동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지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 4월20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열린 봉축 수계대법회.

사찰-군법당 지원…군승충원 역점

원혜 〈조계종 포교부장〉

무엇보다 군종장교와 종교시설의 현격한 차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군내 교회는 1천곳, 군목은 3백30명, 군종사병 2천명, 군종행정관이 60여명이다(97.5 '군선교현황보고'). 불교는 법당 3백여곳, 군법사 1백여명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로운 종교활동 보장이라는 지침이 개신교의 공격적인 선교전략이 실현되는 상황에서 각급부대에서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

국방부가 군종시책을 우리 군의 정신전력 강화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긴다면, 각 종교의 형평한 예배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대대급부대까지 군예산으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각 종교에서 예배장소를 지어 군부대에 기부하는 형식이 주류였다. 이는 당연히 종교간의 경쟁과 갈등을 부른다.

군종장교의 수급제도도 문제이다. 불교가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다. 다만 그동안 학사이상의 자격요건으로 동국대에서만 배출되던 군승장교가 최근 4년제 정규대로 승격된 중앙승가대에까지 확대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지속적으로 군승법사를 확대, 2005년까지 18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또 군승사관후보생·군승요원 자격시험에 많은 학생들이 응시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

불교의 반성도 뒤따라야 한다. 포교원은 군부대내에서의 종교편향 사례 자료집을 각 사찰에 배포해 군포교 실상을 전하고, 1사찰-1신행단체의 1군법당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군포교 전담부서 설치 감시기능 강화

권오성 〈여비역군법사회 회장〉

국방부의 종교시책은 한마디로 일관성이 결여된 주먹구구식의 졸속정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의 정책을 입안했으면 이를 끈기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데도 군종실장 등 관련자들이 바뀔 때마다 이전의 정책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해 버리는 수가 허다하다. 또 어떤 사안은 계획만 거창했지 서류에 묻힌 채 시행조차 되지 않는 것들도 많다.

그러나 국방부 종교정책의 가장 큰 오점은 역시 자의적 해석과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는 종교간의 형평성에 대한 감각 상실이다. 지금까지 반복돼 온 각종 편향사례들을 볼 때 군 특유의 감시기능마저 마비돼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든다.

군에는 불교를 비롯해 천주교, 개신교 등 3개 종파가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소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갈등과 충돌에 대한 예측과 사전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교교육에도 문제가 많다. 지금의 종교교육은 신자확보의 일환으로 활용될 뿐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기까지 한다.

불교계도 최소한 군포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 포교현장은 물론 국방부 종교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군법사 양성 시급…불자 단합 절실

김반야성 〈불교어머니회 회장〉

군부대 안에서 불교를 침해하고 불교를 믿는 사병의 신앙을 억압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불자들이 단합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데서 오는 폐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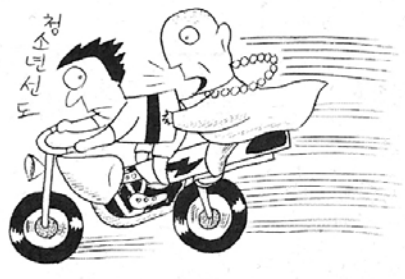
군부대 내에 교회 십자가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 가는데 불교계에서는 천막 법당조차 마련하지 못해 법회를 보지 못하는 군부대가 수두룩 한 것 또한 그 이유에서 일 것이다. 논산훈련소의 경우 지난 93년부터 호국연무사의 중창불사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진척이 안되는 실정이다.

또한 군장교 인력확보도 중요하다. 타종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불교군종장교를 시급히 양성해야 한다. 장병들을 방문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단돈 1백50원짜리 초코파이 하나 보시하는 것이 사찰불사 못지 않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또한 지휘책임자가 철저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내세워 종교적 편향사례를 속출시켜도 불자들은 대부분 속만 태울 뿐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불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합치고, 불자장병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더이상 군부대 내에서의 종교평향 사례는 없으리라 본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활 속의 불교 (129)

나와 부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과거에 지은 것을 오늘에 녹이고 미래에 지고 갈 것도 오늘에 녹여라. 과거에 진 습을 오늘에 놓는다면 내일에는 습이 붙을 일 없다. 오늘 붙을 게 없는데 어찌 내일에 붙을 게 있겠는가?

오늘 제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마치 벽을 향해 던진 공이 내게로 되돌아오듯이 그 결과는 자기한테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공연히 속상해하고 꼬부장한 마음을 갖는다면 속상한 일과 꼬부장한 일만이 되돌아 올 것이다.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로 돌릴 줄 알아야 한다. 내게 닥쳐오는 모든 괴로움과 장애. 이런 것들은 과거로부터 본래 내가 지어 온 과보인 줄 알아서 남을 원망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남에게 미루지 말라.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려 스스로 내 마음 안에 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모든 고통, 과보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었고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 나로부터 바롯되지 않은 것은 없다. 나쁜 일 좋은 일 모두가 내 작품이다. 나는 가만히 있는 데 혹은 아무런 원인제공도 하지 않았는데 내게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하는 경우라도 그것은 내 몫이지 남의 몫이 아니다. 내가 그 시원(始源)을 모른다해서 내가 원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불자라면 모름지기 '내 탓'임을 인정하고 내 탓으로 돌릴 줄 알아야 한다.

제 아무리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다해도 무엇보다 내가 '있음'으로써 내게 일이 생긴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는가.

우리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가 좀 더 밝아지기를 희망한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이 지금보다 더 명랑하고 화합적이기를 바란다. 주변의 사람들이 더 순수해지고 더 긍정적이 되고 더 선량해지기를 원한다. 누구라도 나를 중심으로한 이웃 세계가 즐겁고 건설적인 모습으로 바뀜으로써 하루하루의 삶이 알차고 보람되기를 희구한다. 그러나 현실은 웃음잔치도 꽃동산도 아니다. 긴장과 갈등 미움과 분쟁이 더 잦고 좌절과 스트레스가 다반사처럼 돌아간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모습을 원한다면 먼저 자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태도, 자신의 말, 자신의 눈빛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부터 바뀌지 않고 주변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은 내 탓은 없고 남의 탓만 있다고 보는 편협한 소견일 뿐이다. 그것은 손가락질만으로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다.

가령 온 천하가 내가 좋아하는 푸른 색깔로 변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푸른색 안경을 쓰면 된다. 내 눈이 바뀌어야 한다. 내가 바뀌지 않고서는 내가 원하는 세상이 오질 않는다.

마음 속에 미움을 남겨두고서 화합을 말할 수는 없다. 내 마음 속이 미움으로 가득 차서는 증오없는 세상을 바랄 수 없다. 미움을 남겨둔 채 화합하는 것은 거짓 타협일 뿐 진정한 화합이 아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한, 싫어하는 한 나와 그와의 관계는 미움이 더 큰 미움을 낳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나의 미워하는 마음을 안으로 녹일 때, 그 순간부터 미움의 자리엔 대신 화합이 깃든다. 눈이 녹는 자리에 매화가 피어나듯이 미움은 웃음이 되고 향기로 변한다.

미움은 미움으로 돌아오고 웃음은 웃음으로 돌아온다. 나의 목소리에 화답하는 메아리처럼.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 나는 불국정토로부터 얼마나 먼 곳에 있을까. 부처님과 늘 함께 살고 불국정토에 몸을 의탁할 수는 없을까.

내가 가장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거리가 곧 나와 부처님과의 거리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주변세상과의 거리가 다름아닌 바로 나와 불국정토의 거리이다. 고로 그 거리를 좁히는 일, 아니면 넓히는 일은 내 손에 달려 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자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도 자기의 일이다.

눈을 안으로 돌려 내 마음을 녹이고 바꾸는 일-나의 회개와 참회는 부처님께, 불국정토로 나아가는 급행열차표이다.

협찬 : 권오상

사찰마다 선도단체 '발등의 불'

청소년 보호법시행…교계 관심 절실

불교문화공간·심성교화프로 확대해야

"모두 내자식…바로 자라게 하자"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불교계가 청소년 선도에 수수방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생법회를 열고 있는 전국 사찰을 비롯해 불교청소년단체, 지도자모임, 복지시설 가운데 청교련 인천지부 유해환경감시단(단장 선일)만이 이달 중순경 청소년보호법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을 뿐 청소년 선도 및 계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95년 유해환경감시단을 발족해 청소년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교련 인천지부는 이달 중순 청소년보호법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 사찰신도회와 해병전우회 등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유해환경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유해업소 자율정화 활동, 유해매체 및 물품 모니터, 세미나 및 토론회, 어머니 교육, 각 학교 지도교사 초청 간담회, 캠페인 등도 벌인다.

청교련 인천지부 유해환경감시단 이미경 사무국장은 "청소년보호법 제정의 주역인 개신교의 경우 이미 대전 YWCA가 청소년보호법 관련 회보를 전국 청소년단체 및 학교에 발송한 것은 물론 세미나 캠페인 일정을 알리는 홍보물 배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타종교계의 물밑작업 또한 활발하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문화체육부 산하 조직으로 청소년문제에 관한 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이에따른 YMCA, YWCA, 기독교윤리실천운동회 등의 발빠른 활동으로 불교계에서는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

이근후 신경정신과(이화여대) 의사는 "종교적 소양계발을 통한 청소년 심성교화는 다른 어떤 시책보다 효과적"이라며 "불교계 적극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지도자 및 스님들의 사고전환과 각 단체간 정보교류, 문화공간 확보, 심성계발 프로그램 마련이 과제로 지적된다.

한편, 불교계에는 (사)청소년협회 파라미타,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청교련 인천지부 유해환경감시단·청소년쉼터, 한국불교청소년범죄예방연맹 등의 청소년단체와 사찰 학생회, 교법사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 등 청소년지도자들의 모임이 있다.

도필선 기자

한-캄보디아 불교교류 '재다짐'

텝퐁스님 방한…조계종 총무원장 예방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3일 캄보디아 텝퐁스님에게 승려교육지원금을 전달했다.

한국불교와 캄보디아 불교계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캄보디아와는 이미 미타종(종정 벽암)과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박광서·남지심)와 교류활동을 벌여왔다.

6월 20일 방한한 캄보디아 승왕 텝퐁스님은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예방, 양국 불교간의 교류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월주스님은 캄보디아 불교중흥을 위해 먼저 승려교육비(2천불)를 전달하고 앞으로 구제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대해 텝퐁스님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불교계간의 교류가 더욱 강화됐으면 한다"며 한국불교계의 지원에 고맙다는 의사를 표했다.

텝퐁스님의 이번 방한은 미타종이 96년 12월 한·캄보디아 불교교류 서명식 때 텝퐁스님의 요청과 6월 조계종 총무부장 혜창스님이 캄보디아 오남라움 사원을 방문, 방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서 비롯된 것.

미타종은 96년 캄보디아 몽클반·사라왓사원과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97년 2월 앙코르와트에서 봉행된 캄보디아 승려대회에 참석, 유학승을 파견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우리는선우 국제승보공경회도 승려교육을 위해 93년부터 아나룸 사원의 강사스님 교육비(1천불)와 깜퐁고아원(4백불)을 매달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캄보디아 불교계간의 불교교류가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캄보디아 텝퐁스님의 방한은 공식적인 교류가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불교는 지금까지 일본 중국 등 대승불교권과 미국 유럽 등의 포교와 교류에 주력해 온 반면 정작 불교전통이 남아 있는 동남아 국가교류는 소홀해 온 한국불교 국제교류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근 기자

목어

홍콩 차이나의 불교

홍콩이 155년만에 중국으로 되돌아갔다.

홍콩이 '홍콩 차이나'로 바뀌기 전날, 많은 홍콩인들은 기대와 불안을 안고 사원을 찾았다.

"다시는 조국땅이 외국지배를 당하지 않고 홍콩과 중국이 잘 화합해 좋은 미래를 만들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홍콩이 중국에 넘어가도 계속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홍콩에서 불교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18년부터이다.

〈홍콩불교사략〉에 의하면 그 이전까지 불교를 달하는 사람은 100명이 채 넘지 않았다고 한다. 이보다 훨씬 오래전 6조시대에 이미 홍콩 최고의 고찰 청산사가 세워졌고, 唐代에는 영도사가, 明代이후에는 관음사·능운사 등이 건립됐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불교는 '홍콩불교'라기 보다 '광동불교'에 해당했다. 아편전쟁이후 영국지배에 들어가기 전까지 중국의 광동성에 속해 별다른 특징이 없었기 때문이다.

1842년 남경조약이후 본국과의 정치적 단절로 홍콩은 중국과 다른 '홍콩불교'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그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거사불교다. 1925년 결성된 거사림은 광명학교를 설립해 불교홍포에 기여했다.

1931년 홍콩불교학회가 창립됐다. 잡지 창간과 불경강의가 유행을 이뤘고, 신행단체도 결성됐다.

2차대전이 끝나고 중국에 공산정부가 수립되면서 대륙의 승려들은 홍콩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에의해 홍콩불교는 발전의 계기를 맞는다. 홍콩불교를 '맨션불교'라고 부른다. 대지부족으로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를 임대한 절이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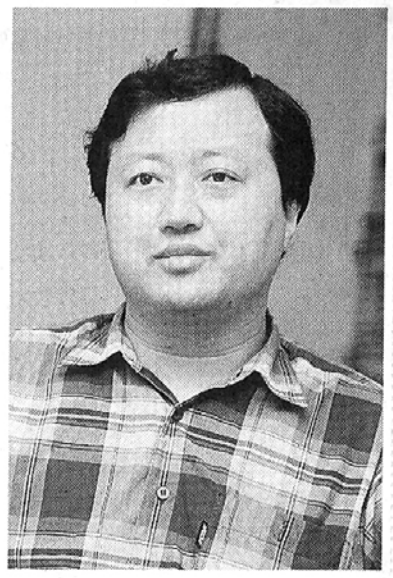
홍콩불교의 기장 큰 특색은 사회교육과 복지사업이다. 이러한 홍콩불교는 전통문물을 복원하면서 새롭게 기지개를 펴고있는 대륙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륙으로부터는 어떤 바람이 홍콩불교에 불어올까.

1972년 청하스님(통도사 부방장)이 조계종 홍콩 홍법원을 열어 교민교화와 한·홍 불교교류를 갖고있는 한국불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世界一花를 지향하는 한국불교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수요인터뷰

재가장애인을 위한 포교활동을 펴나갈 대한불교 한누리포교회가 5일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교계최초로 창립됐다. 한누리포교회는 1백 5만 장애인들의 권익사업, 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박인철 초대회장에게 한누리포교회의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듣는다. 〈편집자 주〉

5일창립 한누리포교회
박 인 철 회장



"재가복지 펼쳐 장애인포교"

사찰중심 조직 확대
불교수화집 발간 계획

- 한누리포교회의 창립으로 장애인 포교가 활력을 띨것으로 기대됩니다.

▲6년전 교직을 놓고 권견없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장애인복지신문에 참여하며 이분야에 전념했지요. 그러면서 불교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왜 못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한누리포교회는 우선 재가장애인포교부터 조직적으로 펴나갈 것입니다.

- 한누리포교회 설립취지는….

▲한누리포교회는 소외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하나의 세상'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 사회의 주인으로 소중한 삶을 살도록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석주큰스님을 비롯하여 각 종단의 지도자 스님과 명망있는 재가불자님들이 참여하고 있음으로 한누리포교회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 한누리포교회의 장애인포교는 어떤형태로 이루어 집니까?

▲복지관이나 시설을 세우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복지 형태입니다. 장애인중 80%가 지체장애인임에도 그들을 위한 도움은 미약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종교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장애인포교는 사람의 문제인 만큼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장애인포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재가장애인과 연결하는 작업도 할 것입니다.

- 한누리포교회의 주요사업 내용은?

▲3개월과정의 장애인포교대학을 개설하여 매기수당 20-30명에게 사회복지 일반과 장애인포교에 필요한 수화 점자교육등 실무를 교육할 방침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1차저으로 장애인 권익보호운동과 법회양식개발, 점자및 녹음도서 제작, 불교수화집 발간의 사업을 골칠 계획입니다. 이외도 직업훈련및 자립작업장 운영, 장학사업, 장애인을 위한 공동법회 성지순례 수련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김원우 기자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는 판전(장경각).

'97 문화유산의 해

나뭇결에 새긴 한국인의 마음결

'불교문화 테마여행'

7월 테마여행 - 해인사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팔만대장경(국보제32호)을 봉안하고 있어 법보종찰로 불리우는 해인사는 802년 순응과 이정 두 대사가 창건한 화엄십찰중 하나입니다. 고려말 몽고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를 맞자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 불심으로 몽고를 물리치고자 팔만대장경이 조성되었습니다. 16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수많은 이름없는 각수들이 불경 한자를 새기고 절 하고 또 한자를 새기고 절 하고, 이렇게 지극한 정성을 다해 구국과 평화를 염원하여 만든 팔만대장경은 우리 불자들의 영원한 자긍심 그 자체입니다.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는 판전(국보 제52호) 역시 경판보존을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완전무결한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물입니다.

절이름 '해인'은 〈화엄경〉의 '해인삼매'에서 나온 말입니다. 선원 강원 율원 등을 모두 갖춘 총림 해인사를 찾으면 "자기 자신을 바로 봅시다"라고 깨우침을 주시던 우리시대의 큰스님 '성철스님'의 사자후가 어느덧 메아리가 되어 가슴에 아로새겨집니다.

■ 참가 안내

◇출 발: 7월 27일(일) 오전7시·조계사 앞
◇안 내: 최원식(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회 비: 3만원(점심 각자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이 시대의 불자가 꼭 읽어야 할 불교 입문 필독서!!

화제의 신간

일주문

일주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 부처님의 생애에서부터 기도하는 법, 업과 운명과의 관계, 불자 예절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교에 대해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 불교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배울 수 있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 어려운 불교용어에는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놓았고 불·보살의 모습을 싣어 이해하기 쉽게 엮어 놓았다.
-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국판/ 윤지명 지음/256쪽/값 5,000원

※ 불교, 제대로 알기 — 일주문을 통해 들어가 보십시오.

이제 궁금증 뚝!!
오로지 대자유인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산문에 든 지 30여년

불교를 묻는 이에게

묵묵히 구도의 길을 걷는 선승 석원연스님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와 깨달음의 이야기

나의 귀여운 딸, 민들레의 눈길은
진정한 불교의 모습에 접하고 싶어했습니다.
그것은 "팔만대장경"의 방대한 불경 속에 들어가
있는 불교가 아니고, 그리고 활개치는 승려들의
주장 속에 담겨 있는 불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고통스러워하는 내 딸 민들레의 인생살이 속에
스며 있는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했습니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

신국판/석 원연 지음/374쪽/값 7,000원

※ 전국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중입니다. 지금 만나보십시오.





노서출판 대흥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교차로

경남불교협회장 피선



월파 통도사 주지는 6월 24일 경남불교 시·군연합회 및 주요종단 대표자 회의에서 경남불교협의회 제2대 회장에 선출됐다.

도선사서 화갑기념 법회



혜성 도선사 회주 스님은 1일 도선사에서 화갑기념 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서는 화갑기념 불교문집 〈이 마음에 광명을〉이 봉정됐다.

경제살리기 알뜰장터 참여



명우 목동청소년회관 관장은 6월 25일~1일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에서 서울시와 KBS 영상사업단 주최로 열린 '경제살리기 알뜰장터'에 물품제공 단체로 참여했다.

동아시아대회 감사패 받아



심산 통도사부산포교원장은 3일 문화회관에서 몽고선수단과 자매결연을 맺어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는데 기여한 공로로 부산시와 동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경수사 보경스님 입적



안성 경수사 주지 보경스님이 6월 20일 오전10시 입적했다. 세수 70세 법랍 52세.

영결다비식은 3일 경수사에서 지역스님들과 기관장, 단체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애도하는 가운데 엄수됐다. 평생 계율에 철저했던 스님은 안성 경수사를 창건, 군포교와 장학사업 및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앞장서 왔다.

SBS '생방송 4시…' 출연



박원일 前 조계종 전국신도회장은 SBS '생방송 4시! 신바람 스튜디오'에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출연한다. 현재 btn '날마다 좋은날' '시사칼럼' 코너 진행하고 있다.

전국불자교정인련 수련회



오희창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회장은 5~6일 대전 광수사에서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수련회를 개최했다.

서울·경기지부장 맡아

임장수 서울구치소불심회 회장은 6월 26일 서울 정광사에서 열린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지회장 모임에서 서울·경기지부장에 선출됐다.

선우강좌 1기 수료식

박광서 남지심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는 6월 30일 약수동 삼일선원에서 선우강좌 제1기 1학기 수료식을 갖고 6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런던 '문학의 밤 행사' 참석

김재홍 경희대 교수(국문학과)는 9일 영국 런던대학에서 열리는 '문학의 밤' 행사에서 한·영 만남 2백주년 기념 '한국시의 밤' 시낭송회에 참석한다.

국문학회 대표이사 뽑혀

임기중 동국대 기획조정실장(국어국문학 교수)은 6월 30일 동숭동 아트센타에서 개최된 전국 국어국문학과 임원회에서 제16대 대표이사로 선출됐다.

만해스님 53주기 추모재



이상번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6월 29일 망우리묘역에서 만해 한용운스님 제53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日서 달라이라마 초청협의

최일산 한국불교청소년범죄예방연맹 총재(티벳지원그룹한국대표)는 4일 달라이라마법왕 한국초청문제협의차 일본 동경으로 출국했다.

전국여성불자연수



김묘주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회장은 15일 오전11시 대구 동화사 약사대불 강당에서 전국여성불자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일초스님



◇지형스님



◇일진스님

일초·지형·일진스님 조계사 백고좌 법문

일초·지형·일진 세 비구니 스님이 조계사 제5회 백고좌 발심대법회에서 법문해 화제. △금화사 주지 일초스님은 6월 11, 12일 △운문사 강사 일진스님은 7월 25일 △청암사 주지 지형스님은 9월 20, 21일에 각각 설법한다. 지난해에는 해주스님(동국대 교수)이 비구니 스님으로는 유일하게 법문했다.



자신의 종교만 소중한가…

Focus

서울수유1동 화계사(주지 숭산) 입간판이 빨갛게 도색됐다. 새 단장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십자가를 그렸다. 멀리서 보면 피로 얼룩진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인 수유1동 파출소측은 지난해 발생한 화계사 방화사건과 동일범으로 보고 목격자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펴고 있다. 인근에 사는 신도들에 의하면 "3주전 새벽에 정체불명의 청년이 락카를 들고와 뿌리는 것 같았다"며 "사찰의 문패나 다름없는 입간판에 십자가를 그린 것은 불교를 모독한 행위"라고 분노했다.

단순한 낙서로 보기 힘든 이 사건은 범인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종교를 짐작케 한다.

"자신의 종교가 소중하면 타인의 종교도 존중되야 한다"는 간디의 말이 떠오른다.

김주일 기자

"평범한 가정이뤄 함께 절다니고 싶어요"

옥중결혼 강영신·최양숙부부



"독실한 불자인 남편과 절에도 다니면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싶어요."

17년5개월째 복역중인 강영신씨(42)와 옥중결혼하면서 불교와도 인연짓게된 최양숙씨(32. (주)우리가 기획실장)의 기원은 소박하지만 안타까운 것이다.

부산교도소에서 매일 조석으로 108배 참회의 절을 하고 있는 강씨가 아내 최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손수 만든 염주 뿐이었다. 또한 아무나 할 수 없는 삶을 선택한 최씨는 휴(교도소밖으로 휴가를 나가는것)를 1주일간 받게된것. 미국에서 은행을 다니던 최씨는 휴가를 받아 강씨를 만나기위해 한국으로 날아왔다.

최씨는 남편의 죄가 곧 자신의 죄요 업이라고 강조했다. 결혼한 이후 남편의 참회를 돕고 함께 업장을 닦기위해 애썼다는 그는 앞으로도 참회기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강씨는 80년 조직폭력 및 살인미수라는 죄명으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모범적인 수감생활이 참작돼 20년으로 감형됐다. 10여년전 고향선배였던 종수스님(경주 분황사 주지)의 교화로 독실한 불자가 됐다.

부산=천미희 기자

17년째 복역 강씨 매일 108배 참회

"부처님 가르침 노래에 담았어요"



▨찬불가요집 '세심원' 발표

머루와 다래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찬불가요 음반 '세심원'을 제작했습니다. 이제는 대중가수에서 노래하는 포교사 '머루와 다래'로 거듭날 생각입니다."

불자가수 부부 '머루와 다래'가 찬불가요집 '세심원'을 발표하고 음성포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앨범에는 '석가여래'를 머릿곡으로 '이 마음 비울길 없네' '자비하신 님이여' 등을 포함 총 21곡이 수록돼 있다.

'머루와 다래' 김정안(45) 김정자씨(37)는 87년 KBS '스타탄생'이란 프로그램에서 금상을 받고 독집앨범을 선보이며 가요계에 정식으로 데뷔했다.

"항상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로 전파하겠습니다." '머루와 다래' 부부의 다짐이다.

게시판

♣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교육방송국장 신일식 △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장 손상길 △교무부처장 이범수 △교육대학원 교학부장 윤범대

♣ 알림

어린이 수련캠프=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불성과 창의력을 개발하자'라는 주제로 23~25일 영월 관음사에서 97 연꽃어린이 여름수련캠프를 개최한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이번 캠프에서는 손수건 염색, 핑거페인팅, 별자리관찰, 야간포스트훈련 등의 시간이 마련된다. (02)738-7860

공부방개설=대구 불교사회복지회(회장 지도스님)는 22일~8월 14일 매주 화, 수, 목 3차례 중2~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개설한다. 공부방에서는 글쓰기·수학·영어회화를 가르칠 예정이다. 수강료 1만원. (053)427-1907

여름불교학교=대구 최정사(주지 금봉)는 25~27일 6세~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여름불교학교를 개설한다. 마감 12일. (053)767-4860

여름 방충망설치=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생활보호대상자 무의탁노인들에게 방충망을 제공해 줄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02)203-3677

학생자원봉사자교육=부천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21일~25일 5일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후에는 봉사활동확인서도 발급한다. (032)325-2161

♣ 모집

장애인 부업제공업체=마산시 중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흥스님)은 재가장애인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 공동작업장 부업제공 업체를 모집한다. (0551)31-8017

♣ 행사

청정운동실천전국대회=제2회 '97 청정운동실천 전국대회가 15일 오후5시 속초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만해사상과 민족현실'을 주제로 박완일씨(前 조계종전국신도회장) 특강과, 실천행사로 겨레와 조상바로알기 캠페인도 열린다. (02)719-2606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불광사 20,000,000원 △금강경독송회 10,000,000원 △서울대 대학원 자치회 3,845,910원 △혜원정사 130,140원 △보명유치원 101,200원 △청년정토회 460,000원 △정토포교원 210,000원 △덕장스님 1,000,000원 △故 최붕진 1,000,000원 △이경예 500,000원 △김용희 500,000원 △김묘길 외 135명 6,357,340원 △밥 한 공기 나누기 운동 536,000원 △한 끼 굶기 운동 4,565,000원

〈2일 현재 총 624,450,109원〉

- 후원금 접수(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97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00명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야간	•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통신		
중 국 어 과	2년	•주간 •야간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7월 18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우편 당일소인 유효)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본교 교학과 : 511-2026~8
본교 수행도량 해인사 : 953-2782~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511-2026~8, 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511-2026 팩스 : 511-1090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7 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성철큰스님의 백일법문(上, 下)을 부교재로 선택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1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강사

1년 교과목	법회사상, 화엄사상,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학개론, 선종사상, 밀교사상, 불교미술, 불교사회복지론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종범스님(승가대교수), 권탄준(동국대교수), 성본스님(동국대교수), 한정섭(상락향원장), 박종(인성개발원장), 윤열수(동국대교수), 종석스님(승가대교수), 보각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정락스님(전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교수), 인환스님(동국대교수), 암도스님(전포교원장), 정병조(동국대교수), 오국근(동국대교수), 정승석(동국대교수), 차차석(동국대교수), 묘주스님(동국대교수), 장휘옥(전동국대교수), 허경구(동국대교수)

3. 모집 방법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1997년 6월15일~7월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회관 및 동산법당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자만 가능

4. 입학 일시 1997년 8월2일(토) 오후 6시(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732-1206~8, FAX : 732-1207)
(〒110-170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갤러리4층)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425-4097) ◎ 대전 : 보문서점(257-0161)
◎ 광주 : 불일서점(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55-2203)

특전사항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탐방

재소자 60명 옥바라지

서울구치소불심회

사회로부터 낙인찍힌 가장 불우한 이웃이 있는 곳. 소외된 이들의 인권포교에 앞장서온 진관스님과 노태우 前대통령이 정진하고 있는 곳.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는 이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있다. 불자 교도관들의 모임인 서울구치소불심회(회장 임장수) 회원 120명이 그들.

80년 창립…회원 120명
"불서보시 기다려요"

지난 80년 7월1일 불자회 모임이 결성, 87년 6월1일 불심회(초대회장 김기옥)가 출범한 이래 회원들은 24시간 재소자들과 옥살이(?)를 함께 하며 사회로부터 소외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불심으로 어루만지고 있다.

회원들은 매주 금요일 경비교도대원들의 정기법회를 지원하는 한편 직원 및 재소자 수계법회, 매달 사찰순례법회, 매주 수요일 경전공부 모임 등을 실시하면서 저마다 옥문(獄門)을 여는 지장보살이 될 것을 서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18일 현 임장수회장이 3대회장에 취임하면서 '전 교도관의 지장보살화' 원력을 세운이래 67명이던 회원이 6개월만에 120명으로 늘어나는등 눈에 띄는 신행을 펼치고 있다.

임장수회장(47)은 "서울구치소는 4천여명의 재소자중 80~90%의 미결수가 3~6개월만에 석방되는 곳"이라면서 "이곳보다 단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거둘만한 포교현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닌 '따뜻한 자비심'. 그래서 이들에겐 자비의 가르침을 담은 불서가 가장 필요하다. 하지만 간간히 들어오던 불서 법보시도 그나마 현저하게 줄어 이제는 회원들의 회비로 구입하고 있는 실정. 불심회는 또한 영치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무의탁자 60명을 회원들의 박봉을 털어 관리해 오고 있다.

임장수회장은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수계식을 추진할 경우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0343)23-6107

여주=김재경 기자



◇서울구치소불심회 회원·가족 1백여명은 6월29일 여주 신륵사·목아불교박물관, 화성 용주사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사진은 신륵사다층석탑(보물 제225호) 앞에서 참배하는 회원들.

홍콩반환기념 월계법사 등신불 사진전

국회직원불자회 정각선원·와우정사서

홍콩의 역사적인 중국반환을 기념, 홍콩불교의 정신적 지주인 월계(月溪: 1879~1965)법사 등신불 기록사진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국회직원불교신도회(회장 이범이 국회사무처 국장)는 '홍콩의 육신보살 월계법사 사진 전시회'를 1~5일 정각선원에서 개최했다.

현대의 등신불로 유명한 월계법사는 불전에서 연지(燃指: 손가락 태움)와 흉주(胸炷: 가슴을 심지 심음) 등 불퇴전의 서원과 용맹정진을 보였으며, 홍콩을 비롯한 주변불교국에 禪과 교학을 두루 겸비한 당대의 선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월계법사는 1965년 87세로 가부좌한 채 입적, 8개월만에 등신불로 세상에 출현했다. 이때 스님의 육신은 조금도 썩거나 상한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에서는 향내가 진동했고 몸은 금빛으로 빛났으며 자세 또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전한다. 이렇게 금강불괴지신(金剛不壞之身)을 이룬 월계법사의 등신상(等身像)은 만불사 월계불당에 좌우보살상과 함께 안치돼 홍콩불자들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왔다.

이번에 전시된 월계법사의 등신불 사진 35점은 생전에 인연깊었던 열반종 와우정사(법사 김해근)에서 유품과 함께 다시 전시된다.



◇앉은채로 열반한 월계법사.

독일 올 가을 "한국불교와 함께"

베를린보문사 9월 '아·태주간' 대장경등 전시

한국불교를 독일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대규모 문화행사가 아시아 태평양주간(9월15일~10월15일)동안 베를린에서 개최된다.

7년째 베를린 지역의 포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보문사(주지 병오)는 팔만대장경 관서, 고승선서화, 한국화, 석굴암 사진전을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3일까지 베를린 샤로텐부르크 구청전시관과 훔볼트대학 도서관전시관(9월7일부터 10월 2일)에서 연다.



◇병오스님

한국불교 문화재와 불교사상을 담은 각종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에는 해인사 팔만대장경 경판을 인출해 원형대로 제작한 판서와 화엄경변상도 대장경 관련 자료, 불국사와 석굴암의 불교문화재 사진(주제 '윤회의 영겁')이 소개된다. 석주(조계종원로)스님, 서옹스님(백양사방장), 청하스님(통도사부방장), 故 서경보스님, 범서서예가 동산스님, 선화가 성륜스님, 보경스님의 선서화를 비롯 권창륜 조용선 이권일 김승남씨등 중진 서예가들의 작품과 강장원 차영규 김규씨 등의 한국화도 독일인들과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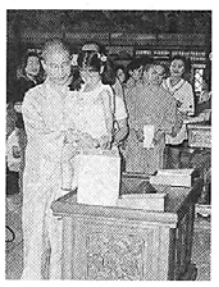
베를린 전시와는 별도로 9월을 '한국의 달'로 정한 함부르크주의 함부르크 예술산업박물관에서는 9월 21일과 27일, 10월11일 병오스님과 조용신 권창륜 차용규교수등이 지도하는 서예 선서화 워크숍도 열린다.

KBUF 불교아카데미 연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는 6월 27일~29일 한마음선원 금왕지원에서 KBUF 불교아카데미 상반기 연수를 실시했다. 30여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한 이번 연수에서는 출석반·통신반의 상견례, 수행법 강의 및 실수, 기말고사, 수계식 등이 있었다.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법현스님)는 6월 28,29일 서울 구룡사에서 3백여명의 어린이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를 실시했다. 강습회는 찬불가와 율동배우기, 특수효과 활용법 등으로 진행됐으며, 北어린이 돕기 모금운동도 펼쳤다.

우리 모임에선

부산의사회 철야정진

부산불교의사회(회장 진성태 진신경정신과의원장)는 26, 27일 통도사에서 1천배 참선 등으로 철야정진법회를 갖는다. 법회 후에는 통도사부설 자비원을 방문. 同회는 매주 둘째 화요일 통도사 부산포교원(주지 심산)에서 정기법회를 갖는다.
(051)514-1845

불교봉사회 병원봉사활동

불교사회봉사회(회장 송지연) 회원 20명은 10, 24일 서울대병원 중앙공급실에서 의료기구 소독 및 붕대 접기 봉사활동을 펼친다. 同회는 매년 소년소녀 가장 6가구, 가택보호자 4가구에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원효정사(주지 중원) 신도들을 자매결연시켜 수시로 도움을 주고 있다. 정회원은 원효정사 신도 80여명이며 후원자는 2백여명.
(02)744-3413

광동학원 교직원연수

조계종립 광동학원(이사장 일면)은 26, 27일 불암사에서 광동중·고, 광동여고 교직원 140명에 대한 불교연수를 실시한다. 외부강사를 초빙해 불교교리, 불교수행 등에 대해 지도할 예정. 한편 광동중고교직원불자회(회장 조용기 교무주임) 회원 90명은 4일 봉선사에서 교직원법회를 봉행했다.

유니텔 불교홈페이지 개설

유니텔불교동호회(대표시삽 김정희)는 6월21일 홈페이지 '부처님나라'를 개설,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PC통신 불교동호회의 홈페이지 개설은 하이텔·나우누리에 이은 세번째. '부처님나라'는 △동호회 소개 △불교공부방 △한국의 불교 △한국의 사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 14개, 해외 92개 불교사이트를 연결시킬 수 있다.

인터넷 주소=http://forum.unitel.co.kr./bud/

경불련 도봉산 정화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환경모임(위원장 김용숙)은 매주 수요일 도봉산 원통사(주지 원태스님)에서 법회를 마친후 사찰주변 및 등산로와 계곡을 청소하고 있다. 환경모임은 또한 폐식용유를 수거해 재활용비누를 제작, 사찰에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사찰법회와 환경운동을 결부시킨 환경신행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이 모임의 회원은 50명. (02)765-5448

고대학생회 월정사 연화재

고려대불교학생회(회장 양민규)는 7월 5, 6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연화재를 봉행했다. 5일 저녁 8시에 입재식을 가진후 다음날 오전 연화재를 열고 사고로 죽은 법우들을 추모한 회원들은 참선, 108배 정진 등으로 참된 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의식교육원 제1기 졸업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6월28일 의식교육원 1기 졸업식을 동산법당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졸업생들은 그동안 배운 실력을 발휘, '삼귀의' '5분향례' '반야심경 봉독' 등을 직접 진행했다.

한편 이번 졸업식에서는 이문옥 감사관을 비롯 30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종단협 중국불교협초청 성지순례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조계종 총무원장)는 중국불교협회(회장 조박초) 초청으로 6월16일~26일까지 10박11일동안 중국성지순례를 실시했다.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인곡 태고종 총무원장, 지하 중앙승가대 총장,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 등 각 종단대표 22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성지순례에서는 북경 광제사, 남경 서화사, 구화산 기원정사, 항주 영은사 등을 참배했다.



국내 첫 계율도서관 '비니장' 현판

국내 최초의 계율전문도서관인 '비니장(毘尼藏)' 낙성·현판식이 6월28일 파계사 영산율원에서 봉행됐다. 38평의 비니장에는 남전대장경 등 8종의 대장경과 사분율 등 5천여권의 계율관련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율원장숙소(12평)와 학인요사채(36평) 낙성식도 함께 봉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계대화상 청하스님(통도사부방장) 도원스님(원로의원) 보성스님(송광사율주) 성우스님(파계사주지) 등 3백여명이 참석.



조동종 운파스님 종정재추대 법회

조동종 제2세 종정 운파스님 재추대 및 제4대 총무원장 송정스님 취임법회가 6월29일 울림피아 호텔에서 거행됐다. 또 영봉스님과 지명스님도 부종정과 승정원장에 각각 추대됐다.

대산(종정협의회장) 월서(종단협 상임부회장) 영명(법상종 종정) 일공(원융종 종정) 대호(대한법화종 총무원장) 남정(총화종 총무원장) 김광태(한국법화종 총무원장) 국성(천태종 총무부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



생명나눔실천회 충남지부 창립

생명나눔실천회 충남지부(지부장 조문호·서광유치원 원장) 창립식이 1일 서산문화회관에서 이사장 법장스님, 현각스님(향천사 주지), 김기홍 서산시장, 이복구 도의원, 김현구 前충남도지사 등 지역주민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생명나눔실천회 충남지부는 창립을 기점으로 장기기증신청자 30명, 정회원 50명이 뜻을 함께 했으며, 신부전증환자 조회정씨에게 수술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제4회 연꽃 어린이 여름 캠프

전강이 넘치는 계절 여름을 맞이하여 우리 새싹불자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부처님 말씀도 듣고 인성도 개발할 수 있는 여름캠프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처님과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알차고 재미있게 보내는 여름방학을 책임집니다. 특히 "부처님 품 안에서 스님과 법사님이 진행하고 봉자등이 참가하는" 이번 캠프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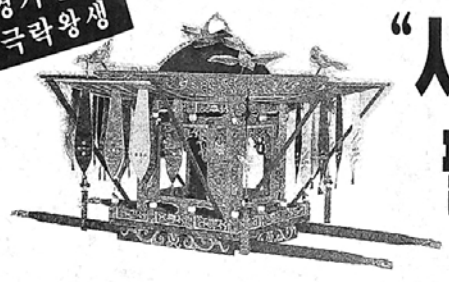
◈ 때 : 2541년 7월 23일(수) ~ 25일(금) 2박3일
◈ 곳 : 강원도 영월 사자산 관음사
◈ 누 가 : 초등학교 1~6학년 (※선착순 300명)
◈ 낼 돈 : 4만5천원 (2박, 6식, 간식, 기념품·교통비 포함)
◈ 캠프활동 내용 : 아름다운 이야기 (스님이 들려주시는 재미있는 불교이야기)
창의력 살리기 (손수건염색공예, 핑거페인팅)
불성을 찾아서 (법흥사로···)
자연과의 대화(물놀이, 밤하늘 별자리 관찰)
야간 Post훈련
캠프화이어 (장기자랑, 불꽃놀이, 특수효과)
◈ 준 비 물 : 운동화 착용, 샌들, 횃이불, 첫날 점심 도시락, 공양미, 헌공금, 모자착용, 세면도구, 필기도구, 수영복, 긴팔옷, 손전등, 여벌의 옷, 우의(우산), 비상약
◈ 문의 및 접수 :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 02)738-7860
◈ 온 라 인 : 국민은행 832-21-0225-121 김경희 (입금시 연락요망)

진 행 :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이벤트 사업팀 "부루나 (BURUNA)"
후 원 : 대한불교진흥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협 찬 : 가위 바위 보 가방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회장 법현

歷史는 바뀔 수 있어도
佛教傳統儀式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영가천도 극락왕생



"사찰에 輦(연)은 필수품 입니다"

가격은 내리고 불교전통문화의 예술적 작품으로 장엄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원목을 사용한 정교한 조각과 우아한 단청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1개월 이내에 모셔 드리겠습니다.
스님의 주문형으로도 제작하여 드립니다.

부처님과 함께 맺은 인연 평생을 부처님을 위해 일하는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영업품목 ■대불 ■특수불 ■개금 ■단청 ■탱화 ■탁자 ■영단 ■주련 ■범상 ■현판 ■문짝 ■경상 ■탑집

종합불사조성회사
藝暻佛美院
서울 特別市 城北區 東汕洞 4街 91番地 韓國빌딩 3층
예성불미원 · TEL:(02)925-5070(代) · FAX:(02)925-3991

법회안내

문빈정사(062)222-2202
정기법회 매월 초하루~초사흘 오전10시30분
인등법회 매월7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오전10시30분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9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5시
합동정진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전10시
거사회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7시


◇주지 법일스님

여의도포교원(02)784-9136
인등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30분
법화경강좌 월~금 오전10시30분


◇주지 현진스님

포항 관음사(0562)47-2729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중학생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2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부처님마을법회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6시

대안정사(0334)675-7707
정기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7시
산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
인등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
사경기도 매월18~24일(음) 오전10시
반야회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7시
공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법림사(062)234-2207
산중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마야법회 매월7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철야정진법회 매월 첫째주 토요일 저녁8시

구화사(053)323-4984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기초교리강좌 매월1일(음) 오전11시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1시
초발심자경문 및 지장경강의 매월18일(음) 오전11시
금강경강의 매월24일(음) 오전11시

극락정사(02)814-9670
산중기도 매월1~3일(음) 오전10시
인등법회 매월7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이렇게 들었다

호법 목숨 잃을망정 정법배반 말라

조계종은 6월26일 육군 특수전학교 훼불사건과 관련 국방부장관의 공식사과를 받아내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에앞서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이상번)는 6월21일 호법단(단장 남도희)과 민족문화지킴이(단장 배상호)를 발족, 교권수호와 사찰환경 보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최근까지 꾸준히 계속돼 온 훼불사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찰환경 훼손과 관련한 교권 침해에 대해 이제는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을 지키는 불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 지 경전에서 듣는다. 〈편집자 주〉

▨여래의 입멸 후에 어떤 사람이 불·법·승을 헐뜯는다 해도 너희들은 노하거나 번민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들이 만일 성낸다면 사문이 아니며 사문의 도리가 아니며, 불도를 수순(隨順)함이 아니다'고 생각해야 한다. 〈화수경〉

▨정법을 호지(護持)하는 경우,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 비길 바 없으리니,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정법을 배반치 말아야 한다. 〈제법집요경〉

▨보살은 세세에 늘 비방을 받아 큰 고통이 있다 해도 다 이를 참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행지(行地)에서는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진다. 〈보살행오십연신경〉

▨만약 어떤 사람이 욕하고 비방하며, 몽둥이로 때리고 칼을 도려내어 그 몸을 괴롭게 하여 목숨이 끊어지기에 이른대도, 이 일 때문에 어지러운 마음이나 노여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또한 뜻이 물러서지 않아 대비홍서(大悲弘誓: 큰 자비에서 나오는 불·보살의 서원)를 더욱 강화해서 휴식이 없어야 한다. 〈화엄경〉

▨보살행은 인내가 근본이니라. 인내에 네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욕을 먹고도 참묵하여 맞서지 않음이요, 둘째는 매를 맞아도 원한을 품지 않음이요, 셋째는 노여움을 지닌 자를 자애의 마음으로 맞이함이요, 넷째는 경멸하여 욕하는 자가 있어도 그 악을 생각에 두지 않음이다. 〈보살생지경〉

▨끝없는 천마(天魔)·귀신·야차(夜叉)·나찰(羅刹)이 침범해 와도 보살은 인욕바라밀을 가지고 그 군사를 깨며, 내지는 8만4천 번뇌의 도둑이라도 인욕으로 꺾어 없애며, 이런 천마의 대군과 번뇌의 도둑뿐 아니라 극하극소(極下極小)의 도둑까지라도 인욕으로 제어한다. 〈육바라밀경〉

▨선남자야, 만약 어떤 사람이 승보를 손상시킨다면 악귀가 마음에 들어가, 그 결과로 인신(人身)을 잃고 길이 지옥에 떨어져 나올 시기가 없으리라. 〈대교왕경〉

▨아난아, 나에게 평등한 대비(大悲)가 없다고 말할지언정 우바리를 천하다고는 말하지 말라. 그가 비록 천민 계급에서 나오기는 했어도 호법(護法)·지율(持律)에는 제1인자이니, 그는 중생으로 하여금 삼종묘과(三種妙果)를 얻게 하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천히 여길 것이 아니라 존경해야 하느니라. 〈대방편불보은경〉

▨아주 오묘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비방하는 사람은 그 죄가 매우 무거워서 오무간(五無間: 5종의 무간지옥)의 온갖 죄업보다 더하다. 〈불모출생경〉

▨비유컨대 태산이 바람에 불리어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보살의 마음의 온갖 좋은 소리, 나쁜 소리에 대해 기쁨도 근심도 느끼지 않는다. 〈아사세왕경〉

신행수첩

사경회 만일기도 헌다식

대한불교사경회 만일생명기도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양배)는 17일 금정산 범어사 지장암(주지 묵화)에서 헌다식 법회를 봉행한다.

95년 1월1일부터 시작, 만일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1백일마다 부처님께 차와 꽃을 공양하는 의식인 헌다식 법회는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개최성공을 기원하는 기도불사이다.

매일 24시간 중단되지 않는 목탁소리를 들으며 자신보다 타인,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발원을 하며, 기도의 참뜻을 되새겨 보자. (051)554-7535

최정사 가족법회 한마당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재물, 명예도 아닌 가족간의 화합과 사랑일 것이다.'

대구 최정사(주지 금봉)는 처음으로 13일 오전 10시 가족법회 및 청년회 창립 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금봉스님의 '불우이웃을 돕고 자비실천 정신으로 생활하자'는 내용의 법문과 가요경연대회, 장기자랑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다운 불자로서 수행정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053)767-4860

청소년 환경감시단 교육

불교 문화재 보호를 통해 불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한국불교사회연구원(원장 본관스님)은 지역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감시 활동을 펼칠 청소년감시단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환경감시단으로 활동할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경주일원 형산강 지류보호 활동으로부터 남산 불교문화재 주변정화 등 환경봉사 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게 될 청소년 감시단은 월1회 봉사활동 및 시청각 교육을 받게 된다. (0651)41-0762

'감포 앞바다' 어린이 답사

어린이를 위한 현장체험 위주의 답사가 현직선생님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13일 무더위에 지친 어린이들에게 시원한 바다 바람을 맞으며 문무대왕의 호국의지를 되새길 수 있는 유적답사를 떠난다. 이번 답사길에는 문무대왕의 수중릉을 비롯 이견대, 감은사터, 기림사 등 경주에서 동해로 나가는 길의 유적들을 둘러보게 된다. 또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시간도 준비돼 있다.

회비는 무료이며, 오전 9시까지 신라문화원에 집결해야 한다. (0561)771-1950

종교인 평화회의 '숲속학교'

부산종교인평화회의(공동대표 정각스님)는 8월1일~7일 원불교 배내 삼동청소년 훈련원(경남 울주구)에서 '제2회 숲속의 학교'를 연다. 〈사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5개 종교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종교문화 생활교육(원불교의 마음대조일기), 올바른 식사법(불교의 발우공양, 양관스님지도), 이웃사랑(천주교의 성서이야기)과 명상, 다도, 별자리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초등학교 3~6학년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열리는 '숲속의 학교'는 해맑은 동심으로 종교간의 벽을 허물고 범종교적인 가치관을 어린이들에게 가꾸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

(051)243-9069


◇5개 종교계에서 모인 어린이들이 선담스님의 지도로 발우공양을 배우고 있다. 사진은 작년에 열린 '제1회 숲속의 학교' 모습.

탄허재단 상원사 야외법회

탄허불교문화재단(이사장 전창렬)은 13일 치악산 상원사(주지 경덕)에서 야외법회를 봉행한다.

녹음이 우거진 신록의 계절, 나들이를 겸한 이번 법회는 경덕스님의 '상원사 유래'를 곁들인 법문과 대웅전(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8호), 3층석탑(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5호) 2기 등을 답사할 예정이다. 또 사찰의 연기를 그린 요사채 뒷벽의 벽화도 눈여겨 볼만한 흥미거리다.

1천m 높이에 위치한 상원사에 가는 길도 정진 수행이라 생각하고 오르면 상원사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더욱 빛날 것이다. (02)237-4438

나의 수행일기


김영열

죽은아내 일기장 보고 발심

집을 법당삼아 새벽독경으로 하루 시작

1990년 6월의 어느날, 아내가 입원한 원주 연세 의대부속병원 담당 의사는 보호자인 나를 진료실로 불렀다.

"이제 암이 말기로 진행됐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상 했던 일이지만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내의 임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35년간 교육의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밖에 모르던 아내.

그런 아내에게 7년 동안의 고통스런 투병생활마저 모자라 죽음이라는 가혹한 형벌이 주어지다니…. 순간 나는 죽음의 선고 직전까지 염주를 굴리고 경을 외우며 아내가 의지했던 부처님이 원망스러워졌다. 그토록 암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서원하고 기도했건만, 부처님이 외면하셨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해 7월, 아내는 나와 두 아들을 남겨 놓은 채 극락정토로 떠나가 버렸다. 아내가 이승을 떠난 후 3개월 동안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더니, 젓가락 2개만 갖고 결혼해 함께 고생하며 지은 집은 손길 닿는 곳곳마다 아내의 흔적 투성이였다.

그런 기억들 속에 둘러싸여 나의 방황은 시작되었다. 누워서 잠을 청하면 떠오르는 생각들. 직장에 나가 있는 낮시간이면 그래도 덜한데, 혼자 있는 밤시간은 더욱 괴로웠다. 하루 하루의 삶들이 무의미하게 흘러 갔고 설상가상으로 병까지 얻었다. 언제부터인가 오른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걸으려 해도 힘이 빠져 질질 끌수 밖에 없었다. 나는 풍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확한 병명을 찾아내지 못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 병원을 돌아 다니던 중 가까스로 내가 앓고 있는 병이 '파킨슨씨병'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번 눈앞이 아득해짐을 느꼈다. 고단한 육신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다. 두 아들만 없다면 그냥 이대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이럴 때 아내라도 곁에 있다면 좋으련만.

나는 힘들 때마다 아내의 일기장을 꺼내 보는 버릇이 있다. 그날도 나는 아내가 임종을 거두기 일주일 전에 썼던 일기를 읽었다. "언제 이 지긋지긋한 암과의 전쟁이 끝나는 것일까? 죽음이 두렵다. 죽은 뒤에 인간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일기의 마지막 몇줄은 금강경 사경으로 끝맺고 있었다. 인생의 고비때마다 사경과 기도로 마음의 평정을 찾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온 아내의 불심을 잘 아는 나였지만, 이날 몇줄의 〈금강경〉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나도 경을 외우고 기도를 한다면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상심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뇌리를 스쳤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이 날부터 경을 외우고 기도를 시작했다. 〈천수경〉〈반야심경〉〈금강경〉 등 의미는 잘 몰랐지만 손에 잡히는 대로 읽어 나갔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어느덧 2년째. 이제는 새벽에 경을 암송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침식사를 미룰 만큼 생활화가 되었다. 근심으로 가득찼던 마음도 편안해졌다. 요즈음도 불편한 몸 때문에 절에는 자주 못가지만 내 집이 법당이라 생각하며 장소에 상관없이 열심히 정진하려 한다. 또 올해초 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부터는 시간 나는대로 불서(佛書)를 구입해 독서삼매에 빠지곤 한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나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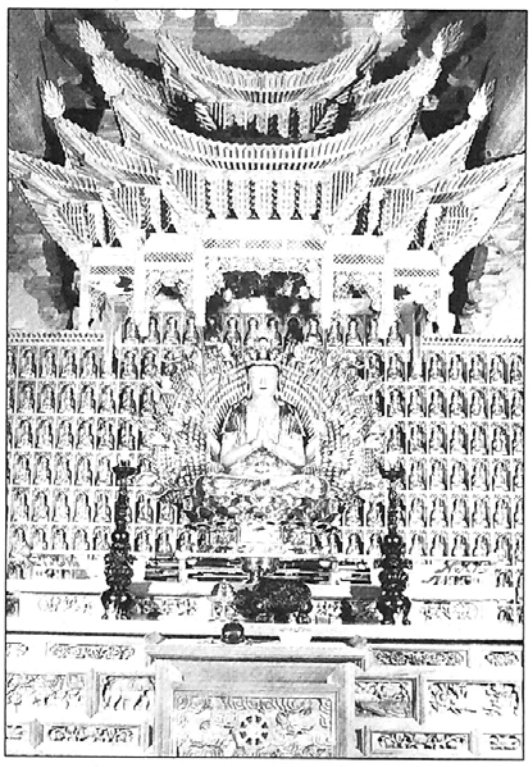
오늘도 나의 하루는 이렇게 '불설소재길상다라니'로 시작한다. 사랑하는 아내를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나 보낸 후 정신적으로 무척 힘든 나날이었지만 기도는 나를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아마도 아내가 회향하면서 나를 포교한 모양이다. 〈원주시립도서관장〉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대표 이진형 합장

불자 세상보기

"인천시민 코막고 산다"
닷새째 악취…원인 못찾아

닷새째 인천시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당국이 원인파악을 못하고 있어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인천지역에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암모니아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진동해 시민들이 메스꺼움과 두통에 시달렸다.

인천시와 환경부는 9개 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해 악취발생 원인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조사반의 활동은 악취 발생지역에 출동해 냄새를 맡아보고 주변 공해공장을 돌아다니며 공해물질을 기준치보다 초과배출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게 고작이었다.

"공무원들이 냄새가 난다는 지역에 나와 코로 냄새를 맡고 다닌 것이 대책의 전부였다"며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는 환경부와 인천시가 서로 책임떠넘기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악취로 인한 고통과 함께 행정기관과의 구태의연한 모습이 시민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학교폭력…새싹까지 '비상'

피해 급증…계몽·단속차원 넘었다
가정-학교-사회 합심 인성교육 나서야



◇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가 호소문을 들고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에서 발생한 엽기적인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범인이 10대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일본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용의자는 일본과 미국의 연쇄살인사건에 관한 책을 즐겨 읽어왔으며, "경찰 제군들이여, 나를 중지시켜 보라. 살인을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다. 의무교육이 나를 변하게 했다. 학교에 복수하겠다"며 경찰과 학교에 대한 원한을 나타냈다.

이 사건은 바다건너 일본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학교폭력의 원인과 너무나 흡사하다. 우리의 신문과 방송에서도 연일 청소년폭력이 주요뉴스가 되고 있다. 동료학생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다. 교사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른다. 최근 3개월 동안 학교폭력에 의해 자살하거나 피살에 이른 사건이 20여건에 이른다.

초등학생과 여학생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었다.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시내 모 초등학교 학부모 정윤오씨는 사흘째 아들의 학교앞에서 호소문 시위를 벌였다. '아들아 얼마나 아팠니. 네 몸에 피멍이 드는 순간 이 아빠의 가슴에도 피멍이 들었단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실에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피해사례 9백23건 가운데 여학생 상담건수가 3백26건으로 35.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화된 학교폭력이 급기야 반사회집단화하고 있다. 기성 폭력조직에 조직원 공급역할도 맡고 있다. 경찰은 일진회라는 학생 폭력조직에 대해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도 28일 고건총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추방대책본부'를 신설, 8월 개학 전까지 학교내 불량폭력서클을 완전히 뿌리뽑기로 했다.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음성적인 해결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정성운 기자

불교의 눈 "폭력은 성불파괴"

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장래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종기 이사장은 "학교폭력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사회전체가 청소년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교화연합회 조달현 사무국장은 "교사들이 지식만 전달하는 기능적 위치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교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불교는 만물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폭력은 불성의 파괴이다.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 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게 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안락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안락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안락을 얻지 못한다." 〈법구경〉

시론

지자체의 개발의욕

요즘에는 '녹색(Green)'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인기가 높다. 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 그린 플랜((green plan), 그린 라운드(green round), 그린 르네상스(green renaissance) 등의 사회·문화적인 개념이 그렇고, 그린 소주 등을 비롯한 생활용품의 표지에서도 녹색이라는 단어는 지나치리만큼 우리의 주변에 넘치고 흐른다.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환경파괴를 암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스트레스없는 생활환경

생태학적인 역할과 기능 이외에도 자연환경은 인간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볼때 인간이 가장 효율적으로 스트레스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은 자연환경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계속 밝혀지고 있다.



이 영 경
〈동국대 교수·조경학〉

예를 들면 중환자나 만성질환자의 회복의 경우 자연광선이 들어오는 병실의 창문이 없는 병실에서보다 회복이 빠르다. 또 자연경관(뒷뜰, 주변의 농장이나 삼림 등)을 바라 볼 수 있는 감옥의 수감자가 그렇지 않은 수감자에 비해 의료시설의 사용율이 낮다.

자연환경에서 발견되는 정보나 자극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다양화되고 복잡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보존과 적극적 조성은 시민들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 지자제 실시 2년이 된 시점에서 개발과 경제를 빌미로 자연환경과 역사환경이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이미지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개발의 예는 전통사찰 주변의 아파트 개발사업, 위락개발사업, 석산개발, 폐기물 매립장 건설등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대부분은 개발 우선주의와 관광편익, 지역경제 우선주의에 밀려 사찰환경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개발과 관련한 환경훼손은 사찰이나 개별적인 문화·역사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미지나 역사성 전체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경마장 개발과 황성숲의 체육공원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주시가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경주시의 황성공원은 신라초기부터 현재까지 1천년 이상을 울창한 마을숲으로서의 뚜렷한 형태와 기능, 역사적 의미를 가진 문화적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에서는 체육공원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내체육관 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이는 황성공원의 성격이 어느 도시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근린공원으로 성격이 규정되는 것으로 결국 1천년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온 황성공원의 문화역사적인 장소성이 훼손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아가 실질적 의미에서의 우리문화와 역사의 손실이라 할 수 있다. 경주시의 예만 보더라도 지자체는 지역개발과 경제성 등을 사업의 타당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대단히 단편적인 발상에 불과하다.

민선 지자체장들의 지나친 개발의욕을 견제하고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이같은 환경파괴의 양상은 더욱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제 시대의 균형적인 국토개발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국토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강화 △환경영향평가의 적극적 채택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의 마련 △긍정적인 장소성에 근거한 지역발전 방향의 설정 등으로 요약된다.

천년간 형성된 황성공원

국토개발에 대해서만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여 보다 장기적 시각에 근거한 개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시·도등 지자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더라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시·도의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효율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각 지역의 잠재력과 특수성, 긍정적인 이미지와 장소성에 근거한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연구와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지계 금주 파계

삯바느질 할머니 10억 쾌척

●…93년 삯바늘질로 장만한 상가(시가 30억원 상당)를 장학기금으로 내놓았던 이순육할머니(85)가 30일 서울대병원에 "아픈 사람을 위해 써달라"며 10억원을 전달했다. "깨끗한 돈이니까 환자들을 위해 쓰면 효험이 있을거야." 서울대병원은 이 돈을 할머니의 호를 따 '좌송(坐松) 호흡기연구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삼성경제연 연구결과 공개

●…삼성경제연구소가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로는 처음으로 연구소의 모든 연구결과물을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 제공자료는 이 연구소 창립 이후 11년간의 연구결과물로 10만여 페이지(A4용지 기준)에 이른다. (www.seri-samsung.org)

'스포츠신문 바로잡기' 출간

●…음란폭력성조장매체 대책시민협의회가 〈스포츠신문 바로잡기 시민운동백서〉를 펴냈다. 백서는 유익하고 건전한 신문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90년부터 올해까지 '스포츠신문과의 8년 전쟁'을 결산한 것. 스포츠신문 불매운동 등 다양한 수용자운동 전개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아버지들 힘모아 도서실 마련

●…한 아파트에 사는 아버지들이 힘을 모아 아파트 지하공간에 도서실을 만들었다. 서울상도동 대림아파트 103동에 사는 상도여중 이창국교사를 비롯한 초·중등교사 7명. 자녀들의 책을 사대기가 벅차다는 고민을 나누다 도서실을 만들었다.

장애인에 약값 30% 할인

●… '장애인 우대약국'이 등장했다. 마산시약사회는 장애인 복지시책의 하나로 '장애인 우대약국제'를 1일부터 실시, 지체 및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약값의 30%를 할인키로 했다. 마산시의 1백68개 약국이 모두 참여, 약국 유리창에 '장애인 우대약국'이라는 스티커를 붙였다.

부부교사 북돕기 1천만원

●…30대 부부교사가 북한동포돕기에 써달라며 주택마련을 위해 모은 1천만원을 6월25일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해 뒤늦게 알려진 김기훈(마산 합포여중) 정진미(마산 북성초등교)씨. "언론을 통해 북녘동포의 참상을 접한 뒤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내놓았습니다."

휴가-숙박비도 판공비인가

●…자치단체장이 여름휴가 때 사용한 호텔숙박비도 판공비인가. 감사원은 56개 지방자치단체의 94~96년 섭외성경비를 특별감사 모두 4백25건 6백10억원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 서울 동대문구 의회사무국장 이모씨는 의정활동비 9백30만원을 구의원 부인들과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사주는 등 변태집행했다.

운전학원 불법 잇따라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운전학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6월 26일 특별단속을 벌여 무자격 강사를 채용하거나 교육생 원부를 허위작성한 28개 학원을 적발했다. 경찰은 학원측의 불법행위르 면허를 취득한 수강생들의 면허를 모두 취소키로 했다.

미장원서 불법의료행위

●…의료기구를 차려놓고 살빼기와 귓불뚫기 등 불법의료행위를 해온 36곳의 미장원이 서울시에 의해 적발돼 고발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소들은 미장원에 비만체형 교정기구 등 의료장비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살빼기 시술을 해왔다.

유명식품업체서도 불량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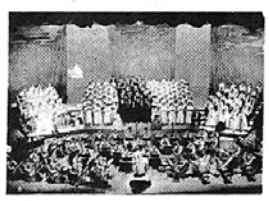
●…유명식품업체들이 제조한 식품이라도 마음놓고 먹을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6월 30일 파스퇴르유업 삼양식품 동원산업 등이 제조한 1백21개 식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팔당호 수질 계속 악화

●…러브호텔과 음식점 공장 및 축산 등 수질오염원의 지속적 증가로 수도권지역 2천만명의 상수원인 팔당호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팔당호 수질이 86년 이후 10년만에 최고로 악화됐다고 1일 발표. 팔당 일대 숙박·음식점은 90년 2천2백50개에서 지난해 9월 7천30개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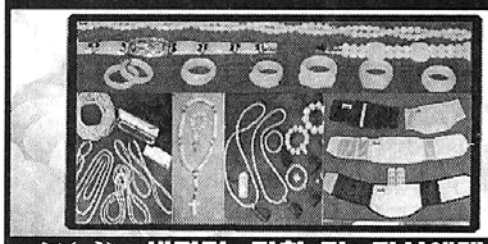
기능성 분유 '값만 올려'

●…분유회사들이 기능성 분유라는 이유를 내세워 기존분유보다 값을 두배 이상 올려받는 등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따르면, 파스퇴르유업은 '로히트1' 분유를 8천4백원 받았으나, 리소진 등의 성분을 첨가한 '뉴로히트1'을 출시하면서 1만7천4백원을 받고 있다.

우리 국악으로 지장경을 독송합니다!!
창작국악 교성곡
불밭에 피는 꽃은
불밭에 피는 꽃은 '지장경을'
우리 말로 옮긴 창작국악교성곡이다.
악업의 불꽃이 타오르는 지옥에서
중생구제를 위해 애쓰시는 지장보살
그 모습은 한떨기 청아한 연꽃이다.
처절한 참회와 지극한 기도,
그리고 환희의 카타르시스가 있는
이 곡은 국악과 양악의 적절한 만남
그리고 범패의 현대적 재창조로
찬불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글/반영규·곡·지휘/김희경
합창/수원포교당 가릉빈가합창단
중앙대 성악과 남성합창단
연주/중앙국악관현악단·피아노/함경아
특별출연/김성녀·김영임·성기훈
연정숙·한미경·덕신스님
지구레코드 CD발매(2장)/정가 17,000원/사찰에서 다량 주문시 할인 가능
전국의 유명 음악사 및 조계사 앞에서 판매 중/문의 ☎ (0331)255-2692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雲藏) 法師의 생필(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병풍 ——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事業실패 불행한사건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은분 난치병, 疾病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
♦ 神秘의 般若心經을 수지독송하면은 부처님의 神通한 영험이 있습니다.
전국 佛子가정에 1本씩 보시합니다.(단체주문은 사절)
※ 모사본에 속지 마세요.
●선착순 한정본(품) ●주문 신청방법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작가약력
· 중화민국 문화대학 국제서법학 전과정 수료
· 서울미술문화상 수상
· 중화민국 서법교육학회초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창작미술 대상수상
· 대한민국 89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대만 국립 고궁박물관 소장 물목(약70만점)조사논문 발표
· 고 미술서법학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예술원 원장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研究會
☎ (02)242-0331 · 242-0255 (야)216-0307

춘천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파장이 활발히다.
연옥 사용전 1.5㎷ 연옥사용후 3.0㎷로 체내전압 상승
알파파(α) 현상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몸집인 20여종의 뇌내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정혈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두통, 불면증, 심장병, 귀울림, 치매, 신장병,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핫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복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꼭껴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玉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희약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추후편[1]에 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프렌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가)

국제 국내 전화교환직
전화교환사가 정보기기운용기능사로

※ 근무조건 ※
하루4시간 교대근무, 오전·오후 선택. 독립된 공간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지않고 자유롭게 근무하며 특히 유아주부들을 위해 업체마다 탁아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초회화 가능한자는 국제 교환사로 전환할수 있다. 보너스800%, 급여가 약75~80만 주5일근무
■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당신도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근거리에서 안정과고 평생 직장을 원하시는 (남·여)
■ 취어버:한국통신,이동통신,대기업체,은행,백화점 외국인회사,관광호텔,학교, 종합병원,항공회사,언론기관등...
■ 시 험:정보기기운용에 대한 4과목 60점 합격(100%객관식)
전문화시대를 지향하는
한국통신직업교육원 ☎ (02)725-1009

공무원 보건직
좀더 쉽게 공부 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

응 시 | 만18~35세 이하(남,여) 학력제한없음
과 목 | 국어,국사,공중보건외 3과목(영,수업음)
시행처 | 각 교육청,도청,보건복지부
근무처 | 보건복지부, 중앙부서, 교육청, 산하기관 병원 및 의료원, 보건소, 구청
전 망
기존미혼여성 구별없이 정부에 여성고용 목표에 따라 합격용이, 안정되고 보장된 수입을 가져오는 최고인기 공무원 시험 · · ·
취업을 희망하는 분 지금 시작하세요
· 주부로서 공무원에 관심있는 분 · 간호사 및 간호보조사 · 증교인들
※요즘 과대 광고 또는 교재와 상호가 일치하지 않고 교재만 판매 하는 업체가 많으니 절대주의 하시길※
· 남군입대, 위생병을 원하시는 분 · 졸업을 앞둔 학생분들
한알의 밀알이 썩어 100배의 결실을, 080-010-4100
한국 보건직교육원 ☎ (02)299-5238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13

청세의 가난

*어느 승이 조산화상에게 물었다. "저, 청세는 외롭고 가난합니다. 스님께서 좀 베풀어 주십시오." 조산이 말했다. "이보시오, 청세." "예." "청원의 백가주를 석 잔이나 들이키고도 입술을 축이지 못했다 하시오."

*나 혜개가 말한다. "청세는 어쩌자고 시비를 걸었나. 조산의 안목이 건너오는 수작을 벌써 간파했다네. 그렇더라도 어디 말해보라. 대체 어디가 청세가 술을 마신 자리인가."

*송하여 가로되, "가난하기 범단과 같은데, 기세는 항우와 같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감히 부를 다투다니."

曹山和尙, 因僧問云, 淸稅孤貧, 乞師賑濟. 山云, 稅 梨. 稅應諾. 山曰, 靑原白家酒, 三盞喫了, 猶道未沾脣. 無門曰, 淸稅輪機, 是何心行. 曹山具眼, 深辨來機. 然雖如是, 且道, 那裏是稅 梨喫酒處. 頌曰, 貧似范丹, 氣如項羽. 活計雖無, 敢與鬪富.



청세는 자기 신세가 딱하고 고단하다 했다. 고(孤)는 형제도 부모도 없는 외로운 고아라는 말이고, 빈(貧)은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말이다. 가난은 불편하고 끔찍한 것이라, 누구나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 그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그 가난을 오히려 찬미한 사람들이 있었다. 옷 한벌, 밥그릇 하나, 바늘, 염주, 삭도 하나, 물 마실 때 벌레를 거를 도구 하나만을 안고 산 수도승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언제나 떠도는 무주(無住) 유랑의 삶. 가난을 통해 그들은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욕망을 줄이며, 분노와 슬픔을 자제하는 법을 배웠다.

노자(老子)에는 이런 말이 있다. "학문(學問)을 하게 되면 나날이 늘어갈 것이고, 도(道)를 행하게 되면 나날이 줄어들 것이다.(爲學日益, 爲道日損)"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가진게 너무 많아서이다. 어제의 기억, 욕망의 흔적, 그리고 내일의 우려와 기대가 현재의 나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것이 나를 옭죄고 있어 불편하기 그지없다. 선은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한 훈련이다. 그리하여 '송곳 하나 꽂을자리' 조차 없을 때 그때 대자유의 세계가 열린다고 가르친다.

지금 청세는 그 가난을 성취했노라고 자부한다. 그러면서 조산의 반응을 떠보고 있다. 시비를 거는 폼이 아무래도 위태롭다. 혜개는 이를 "청세는 어쩌자고 시비를 걸었나(輪機)"라고 우려한다. 수기(輪機)라는 말은 좀 까다롭다. 수(輪)는 '실어보내다,' '은근히 드러내다'라는 뜻이다. 기(機)란 기계(機械)에서 짐작하듯 격발이나 운동의 연쇄반응기제를 뜻한다. 자극과 반응, 질문과 응답, 도전과 응전이 이에 포함된다. 그래서 수기란 '은근슬쩍 반응을 떠 보다,' '시비를 걸어보다' 정도로 해석된다.

조산은 청세가 보내는 도전장을 받고 웃었다. 조산은 조용히 묻는다. "이보시게, 청세." 〈전등록〉이나 〈선문염송〉에선 조산이 청세를 부른 다음, 이리 가까이 오라는 주문까지 덧붙인다.) 이렇게 되받아친 조산의 공력을 청세가 감당하지 못했다. 그저 "예"라는 대답으로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진짜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않는다. 재벌 총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십년이 넘은 구두를 꿰매 신는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진짜 가난한 자도 가난을 떠벌리지 않는 법이다. 조주에게 누군가가 물었다. "아무것도 짊어지고 있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조주는 "그걸 내려놓게"라고 충고했다. "아니, 아무것도 짊어지고 있지 않다는데 뭘 내려 놓으라 하십니까." "그럼, 그냥 들고 있게."

조산은 청세가 실은 대단한 부자(?)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면박을 준다. "술을 못 마신다더니 알고보니 독한 술을 사발로 들이켰구랴." 청원 백가주는 지금의 복건성(福建省) 천주(泉州)에서 나는 유명한 술이다. 우리로 치면 문배주나 안동소주에 해당할 것이다. 화두의 눈은 바로 여기이다. 청세가 술을 마신 자리는 대체 어디인가. 다시 말하면 청세가 지고 다니는 재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강물속에서 목말라 죽다니…"

"곳간에 넘치는 보물 분별심이 못보는구나"

나는 처음 이 이야기를 대학시절 스즈끼의 〈선불교입문〉(Introduction to Zen Buddhism)에서 읽었다. 그가 따라간 해석의 갈래는 지금 짚어준 것과는 성큼 다르다.

앞에서는 '가난'을, 과거의 모든 흔적과 미래의 기투, 그리고 현재의 욕망까지 탈각한 절대의 '무아'로 읽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급스럽게(?) 읽지 않을 수도 있다.

가난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마음의 안녕과 열반의 고요와는 먼 사바세계의 운명. 청세는 그 질곡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조산에게 매달린다. 조산은 그러나 사바의 질펀한 고통이 자승자박이라는 것을 일깨운다.

곳간이 보물로 넘쳐나고 있는데, 너는 그것을 모른다. 너는 흡사 '쌀가마를 옆에 두고 굶어죽어 가는 사람'이나, '강물 속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과 같다. 태어나면서부터 덮인 무명(無明), 그로 인한 종종의 분별(分別)이 너의 본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 그 장애를 걷어내라. 그때 그대는 백가주 석잔에 거나하게 취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法數로 배우는 불교

〈23〉

오온(五蘊)



◇정영철 作 '생존'

존재의 거짓현상 다섯가지
"자기라는 것 실재하지 않는다"

모든 생명은 본능적으로 자기라는 존재가 실재한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육신과 기억하고 인식하는 마음을 자기 자신으로 삼고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는 생명들의 의지는 너무도 당연한 자연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가 자기자신에 대하여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기에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 들며 자기를 존속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누구든지에게 "당신은 실재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묻는 사람을 향해 "그렇게 묻는 당신은 없는가?"하며 되물을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나는 실재한다'라는 모든 생명들이 지닌 지극히 보편적인 관점에 대해서 놀랍게도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른바 부처님 말씀에 생명의 구조와 본질을 밝힌 오온설(五蘊說)이 그것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겠다.

불교에서는 우선 생명의 구조를 다섯가지가 화합하여 나타난 거짓 존재(假有)로 여긴다는데 큰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소위 생명들이 그렇게도 있다고 여기며 아끼고 보존하고 싶어하는 자기자신이라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다섯가지의 요인들이 서로 만나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지 실재는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그것을 좀더 부연해서 말하면 중생에게는 자아라고 할만한 것이 실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인 오온이 화합하여 나타난 인연성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온(蘊)이란 인도어 스칸다(skendha)를 번역한 말로 '무더기' '덩어리' '쌓임'이라는 말로도 쓰고 있다.

오온을 이루고 있는 것들 중에 먼저 색(色)은 생명들이 지니고 있는 육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본래 색이라는 말은 물질의 빛깔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오온설에서는 몸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색에는 네가지 요소가 있으니 이른바 지대(地大) 수대(水大) 화대(火大) 풍대(風大)로서 생명의 몸은 다름이 아니라 땅·물·불·바람 등 네가지가 화합된 존재인 것이다. 다음 오온 중의 나머지 수·상·행·식은 생명들이 쓰고 있는 마음 작용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곧 고통과 즐거움 그리고 무덤덤함을 느끼는 마음의 작용(受)과 바깥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想) 그리고 받아들인 것들에 대하여 의지를 일으키고 행동하려는 마음의 작용(行), 마지막으로 그렇게 일으킨 모든 마음의 작용들이 모인 의식(識)이 그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기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외부의 물질이 서로 만나서 이루어진 육체와 역시 바깥 대상들에 의해 만들어진 마음이 합해진 존재로써 진실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화합해서 존재하는 것은 참이 아닌 것이다. 이제 부처님께서 왜 그토록 실재한다고 믿고 있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근원적인 반문을 해 보라고 하셨는지가 이해 될 줄로 믿는다.

〈원각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어리석은 무명심으로 인하여 사대로 이루어진 몸과 바깥 대상을 인연으로 만들어진 마음에 자기가 있다고 착각한다"고 하였다.

〈반야심경〉의 오온개공(五蘊皆空)이라는 것도 오온은 허깨비, 거짓 현상이라는 뜻으로 깨달음에서 볼 때 '자기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다만 중생들의 잘못된 가치관 즉 무명으로 인해 자기가 있다고 여기고 몸과 마음에 대한 여러가지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온에 대한 그릇된 어리석음을 수행으로 깨뜨려 나는 실재한다는 환상과 착각으로부터 벗어나 '무아의 도리' '공의 도리'를 체득하고 일체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은 불자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21

불교와 수학

16

우주론

김 용 운



우주는 확산·수축 반복 에너지 집합
빅뱅전 겨자씨 크기에 삼라만상 내장

불교에 큰 영향을 준 고대인도 사상 '우파니샤드'는 우주 안의 삼라만상은 처음에는 겨자씨 크기의 '프라푸만'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프라푸만이 폭발하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조각으로 되고, 그 하나 하나가 삼라만상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본래부터 프라푸만의 조각에 내장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특별히 인간만이 신의 배려에 의해 생겼다고 믿지 않는다. 산천, 초목, 벌레, 짐승이 모두 똑같이 프라푸만에 내장되어 있던 지혜와 능력을 이어받고 있다.

본 난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교적 사고와 유대·기독교의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다름을 이야기 해왔다. 그 차이의 원점은 이미 천지창조에 있었던 것이다. 유대·기독교에서는 이 우주 속에 있는 삼라만상은 신(God)에 의해 만들어졌다. 신은 땅위의 먼지로 남자를 만들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하나로 만들었다. 동물은 신에 의해 인간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졌으며 지식을 높여 얼마든지 전지 전능의 신에 가까워져 갈 수 있다.

한편 현대 우주론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50억년 전에 일어난 'Big Bang'으로 일컬어지는 대폭발로 생겼다. 그때 전우주가 바늘의 끝에 올라올 정도의 작은 덩어리로 응축되어 있었다. 그것이 폭발하면 광속도로 확산해 간다. 처음 1초간에 지금이 60만 킬로미터의 구가 되고, 다음 2초, 3초도 같은 속력으로 팽창한다. 요즘의 과학 지식으로 관측하고 계산하면 끝이 지구로부터 약 150억 광년은 먼 곳에 있으며 계속 팽창하고 있다.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이 걸리는 거리이다. 전우주의 무게가 바늘의 끝에 걸린 정도의 크기이므로 엄청난 에너지가 뭉쳐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빅뱅의 반대 현상이 블랙홀이다. 빛이건 별이건 옆에 있는 것은 모두 빨아들이는 소용돌이와도 같은 것이다.

현대 과학은 어떤 시점에서 팽창은 역전하며 수축하여 다시 한 번 우주는 처음 빅뱅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 즉 바늘의 끝에 올라갈 정도의 크기가 되어 버린다고 한다. 빅뱅 그리고 블랙홀, 이것은 몇 번씩이나 되풀이하는 것일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 빅뱅의 순간에 앞으로의 우주의 운명, 형성 과정이 계획되어 있었는가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나 만일 오늘의 이 현실이 계획의 일부에 있었던 것이라면 엄청난 정보가 빅뱅의 순간에 마련되어 있었음에 틀림없다.

'우주 운행과 법칙(계획)'은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는 근본 문제이며 인류 문명이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도 모든 철학자가 계속 씨름해 온 문제다. 어쨌든 이 빅뱅의 발상은 프라푸만의 폭발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우주의 빅뱅, 확장, 블랙홀, 수축의 전개는 바늘 끝과 같은 작은 공간에 전 우주가 대응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우주의 크기는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주의 크기를 말하는 일조차 무의미해진다.

바꾸어 말하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프라푸만과 빅뱅 직전의 응축된 존재는 공통적으로 우주 삼라만상을 내장하고 있었으며 그간 우주는 확산과정에 있었다는 생각이다. 겨자씨 보다 작은 것이 지금의 전 우주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때 '오늘의 1m은 미래의 1m와 같을까?'라는 물음도 생긴다. 1m의 길이는 지구 자오선 상의 큰 원의 4000만 분의 1로 정해져 있다.

우주가 확산, 수축하는 과정에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동시에 같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항상 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두고 불교에서는 절대성의 부정, '진리는 어디에도 있다'(隨處作立處皆眞〈임제록〉)고 말하며 현대 과학은 상대성 원리로 설명한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정신 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 관 단 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산제 복용 : 기아·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염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 염불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 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 (美 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선관단식(禪觀斷食) 가 이 드 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 체 험 사 례 ●



"본인은 78세의 수의사인데,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사월초파일날 용님선원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감잎차와 미네랄이 풍부한 산야초효소 등을 섭취하면서 커피관장을 한 결과 몸속의 노폐물이 피부 밖으로 모두 분출되고, 숙변이 2회 대량배출되어 현재는 피부와 머리카락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어, 오늘은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퇴소를 합니다. 1997. 6. 1. 이 승호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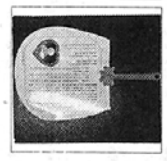
(경남 창원시 남양동 동성 APT 5동 1203호, Tel. 0551-62-4475)

수련장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 내 : (0593)34-1115~6, 012-598-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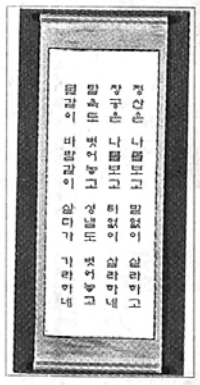
"불교달력 전문 생산 인쇄소에서 행사용 부채와 벽걸이 족자를 권해 드립니다."

부채
- 500개 이상 주문 하시면 사찰 이름, 주소 및 원하시는 문안을 넣어 드립니다.
- 2,000개 이상 주문시 사진이나 그림을 원하시는 대로 넣어 인쇄해 드리고 출장 촬영하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





족자
- 원단 : 청·백공단, 적색융단
- 크기 : 90cm × 30cm
- 인쇄 : 금박 및 적색잉크 (경면주사 약간 첨가)
- 내용 : 반야심경, 보왕삼매론, 마음을 다스리는 글 등 20여종



※ 주소 및 기념하시고 싶은 내용을 인쇄해 드립니다.

※ 연락주시면 견품 및 카다로그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강진정판사 : 서울시 중구 오장동 69-2
전화 (02)269-9755,275-9472 FAX (02)268-2391

포켓용 불자 독송집

불자님들께서 항상 지니면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편집·제작 하였습니다

■ 기본판 : 국반판 256p · 고급비닐커버 ▶ 정가 2,000원
■ 중보판 : 국반판 352p · 고급비닐커버 ▶ 정가 2,500원
※ 법보시 하실 사암 환영합니다

우리말 지장경
석 일 화 편저

● 크기/신국판 300페이지, 고급비닐커버
● 법보시가격/4,500원
● 부록/용어해설, 지장보살신앙영험록

※ 표지에 사찰명 뒷장에 법보시자, 법회안내 등을 넣어 드립니다

감로출판사 ☎(02)723-4306~7 FAX 738-8682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시방세계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불교성지순례 전문
(주) 혜초 여행사
안국동로터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3층
전화 : (02)733-3900

자원봉사자 연락주세요!

단체명	주소	연락처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서울 종로구	02)723-6258
생명나눔실천회	서울 관훈동	02)734-8050
자비의전화	서울 인사동	02)720-5057
승가원	서울 안암동	02)928-0750
새생명광명회	경남 진주시	0591)785-6611
양천구 경로식당	서울 신월동	02)698-9605
외국인 노동자마을	서울 견지동	02)720-3783
인덕원	서울 진관외동	02)385-8205
원심회	서울 견지동	02)720-4528
자비의집	서울 미아6동	02)945-4200
강로실장회	경남 진주시	0591)52-5577
대한불교장애인포교회	서울 견지동	02)738-5973
대성요양원	경북 안동시	0571)55-4485
성양원	경남 진주시	0591)44-2181
성우원	부산 연산동	051)759-9211
신혜정신요양원	전남 해남읍	0634)536-7644
연화복지하원	서울 석촌동	02)202-5831
열린정신요양원	부산 온천2동	051)555-8009
자혜정신요양원	부산 장전2동	051)582-1234
천마재활원	부산 양남동	051)247-4084
치자마을	경남 거제시	0558)32-1854
한인원요양원	경기 양평군	0338)72-4964
봉비니특수아동교실	경기 부천시	032)668-0073
추동재활원	서울 상일동	02)427-9733
명아학교 아나윰	대전 문화2동	042)585-0035
소찍새마을	강원 원주시	0371)762-3745
부루나특수아동교실	인천 가좌3동	032)583-1669
관음대비원	경기 과주군	0348)958-3043
보리수마을	강원 양양군	02)733-0640
부처님마을 자광원	경기 성남시	0342)759-5320
선희노인요양원	전남 해남읍	0634)33-9291
소양원	전남 화순군	062)222-6030
유란양로원	경남 울산시	0522)97-1930
정화양로원	부산 화명동	051)332-3996
청주광명의원	청주 서문동	0431)221-0836
통도사 자비원	경남 양산군	0523)83-3999
혜명양로원	서울 시흥2동	02)802-6765
화상양로원	대구 상동	053)766-4553
대각자비원	부산 초량동	051)465-8307
성라원	서울 성북동	02)743-4026
성지원	수원 조원동	0331)44-0730
자비정사	경기 화성군	0339)57-5788
제주양로원	제주 도평동	064)47-8337
나눔의집	경기 광주시	0347)63-9685
대전 경로자비복지원	대전 선화동	042)271-9341
호산마을	전남 화순군	0612)685-2381
목련의집	경기 포천군	0357)34-6554
경주대자원	경주 노서동	0561)772-3228
광명보육원	경기 양주군	0351)40-5161
대전자혜원	대전 소제동	042)672-8262
송암동산	경기 시흥시	0345)498-5326
혜명보육원	서울 시흥5동	02)802-0358
예천 연꽃마을	경북 예천군	0584)53-7714
자비영유아원	강원 강릉시	0391)42-3555
강릉시립복지원	강원 강릉시	0391)648-0272
원주시립복지원	강원 원주시	0371)47-1795
해남희망원	전남 해남읍	0634-536-3640



◇'97 미스코리아 선(善) 조혜영 미(美) 여혜전씨가 3일 소찍새마을을 방문하여 하루를 자원봉사했다. 독실한 불자인 이들은 부엌일, 유아방 청소, 생일파티, 아기목욕시키기 등의 봉사를 펼치며 원생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자원 — 봉사

"나누며 살다보니 사는게 즐겁다"

"자투리 시간을 이웃과 함께" 물질지원서 참여봉사 추세

기다리던 여름방학과 황금같은 휴가를 어떻게 보람되게 보낼까? 이 기간 평소에 마음내기 쉽지않았던 자원봉사로 무더위를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자투리시간을 이용하여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넉넉한 마음이 커지는만큼 시원스러움도 더해준다.

노인시설과 보훈병원 소찍새마을등에서 무료 간병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하정민(54)씨는 사는게 즐겁다는 말을 입에달고 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간병봉사단에 가입하여 간병봉사활동을 펼쳐온 그는 "매주 꼭 한번은 노인양로 시설을 찾아 말벗 세탁 청소 목욕시키기등을 하고 있지만 노인분들에게 보탬이 된다는 것이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이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이하 불자련)에서 보문야학을 지도하고 있는 고준자(56)씨는 전직교사였던 경력을 살려 주 3회 저녁시간을 이용해 한글 기초반을 가르치고 있다.

"야학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품어왔던 불경과 찬불가를 술술 읽었으면 한이 없겠다는 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선지 열심히 공부하지요."

고준자씨는 학생(?)들이 〈반야심경〉을 띄엄 띄엄 읽고 뿐지도 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봉사활동의 고단함이 눈녹듯 사라진다고 말한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사는 이웃들에게 전화를 통해 진실한 벗으로 다가가는 인생상담원. 자비의 전화에서 상담원으로 4년째 활동하고 있는 현정(자비의 전화 총무)씨는 "아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전화상담봉사는 무주상보시"라고 말한다.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 부부간의 갈등, 자녀문제등이 주된 상담내용이며 그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며 함께 슬퍼하고 기뻐한다.

최근 봉사활동이 물질지원에서 참기하여 함께하는 봉사로 바뀌면서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가 산업사회화되면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다 보람과 가치있는 삶을 가꾸려는 봉사활동을 선호하기때문.

온 나라를 비탄으로 몰고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그나마 우리사회의 아름다운 한줄기 빛이되었던 사람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었다. 조계종복지재단 불교자원봉사연합회 경불련등 불교복지단체의 활약은 단연 두드러졌고 구룡사 능인선원 연화사등 사찰의 보살님들은 음식제공에 나서 이들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경기도 북부지역 수해가 발생하자 수미의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 역시 자원봉사단체와 봉사자들이었다. 이렇듯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우리사회의 어두운 파사의 현장을 현정으로 이끄는 보살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모두들 처음부터 탁월한 능력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주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나누게 된 것이다. 연령층도 중고생들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은 30~40대의 주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최근 한 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조사대상자의 68.7%나 됐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은 21%, 앞선하는 곳을 알고 있는 사람은 23.3%, 하고싶은데도 몰라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24.5%에 이르고 있다.

교계에 자원봉사 참여교육과 봉사활동을 소개해주는 복지관 및 단체 시설은 2백여곳에 이른다.

영역과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노인복지, 아동및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부녀복지, 사회운동, 교육, 상담, 자연보호및 재해구조 등으로 나뉜다. 자원봉사는 형사동행과 보조 놀이지도 학습지도 컴퓨터지도 소식지제작이·미용봉사 김장담그기 식사보조 도배봉사 의료서비스 레크리에이션지도 노인부업지도 장례봉사 신행 및 고충상담 등 다양하다.

이들은 일정기간 복지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참여하는 형태이다. 그렇지만 꼭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심장병어린이 수술비 돕기 모금을 위한 권지쓰기, 장애인과 노래방가기, 화단 풀뽑기, 아동목욕, 물건정돈, 노인신변처리해주기, 심부름하기, 배변도와드리기, 함께 외출하기, 대화하기, 나무뿌리 흙으로 덮어주기등 능력별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다.

마음대로 봉사일을 골라 우리모두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단연 또하나의 삶의 기쁨을 준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금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는 것이 좋겠다.

봉사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다.

글=김원우 사진=고영배 기자











인터뷰

"이타행의 첫걸음 자원봉사"

김영민 〈아반코리아 대표〉

"자원봉사는 자기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최근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돼가고 있지만 아직도 돕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와 가치관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이지요."

아시아 15개국 자원봉사단체 아반(AVAN)의 한국대표인 김영민씨는 자원봉사가 봉사보다는 생활과 밀접한 활동으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원래 불교가 중생제도를 실천하는 종교이고, 그 만큼 이타행의 첫걸음이 자원봉사라고 생각한다"며 이런점에서 불교는 자원봉사교단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이것이 실현되면 그 발전상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자원봉사는 자기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자원활동은 멀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가정 학교등 주위부터 돌아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역인연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는 자원봉사가 더욱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너무 활동분야가 사회복지에 치우쳐 일반사람들에게 거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의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 사실상 정부가 관리하기 힘든 주요테마는 자원봉사라고 지적한 그는 동기부여를 통해 복지단체에 참가토록 유도하고 지속적으로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민씨는 청소년교화연합회 우리는 선우 간사로 활동하다 88년 일본에서 일본청년봉사협회 주최의 아시아 프론티어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1년간 이수했으며 96년 7월 〈자원봉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발간했다. 현재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이사로 활동하며 이웃사랑회와 청솔회를 조직하여 정자교육지원 농아학교 월2회 봉사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를 집필중이다.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심의품(心意品) ②

心無住息 심무주식
亦不知法 역불지법
迷於世事 미어세사
無有正智 무유정지

마음이 멈추어 쉬질 않고
또한 참 법을 알지 못하면
온갖 세상 일에 미혹해져서
바른 지혜란 있을 수 없게 된다

念無邊止 염무적지
不絶無邊 부절무변
福能遏惡 복능알악
覺者爲賢 각자위현

생각이 고요히 쉬질 않으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끝간데 없게된다
복이 능히 악을 막나니
이 이치 깨달은 이 현명하도다

佛說心法 불설심법
雖微非眞 수미비진
當覺逸意 당각일의
莫隨放心 막수방심

부처님께서 마음법 말씀하시길
비록 미묘하더라도 참이 아니라 하시니
마땅히 빗나가는 생각 알아채어서
흐트러지는 마음을 따르지 말라

오고 가길 끝이 없나니
생각에 삿된 것이 많으면
저절로 악을 불러들이게 된다

是意自造 시의자조
非父母爲 비부모위
可勉向正 가면향정
爲福勿廻 위복물회

내생각 스스로 지어내는 것
부모의 탓도 아니러니
바른 길로 부지런히 힘을 쓰면
지은 복은 없어지지 않는다

藏六如龜 장육여구
防意如城 방의여성
慧與魔戰 혜여마전
勝則無患 승측무환

육근 감추기를 거북같이 하고
마음 단속하길 성처럼 하라
지혜로 마구니와 싸워
이기면 아무런 근심이 없으리라

화향품(華香品) ①

孰能擇地 숙능택지
捨鑑取天 사감취천
誰說法句 수설법구
如擇善華 여택선화

누가 능히 살만한 땅을 가리되

생각에 삿된 것 많으면 惡 불러들이고
바른길에 힘쓰면 지은 복 그대로 남아

見法最安 견법최안
所願得成 소원득성
慧護微意 혜호미의
斷苦因緣 단고인연

부처님법 따르면 더없이 편안하고
원하는 일도 이루게 된다
지혜로운이 미묘한 생각 잘 지켜서
괴로운 인연법을 끊는다

有身不久 유신불구
皆當歸土 개당귀토
形壞神去 형괴신거
寄住何貪 기주하탐

이 몸이 있다하나 오래지 않아
모두들 흙으로 돌아가야 하네
형체는 사라지고 정신은 떠나나니
잠간 빌어사는데 무엇을 탐하랴

心豫造處 심예조처
往來無端 왕래무단
念多邪辟 염다사벽
自爲招惡 자위초악

마음이 즐겨 짓는 갖가지 일
지옥을 버리고 천계를 취할 것인가
누가 진리의 법구를 설하기를
좋은 꽃 가려 꺾듯이 하겠는가

學者擇地 학자택지
捨鑑取天 사감취천
善說法句 선설법구
能採德華 능채덕화

공부하는 이 좋은 땅을 가린다
지옥을 버리고 천계를 취한다
그는 진리의 법구를 법답게 설하기를
좋은 꽃 가려 꺾듯이 한다

知世譬喩 지세배유
幻法怨有 환법흘유
斷魔華敷 단마화부
不覩生死 불도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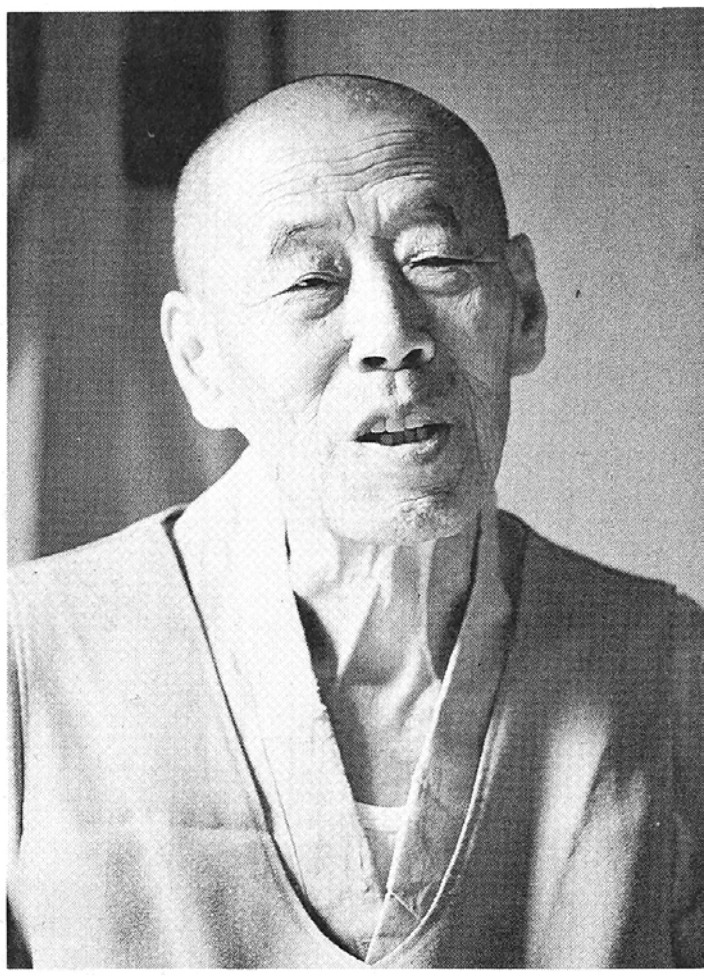
이 세상은 무너지기쉬운 흙덩이같고
허깨비 같은 법 잠깐 있는 줄 알아
마구니가 꽃뿌려 놓은 듯한 경계를 끊으면
그는 나고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龍眼

큰 스님 수행한담

"수미산만한 칠보 보시

범룡스님 〈동화사 비로암 한주〉



약력
- 14년 평남 맹산 生
- 35년 유점사에서 만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 41년 상원사에서 방한암선사를 계사로 보살계 수지
- 56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 80~81년 동화사 주지 역임
- 94~96년 봉암사 조실
- 現 동화사 비로암 주석

경전내용 요약하면 戒定慧로 귀결
계는 身口意로 짓는 악업 막고
정은 산란한 마음 머물게 하고
혜는 진리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4난득(四難得)'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바로 그 4난득 때문에 출가의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사람 몸받기 어려우니 인생난득(人生難得)이요, 남자로 태어나기 어려우니 장부난득(丈夫難得)이며, 출가사문이 되기 어려우니 출가난득(出家難得)이요, 불법을 얻기 어려우니 불법난득(佛法難得)이 4난득입니다. 이말을 들은 것은 초등학교 2학년때인가,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다니면 술을 끊을수 있다고 해서 나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한 객승이 탁발을 왔어요. 선친께서 "우리는 예수믿소. 탁발은 줄 수 없으니 이따 점심이나 자시러 오시오" 했습니다. 인연이 될려고 했는지 점심시간이 되자 스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때는 조계종이니 하는 종단이 없었고 그냥 불교였습니다. 같이 공양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선친이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도인은 누구인가" 스님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또 "불교가 뭐요?"라는 질문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불교에 4난득(四難得)이 있다는데 그 4난득이 뭐요?" 물었더니 여전히 대답이 없어요. 그래 더 묻지 않는데 잊어버릴쯤 해서 대답을 하더군요.

그 스님은 "사람 몸받기 어려우니 인생난득(人生難得)이요,남자로 태어나기 어려우니 장부난득(丈夫難得)이며,출가사문이 되기 어려으니 출가난득(出家難得)이요, 불법을 얻기 어려우니 불법난득(佛法難得)이 그것이요"면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인생난득 장부난득을 했으니 불법난득을 해 보고 싶었고 道라는게 한번 닦을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그 스님의 법문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싹이 트고 자라 결국 입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법보시란게 매우 중요합니다. 꼭 법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불자들은 남을 위해 진심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짧은 말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언제 어느때 인격변화를 일으킬 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삼천대천세계에서 가장 큰 산인 수미산만한 칠보들을 가지고 널리 보시하더라도 경전의 사구게(四句偈)를 받아 지녀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해 설해주는 공덕의 백천만억분의 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지요.

22살때 금강산 유점사로 가 출가를 했어요. 선친이 교회에 다니시는 바람에 알리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왔습니다. 얼마후 집에서 편지가 왔는데 유가에서는 '출필고 반필면(出必告 反必面 집을 드나들 때는 반드시 집안어른께 고함)'해야 하는법인데 말도 없이 그냥 떠났으니 일단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장을 않고 그냥 있으니 한참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인생사 일장춘몽(人生事 一場春夢)'이니 네 뜻대로 하라는 내용이었지요, 허허.

은사이신 만허(滿虛)스님은 성품이 참으로 원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꾸짖거나 남을 비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남이 싫어하는 소리를 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저 "깨끗이 하라"는게 전부였습니다. 말없는 가운데 스스로 공부하도록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다 오대산 상원사에 계시는 방한암선사 회상에 갔습니다. 당시 한암스님은 승려수련소를 설립하여 제방의 납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점사 건봉사 월정사 선방을 3대 선방으로 쳤는데 각기 해마다 10명씩 선발하여 승려수련소로 보냈습니다. 승려수련소에 2년간 머무르다 말 그대로 운수납자가 되어 전국의 이름난 선방은 죄다 찾아 다녔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평안도 강원도 등 하도 많은 곳을 다녀서 일일이 기억할 수도 없어요. 묘향산의 보현사에도 두 번이나 갔고 통도사 극락암, 해인사 백련암 등 공부가 되겠다 싶은 곳은 다 다닌 셈이지요. 물론 전국을 걸어 다녔습니다. 교통이 안 좋았던 까닭도 있었지만 탁발하면서 행선(行禪)하는 두타행이 다 수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남방의 지리산, 동방의 금강산, 서방의 구월산, 북방의 묘향산이라고 해서 이곳 4산에 방부를 튼 수좌라야 알아주었습니다. 이곳을 빼놓지 않고 다닌 사람은 과계사의 고송스님과 나 뿐일거예요.

그 중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이 수덕사·정혜사입니다. 거기서 선정삼매에 들었습니다. 한 3시간 가량 앉았던 걸로 기억됩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발우공양을 하는게 아니라 큰 함지에 김치 무 배추를 막 썰어 넣고 비벼서 퍼다 먹었습니다. 공양하느라고 다 모여서 먹는데 나 홀로 좌선에 들었지요. 처음 한시간과 공양하는 1시간, 그리고 또 한시간을 합쳐서 모두 3시간이 잠깐 사이에 흐르더군요. 남포불이 어른거리는 방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이 앉아 있었지요. 내가 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도반들이 저는지 죽었는지 확인한다고 가까이 와서는 눈을 들여다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눈이 좀 작습니까? 그러니 들여다보나 마나지, 허허허. 경행을 하느라고 하는 수 없이 가부좌를 풀고 일어났습니다. 대중들과 함께 생활하다보니 마음껏 앉아있기란 불가능했지요. 어쨌든 그때 비로소 선정삼매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제를 앞두고 1주일간 용맹정진을 하는데 장군죽비를 딱 한번 맞았습니다. 죽비를 한번도 맞지않은 스님도 있었는데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정진을 매섭게 하는 스님이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용맹정진하는 스님들이 많아야 불교가 잘 되는 거예요.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정보 사회 포교 수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현대프로덕션의 특별한 점

"최고급 토털 영상 시스템을 완벽히 갖추었습니다"

■최고 수준의 방송용 장비
카메라, 편집, 녹음, 중계 시설 등을 완비하여 불교계 영상 제작물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 점단 사회 환경에 걸맞도록 하였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발빠른 정보, 최고급 정보를 고객의 것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의 모든 노하우와 정보 수집, 분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대불교신문 컴퓨터 불교정보센터 부다피아를 통하여 부가 가치를 더해 드립니다.
인터네트 서비스는 물론 PC통신 사용자 누구에게나 개방된 부다피아의 정보력,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 제작물의 CD롬-타이틀화, PC통신을 통한 홍보도 가능합니다.

현대프로덕션에서 하는 일

• 사찰영상 제작물 기획·제작
-사찰의 역사, 배출한 인물, 고승 법문 등 사찰의 모든 것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제작

• 사찰·불교 단체 영상 홍보물
-삶의 현장, 신도의 일상으로 다가가야 할 21세기 포교, 수행 환경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홍보물 제작

• 사찰·불교 단체 행사 촬영
-단순 기록물이 아니라 작품 수준으로 끌어올린 행사 촬영·중계
-고승법회, 고승 법문 비디오 테이프 제작

• 법회·행사 기획·연출
-법회나 행사를 이벤트화하여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일상 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획·연출

• 어린이·청소년 포교,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

현대불교신문은

멀티미디어 시대의 포교, 수행에 걸맞는
종합불교언론사로서의 기능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영상사업단을 발족하였습니다.

사부대중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현대프로덕션 HYUNDAI PRODUCTION

주소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22-1 강남B/D 202호
전화
(대) 02-737-8881 / (직통) 02-305-9320
팩스
02-375-4143

큰 스님 수행한담

법보시 공덕만 못해요"

"절 앞마당까지 차타고 와서야 무슨 사유할 시간 있겠습니까 일주문 앞에서부터 바람소리 들으며 자기자신 되돌아 보며 올라오세요"



◇당대의 고승들과 함께 한 범룡스님(뒷쪽 왼쪽에서 5번째).

제대로 선정에 들면 몸에 무리가 없고 의식은 성성(惺惺)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두참구가 간절해야 합니다. 정말 간절하면 잠 올 사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화두를 참구한다고 했지 참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학원도 옛 현판에는 '조선불교중앙선리참구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참구(參究)라는 말이 사라져 가는게 안타깝습니다. 하나만을 잡고 공부하는것이 참구이지요. 화두외에는 다 망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서산대사는 화두는 '대신심·대분심·대의심'이라는 세 발이 달린 솥과 같아서 하나만 모자라도 그 솥은 넘어져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유십분(信有十分)하면 의유십분(疑有十分)하고 의유십분하면 오유십분(悟有十分)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크면 깨달음도 큰 법입니다. 그런데 요즘들 보면 믿는게 십분(十分)은 커녕 이, 삼분도 안 가지고 가요. 불자라면 첫 조건이 믿음입니다. 신심으로 공부해야지요. 유명한 스님들한테 화두만 얻어가면 무슨 소용있나요. 철저한 믿음속에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두를 참구할 때는 조급해지려는 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空으로 나아가는게 마음 공부인데 조급한 생각을 담아서야 되겠습니까.

마음은 항상 생주이멸(生住異滅)합니다.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보름부터 그믐까지 끝없이 생주이멸을 반복합니다. 육신은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을 거칩니다. 지구는 성주괴공(成住壞空)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한 줄 착각하지만 어느 것 하나 무상하지 않은 게 없어요.시시각각으로 변해서 돌아가니 고정된 실체란 게 없고 실체가 없으니 집착할 만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꿈을 꾸면 꼭 생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면 생시도 다 꿈에 지나지 않아요. 삼계(三界)가 대몽(大夢)임을 아는 사람은 道를 깨친 사람입니다. 지난 밤 꿈얘기를 하며 길가는 두 나그네의 모습도 꿈속의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법사 아니라도 불자는 이웃교화 해야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오히려 공부못해

요즈음은 사실 생활은 나아졌지만 옛날보다 공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기와집 아니면 초가집 두가지밖에 없었어요. 옷감도 광목은 없었어요. 삼베와 무명이 대부분이었고 모시는 최고급이었습니다. 모든게 단순했습니다. 먹는 것도 죽이나 밥이 대부분이고 떡은 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먹을게 도대체 몇가지나 됩니까? 셀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끄달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물독에 얼굴이 비치듯 진여가 드러납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빗방울이나 안개가 가리듯 견성성불은 어립없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먹지 않는다'는 백장청규로 유명한 중국의 백장스님때 총림이 생겼는데 총림에 저녁짓는 연기가 나서는 안된다고 해서 저녁은 굶었지요. 밥을 못먹어 고프다 못해 배가 아프면 기왓장을 데워서 배를 문질렀습니다. 그걸 '약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즈음은 세 끼니 다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간식까지 먹습니다. 값진 것을 찾아먹고 또 어지간한 것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동차도 온갖 좋은 것은 다 타고 다니고 말입니다. 배가 고프고 추워야 공부가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배가 부르고 따뜻해서 오히려 공부를 못해요. 배 부르고 등 따뜻하니 잡생각만 날수밖에요.

옛날에는 그저 걸망하나 메고 어느 선지식이 선지(禪旨)에 밝다, 어느 경전에 밝다는 말만 들리면 찾아가서 공부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많이 쇠퇴했어요. 보기도 많이 보고 듣기도 많이 듣지만 다 자기 것이 아니지요. 뱁새처럼 꾀만 남아서 다 안다고 지껄이지만 알음알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불자들도 생활속에서 근검절약이 몸에 배야 합니다. 의화를 좀 벌었다고 흥청망청 낭비하니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평소에 오계를 엄격히 지키고 화두를 집요하게 참구하는 생활을 하다보면 모든 면에서 에너지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줄어들 겁니다. 특별히 무거운 짐도 없으면서 절 안마당까지 차를 몰고 들어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비로암 뒷마당에 주차장을 만든 것도 부족해서 앞마당에 또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절 앞뒤로 주차장이 생겨 절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절 앞마당까지 차를 타고 들어와서야 무슨 사유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저 아래 일주문앞에서부터 걸어오면서 물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며 자기자신을 돌아보고 부처님을 참배하기전 마음을 정결히 해야 하는데…

북한이 이렇게 굶주리게 된 것도 다 자업자득입니다. 협동농장이니 뭐니해서 공동생산·분배를 하다보니 농사일에 애착이 없어요. 농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악착같은 마음이 없으니 갈수록 생산이 줄어들 수 밖에요. 게다가 지도자가 덕이 없으니 흉년이 계속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게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근 몇년간 〈화엄경〉을 법보시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가르침을 주셨던 한암스님을 수행의 귀감으로 삼자는 뜻이지요.

내가 27, 8세 되었을때 오대산 상원사 승려수련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각 교구에서 대표를 뽑아 승려수련소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나는 유점사 대표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금강경〉〈보조법어〉〈육조단경〉〈화엄경〉등을 공부했지요. 그때 한암스님이 화엄경에 토를 달아가면서 가르쳤습니다. 스님은 경을 읽으면 토가 술술 나왔어요. 당시 연세가 일흔다섯인데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책이 귀해서 돌려가면서 읽기도 힘들었어요. 정말 경전공부를 하고 싶어도 교재가 없어서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젊은 스님들은 책을 만져보기조차 힘든 시절이었지요.

수타사에 머무를 때 봉은사판이 나와서 구입했는데 토가 달리지 않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마침 한암스님이 수타사로 오셨습니다. 스님이 상원사에서 토를 달면서 화엄경을 강의하시던 모습이 생각나서 "스님, 상원사로 돌아가시면 그걸 좀 보내 주십시오."했더니 스님은 "그걸 누가 힘들게 운반해주나. 보고 싶으면 직접 와서 가져가게."하셨습니다. 그래 얼른 따라가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가져왔던 화엄경(토를 일일이 단 80권 1질)을 영인해 필요한 곳에 법보시했습니다. 한암스님이 후학들을 위해 정성들여 토를 달아놓은 귀중한 책으로 한암스님처럼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많은 경전을 보았지만 결국 요약하여 말하면 계정혜(戒定慧)로 귀결됩니다. 계는 그릇이요 정은 물이요 혜는 달로 비유되는 명경지수같은 본래 마음자리라고 하지요. 계는 신구의(身口意)로 짓게 될 악업을 방지하는 것이요, 정은 산란한 마음을 한 경계에 머물게 하는 것이며 혜는 진리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이루어졌을때 견성성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얻기 어렵다는 사람몸을 얻었으니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정진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만 알고 열심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정리=이윤호 기자

화두참선을 해보고 싶습니다

문 화두를 들고 참선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화두 드는 것을 권하지 않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문지현·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답 좌선이든 행선이든 입선이든 다 통틀어서 생활자체가 참선입니다. 생활자체가 천칠백 공안 아닌게 하나도 없고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저 다리가 많은 그리마가 서로 엉키지 않고 잘 가는데 이렇게 발이 많아도 엉키지 않고 잘도가는구나 하다가는 그만 걸리고 맙니다. 그렇듯이 잘 해나가다가도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거기에 걸리고 마는 겁니다.

질문하신 분을 수박에 비유해 봅시다.

작년에 거둔 수박씨를 올 봄에 심어서 다시 수박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수박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화두인가 뭔가를 받아서 그게 뭐냐고 참선을 한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의 내 씨를 찾는 겁니다. 작년 씨는 벌써 싹이 터서 올해의 수박으로 화했고 지금 잘 익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안에 수박씨가 있는줄을 모르고 자기가 나기 이전엘 가서 씨를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일까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발달을 했는데 거기에 얽매여서야 어디 이 시대의 불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 개개인에게 모든 재료가 다 충만해 있어서 누구라도 그 재료만으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는데 백지장 한장의 차이를 몰라서, 그만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좌선이든 참선이든 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게 알망스러워서 좌선을 한다하면 '내가 좌선을 한다'고 하거나 '시간 맞춰 해야지' '이쯤했으면 오늘은…' 한단 말입니다.

예를들어 좌선만이 공부고 좌선할 때만이 공부가 되는 것이라면 좌선할 때만 지구가 돌아가고 좌선 그치면 지구가 안 돌아가나요?

또 앉았을땐 공부가 되고 일어나면 그친다고 한다면 앉았다가 일어났으니 그게 도루묵이게요. 그러니 내가 앉는다, 선다 하는데 걸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여유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고 그러는 거지…

그렇다고 못한다도 없습니다. 서서하건, 누워서 하건 뛰면서 하건 어느 것 하나 참선 아닌게 하나도 없으니 전체가 다 참선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처님은 법당에만 계시다고 해야 맞게요?

부처님은 나 있는 곳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가 화장실에 가면 거기에 계시고 내가 잠 자리에 들면 또 거기에 계십니다.

아이들도 마음공부 배웠으면…

문 아이들에게도 마음도리를 알게하고 싶은데 딴청만 부리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는지요?

〈김혜주·서울 은평구 대조동〉

답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열심히 키우며 사는 것이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면서 이 도리를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일이지요. 살아 생전에 이 도리를 모른다면 나의 묵은 빚 조상의 묵은 빚을 갚을 수도 없고 아래로는 햇빛을 비춰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를 키울 때에 이파리나 가장구에만 관심을 기울여서 씻어주고 쓰다듬어 주고 야단스레 정성을 기울인다고 해도 뿌리를 외면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깥으로 기도하며 타력에서 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님들이 내면세계로, 정신세계로 들어가라고 설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항상 내면세계, 이 뿌리에다가 모든 걸 맡기고 일거일동이 다 내면세계의 내 마음의 주인이 하는 것이다라고 철석같이 믿어야 합니다. 이 '나'라고 여기는 이것은 관리인일뿐, 시자일 뿐이다. 그러니 뛰라면 뛰고 서라면 서는 그런 관리인으로서 '나'라는 것을 좀 빼놓아라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뭔 일이 잘 안되든지 병고가 생겼든지간에 '나'라는 걸 빼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는 것이니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거기서만이 병고를 없앨 수 있다! 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파리나 가장구에 연연하지 않고 뿌리에다 물을 주는 것, 거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나를 쑥 빼고 거기다 맡겨 놓고 부드러운 말로 따뜻하게 보듬어 줄 때 나와 아이는 감응하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주인공은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와 같아서 너니 나니가 없이 다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맡겨 놓고 내면으로 밝은 불을 켠다면 그냥 아이에게도 불이 켜지게 됩니다. 그걸 체험해 보는게 생활참선이지요.

그래서 이 도리를 알면 위로 묵은 빚을 갚고 아래로 밝은 햇살을 비춰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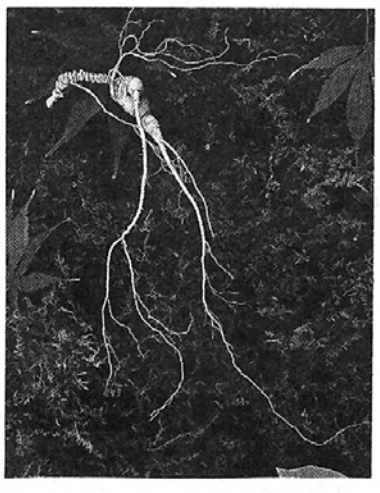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약용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아래에 불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장뇌란 삼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들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채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奉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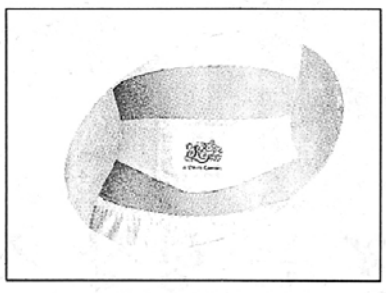
전화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3뇌)
■ 자연산삼 문의상담(삼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병원과 한약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얕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고은 불교대하소설



133

지옥순례 ③

"희한한 일입니다"
합두는 규환부지옥 노파를 본 순간
죽림정사 시절을 떠올렸다



규환지옥은 이름 그대로 부르짖고 소리지르는 지옥인가. 하지만 그 지옥의 사나운 형리는 어떤 부르짖음도 들어막고 있으므로 부르짖을 수 없는 것이다.

우선 뜨거운 구리즙이 입과 목구멍을 쉬지않고 들어와 식도로 내려가면서 타들어가고 있으므로 어떤 소리도 짐러낼 수 없다.

그렇다면 규환지옥은 소리없는 아우성, 소리없는 절규와 비명의 고통으로 이루어진 지옥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규환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주련(柱聯) 한 구절은 그런 뜻을 내비치기에 알맞는 것 같았다.

이곳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도다.

규환지옥에는 끓는 구리즙을 끝없이 삼켜야 하는 형벌 말고도 저쪽에서는 중생의 몸통이 가마 속에 내던져져 그 끓는 물에 삶아지는 고통, 물 한 방울 없이 뜨겁게 달구어진 냄비속에 넣어져 볶기는 고통을 받는 수없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곳에서도 부르짖을 수 없고 소리 지를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어쩌란 말인가, 어쩌란 말인가" 라고 파우보살이 마치 그런 고통을 받는 쪽을 대신하는 것처럼 읊조렸으나 파우보살의 입에서도 그것은 소리가 되어 나오지 않았다.

보살의 입도 그들과 똑같이 소리가 없는 고통을 본받고 있었던 것이다.

규환지옥의 후문 쪽 부지옥에는 술에 물을 타서 팔아 부자가 된 어느 노파가 거기에 떨어져 끓는 구리즙에 끓는 쇳물 섞은 것을 뚝뚝뚝뚝 삼키는 형벌을 받고 있었다.

그 노파를 보자마자 합두보살은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바로 그 노파의 어느 전생에는 부처님 당시의 죽림정사 시절의 사연을 그대로 담은 것이었다.

"희한한 일입니다" 라고 혼자 중얼거렸다. 물론 합두보살의 입밖으로 그 중얼거리는 소리는 나올 수 없었다.

왕사성 죽림정사 시절이었다.

어떤 장자(長者 - 富豪)가 있는데 이웃나라의 빼어난 미모의 처녀와 혼인한 뒤로 아이를 뱄다.

그런데 10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임신한 아이는 끝내 세상에 나올 수 없었다.

그런 몸으로 다시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잘 나올 수 있었다. 그 아이에 이어 아홉이나 더 낳기까지 세월이 흘러갔다.

그런데 맨 처음에 임신한 채 만삭이 되었는데도 나오지 못한 아이는 어떻게 되었는가. 어머니의 몸 안에서 녹아버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것이 아니었다. 그 아기는 제 아우들이 나올 때마다 자궁의 왼쪽과 오른쪽 옆으로 피해주면서 세상에 나올 수 없는 그 자신의 운명 그대로 언제까지나 어머니의 몸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바로 그 묵은 아이 때문에 배와 자궁의 통증이 점점 커져갔다. 장자는 아홉명의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행복의 다른 한편에서 그의 아내가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때문에 불행하였다.

그는 마가다국의 비싼 약을 지어오기도 하고 바라문계급의 명의를 모셔다가 아내를 진찰하거나 치료하기도 했지만 전혀 효험이 없었다.

아내는 어느날 몹시 격렬한 통증 끝에 죽음이 가까워 온 것을 예감하였다. 남편을 불렀다.

"제 몸 안에는 오래전에 낳지 못한 아이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죽거든 제 배를 갈라 그 아이를 꺼내어 양모를 두어 잘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뒤 아내는 며칠을 더 살아보다가 눈을 감았다.

장자는 슬픔에 잠길 사이도 없이 아내의 유언대로 집안에 대령하고 있던 늙은 의사를 시켜 아내 시신의 배를 갈라 어린 아이를 꺼낼 수 있었다.

그런 다음 아내의 시체를 화장하였다.

그곳 풍습으로는 화장이 가장 호화로운 장례이고 그 다음이 토장(土葬) 수장(水葬)이었다. 가장 낮은 신분의 장례는 풍장이었다.

어머니의 배를 갈라내고서야 태어난 아이는 아이라 할 수 없었다.

아이가 아니라 노인이었다. 그리고 머리도 백발이었고 허리도 구부정하였다.

그뿐 아니라 아이는 착착 말도 잘하였다. 이 세상을 실컷 살아본 사람의 능청스러움 그대로였다.

그 늙은 아이가 말하였다. 제 아우들과 집사와 노복들에게도 무엇하나 구애받을 것이 없는 듯이.

"그대들은 알아 두게나… 나는 과거의 생에서 나쁜 말로 수행자를 욕한 업보로 이렇게 60년동안이나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로 고통을 받았다네."

바로 그 늙은 아이한테 부처님 일행이 찾아왔다.

"너는 제바(提婆)비구가 아니더냐?"

늙은 아이가 허리를 구부린 채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두번째도 세번째도 부처님의 물음에 그의 대답은 똑같았다.

그때였다.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께 물었다.

"이 늙은 아이를 어떻게 아십니까, 스승이시여."

부처님은 모처럼 빙그레 웃으면서 그 아이의 내력을 알려주었다.

술에 물을 타서 팔아 부자가 된 노파는 끓는 구리즙을 삼키고 있었다

현겁(現劫) 전의 머나먼 옛날에 파라나국에 가섭불이 출현하실 때였단다. 그때 가섭불을 섬기는 비구들이 여름 한 철을 지내는데 그 비구들 가운데 아주 훌륭한 사람을 뽑아 유나(維那)로 추대하였다.

그 유나승은 온몸으로 수행하는 비구들을 열심으로 보살폈다. 그런데 수행 비구들은 도를 얻고 그 유나승은 도를 얻을 기회가 없었다.

그가 화를 냈다. "네놈들만 도를 얻었구나… 그러나 나는 네놈들을 항상 어두운 굴 안에 가둬 광명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아 보아라. 지금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같이 네놈들을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을 한 뒤 그 유나승은 자살하였다.

자살은 지옥에 떨어지는 업보였다. 바로 그 유나승이 지옥고통 끝에 사바세계의 여자 몸안에 태어나지 못하는 아이로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 늙은 아이가 부처님께 귀의해서 그 교단의 수행으로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연을 가지게 된 노파가 흑승지옥에서 규환지옥으로 이송되어 살고 있을 때가 바로 불이보살 일행의 순례때와 일치되었는지 모른다.

그들은 대규환(大叫喚)지옥으로 옮겨졌다. 그들 자신의 뜻이었는지 지옥계의 자동적인 이동장치 때문이었는지 그런 것도 잘 분간할 수 없었다.

지옥에서는 모든 것이 미혹의 덩어리였다.

대규환지옥도 이름 그대로 큰 부르짖음 큰 비명을 낼 수 없는 그런 밀봉의 지옥이기도 하다.

불에 실컷 달구어낸 날카로운 쇠바늘로 죄인은 입술과 혀가 꿰뚫려 타들어감으로 어떻게 울부짖을 수도 없었다.

그 뿐만 아니라 형리는 불에 달군 쇠집게로 죄인의 혀를 뽑아내는 형벌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렇게 혀를 뽑히고 나도 다음 혀가 바로 돋아나 그 죄인의 고통은 멈추어지는 일이 없었다.

심지어 마치 면도칼이나 식도로 혀를 자디잘게 썰어내는 고통도 있는데 그런 칼날에도 불길이 남아있어 썰어진 혀가 지직지직 타들어갔다. 이런 형벌은 거짓말을 많이 한 죄업 때문이었다.

합두보살이 불이보살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 말은 말이 되지 않았다. 아니, 어떤 말을 할 수 없거니와 어떤 말을 들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대규환지옥인지 모른다.

네 보살들까지도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 보살들의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니었다. 보살의 첫 걸음은 응당 중생 그 자체와의 일체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까지의 지옥 다섯군데는 지옥 중에서도 천상에 해당될 만큼 여섯번째의 무서운 지옥에 이르렀다.

오지 말라
오지 말라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이것이 초열지옥의 문에 내걸린 팻말의 두 마디였다.

이제 보살들은 그들의 말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말을 아주 삼가는 태도가 역력하였다. 그러므로 어쩌다 하게 되는 말은 길지 않고 짤막하였다.

무전보살이 마치 아이처럼 천진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입은 오랫동안 밀봉된 채 모든 말을 금지당한 뒤 그 말 한 마디만이 남아서 나오는 것처럼 굉! 소리라도 내기에 충분한 힘으로 열렸다.

"오지 말라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

다른 보살들은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 벌써 보살들의 몸도 불의 뜨거움에 익혀지고 있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의 능력으로 어느 만큼 그 불의 뜨거움을 식힐 만한 찬 기운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설산의 높은 곳에서 햇볕의 뜨거움 가운데 광개처졌다가 바위 밑의 그늘에 들어가면 얼마 있다가 무릎이 얼어붙는 것 같은 추위 때문에 고통을 받는 현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사바세계 설산의 낮과 밤 기온 차이는 35도 이상일 때도 있기 때문인데 이런 초열지옥에서는 그런 추위는 상상할 수도 없다.

아니 설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설산의 가장 무서운 추위야 바로 8열지옥에서 직각으로 나 있는 공간에 무한대로 펼쳐있는 8한(八寒)지옥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추위조차도 이 초열지옥에서는 뜨거운 불꽃에 말라버리는 증기같은 것으로 있다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불이보살은 그가 합두보살과 함께 돈황 일대의 사막 한복판에서 물데 갇데 없이 그 뜨거움 속에서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은 사실을 보살의 전생 기억 속에서 떠올렸다.

또한 그는 〈원각경〉의 한 마디도 떠올렸다. 그 경전은 '지옥천궁(地獄天宮)이란 지옥과 천궁이 모두 정토가 된다' 고 하였다.

"지금 나는 하나의 실상이 아니라 변상(變相)을 보고 있음인가!? 하나의 그림을 보고 있음인가!?"

그림 · 조향숙





헬기화물운송전문업체

헬리코리아 HELI KOREA CO LTD 는 항상 스님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귀의삼보하옵고,
정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부대중의 건강하신 나날과 하시는 불사가 부처님의 가피로 원만 회향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헬리코리아」는 최신 장비와 20년 이상의 베테랑조종사들이 사찰의 각종불사에 성실히 임하고자 만전의 준비로 스님들의 부르심을 기다립니다.
특히 고산지대 사찰불사에 「헬기」 사용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단축 · 시간절감 불필요한 인력 해소 등으로 불사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효과와 안전사고예방 등 더욱더 효율 있는 불사회향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사현장의 위치 및 「헬기」 이착륙장이 공사비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 불사를 계획하고 계신 스님께서는 문의 및 상담을 원하시면 출장 방문하여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헬기비용 산출, 운항허가 등 헬기 사용에 따른 제반 사항)

●●●● 헬 기 사 용 안 내 ●●●●

◈ 문화재 재 · 개보수 자재운반
◈ 사찰 증 · 신축시 필요한 각종 건축자재 및 건설장비 운송
◈ 동절기 생활용품 및 각종 불교 행사시 필요한 불교용품 운송
◈ 산불방지 · 환경보호 · 인명구조 및 긴급인력 수송

▶ 20여 년간 불교계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님들의 불사에 동참하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영업담당이사 이주영 합장
☎(02)565-8056(代) FAX565-8059

헬리코리아 HELI KOREA CO LTD
서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2-16 (성지하이츠Ⅰ 오피스텔 903호)
☎(02)565-8056(代) FAX 565-8059
대전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2-16
☎(042)633-8900 FAX (042)624-8400

종교벽 허물기 '화합잔치'

제1회 종교예술제 9월 23일 개막

음악·미술·영화·세미나등 통합

우리나라의 각 종교인들이 한 자리에 앉아 음악을 듣고 그림을 감상하고 영화를 관람한다면…. 또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서로 솔직한 토론을 나누는 자리를 가진다면….

종교다원사회인 우리나라 각 종교인간의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제1회 종교예술제가 열린다. 오는 9월 열리게 되는 종교예술제는 기존에 각각 열렸던 음악제 미술제 외에 영화제와 학술세미나 등이 추가된 종합예술행사로 치러진다.

9월 23일 저녁 7시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열리는 음악제 1부는 불교에서 국악인 김성녀 바리톤 이재웅씨가, 개신교에서 소프라노 박미혜 바리톤 고성현 가톨릭에서 최인배(테너) 김경희(소프라노)씨 등이 출연해 '찬미의 나라' '청산은 나를 보고' 등을 부른다. 2부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4종교로 구성된 연합합창단 300명이 나와 '그리운 금강산' '경복궁타령' '아리랑' 등을 연주한다.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되는 미술제는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 6개 종교 미술작가들의 회화 조각 서예 등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영화제는 9월 29일~10월 1일 호암아트홀에서 하루 두차례씩 열린다.

불교에서는 지난 89년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대상을 차지했던 배용균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과 베르톨루치(이탈리아)감독의 '리틀 붓다'를 상영한다. 개신교는 '바베트의 만찬' '빛은 내 가슴에', 가톨릭은 '한줌의 시간속에서' '희생'이 소개된다.

9월 2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되는 학술세미나는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기조강연으로 △남북한의 삶과 나눔의 정신 △통일과 이데올로기의 청산 △한국사회의 이질성과 치유대책 △도덕성 회복방안 등의 소주제로 진행된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92〉

산은 하늘 괴는 기둥

山作撐天珠 (산작탱천주) 산은 하늘 괴는 기둥이 되고
洞開出水門 (동개출수문) 동구는 물 흘리는 문으로 열렸다
簡中蕭寺在 (개중소사재) 이런 가운데 쓸쓸한 절 하나
淸聲遠穿雲 (청경원천운) 맑은 풍경소리 먼 구름을 뚫다

이 시도 월파대사의 시이다. '즉음산경(卽吟山景)'이라 제한 두 수 중의 한 수이다. 산의 경치를 즉석에서 읊는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별다른 수식이 있을 수 없다. 그저 산사가 있음을 알리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써 모든 표현을 다했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시인이기 이전에 스님으로서의 본 모습이다.

이 시는 상하의 공간을 맞물리면서 그 중앙에 절을 포진시킨 구도이다. 높은 산은 하늘을 떠받쳐 괴어 있고, 골의 물은 이 산의 닫힘을 여는 문의 구실을 한다. 하늘과 땅의 공간을 완전히 대립시키면서, 그 공간을 주택의 한 구조물로 보았으니, 우주를 하나의 집으로 보는 동양인의 사유를 교묘히 시화하였다 하겠다.

우주라는 한자를 '집 우' '집 주'라 하여 하나의 집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사유체계를 생각한다면, 이 시에서 산을 기둥으로, 물길 따라 뚫린 동구를 문이라 한 구상은 의미 있는 맞물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대우주를 축소한 이 조용한 공간에 한 점으로 위치한 절을 중앙에 배치하여 중심축으로 삼았으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신적으로 삶의 핵심만이 아니라, 자연물의 구조로도 항시 중심적 위치에 있음을 암시한다 하여 지나칠 것도 없다. 절이란 이렇듯 중심의 상징으로 위대한 것이로되 오히려 조용함이나 쓸쓸함으로 다가오니, 이 또한 조용함의 안식으로 포용함이 아닌가.

끝 구의 맑은 풍경은 다시 적막을 일깨우는 파적이다. 항시 고요로 잠재우는 한적이라면 삶을 동적 움직임으로 상징지워져야 할 진리의 쪽으로 갈 수는 없다. 이 맑은 풍경소리는 이 깨우침의 상징이다. 땅 위로만 울려퍼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구름에까지 닿는 것이다. 그저 닿고만 만 것이 아니라 뚫고 있다. 여기서 '멀다'의 한 글자, '뚫다'의 한 글자를 의미 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땅 위에서 이는 종소리가 하늘로 이어진다. 역시 상하의 공간을 수직으로 잇고 있다. 제목은 가볍게 우연히 읊다 하였지만, 이 시는 이렇듯 절이라는 한 점을 중심으로 하여 상하 공간의 대자연을 포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사의 시는 꾸밈이 없는 단순한 읊음 같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진리를 담고 있다. 대사의 서경적 시는 좁은 화폭에 이 대자연을 조용히 수용하고 있는 한 폭의 그림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범패도 고유코드분류

문화재硏 세분화작업 자료 영구보존 가능

전통불교음악인 범패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게 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동현)는 범패를 비롯 궁중음악 정악 민속악 탈춤 등 한국전통음악에 관한 제반 자료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통일화 세분화시켜 고유 코드번호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소리로만 구전되던 범패 등 대부분의 전통음악들이 자료로써 영구히 보존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주제별로 손쉽게 찾을 수 있어 음악계 등 관계분야에서의 활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만 3년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은 자체조사작업과 지정조사작업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서울대 음악대학 자료실 및 관련 음악단체 등에서 입수한 자료를 CD로 복제하고 장르별로 분류해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이번 코드화작업은 음악의 용도에 따라 크게 9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사용용도에 따라 세분화해 분류코드는 000-000-00과 같이 8개 단위로 번호를 부여했다. 불교의식에 쓰이는 모든 범패와 기악을 총정리해 민속악으로 대분류된 불교음악은 총류/경제(서울 경기도 범패)/ 영제(영남 범패)/완제(전라도 범패)/탁발음악으로 세분화됐다. 예를 들어 '영산재 시련 응호게'의 경우 코드번호는 '711-301-01'이다.

분류작업에 참여한 법현스님(동국대 강사·국악과)은 "이번 코드화작업으로 방대한 불교음악이 체계적으로 분류됐으나 현재 CD작업은 전체의 20%정도밖에 완료되지 못했다. 남은 80%를 CD화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향후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범패등 불교음악을 들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숙〉

불화집 낸 박정자씨

불화 27년 첫정리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불화란 그리고 싶다고 해서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기 싫다 해서 그려지지 않는것도 아니지요. 오로지 일념에서 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거룩한 힘, 신심에 의해 그려집니다. 또 부처님 모습을 원만하게 그려냈을 때의 희열은 어디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준보유자(인간문화재 후보) 박정자씨(59)가 불화인생 27년을 정리하는 첫 불화집을 펴 냈다. 이 불화집에는 박정자씨가 그동안 그려온 불화 1천5백여점 가운데 가려뽑은 65점이 실려 박씨 특유의 세필의 섬세함과 원만 자재한 얼굴 묘사를 감상할 수 있다. 작품집의 이름을 고민끝에 〈諸佛歡喜〉로 정했다는 박씨는 "부처님도 무척 기뻐하실 것"이라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박정자씨는 처음 낸 이 불화집을 스승 만봉스님(인간문화재)의 미수(88세)를 기념해 봉헌했다.

박정자씨가 불화와 인연맺은 것은 지난 71년. 동양화를 공부했던 그는 우연히 만봉스님의 불화전시회를 보고 충격에 가까운 감동을 받는다.

"만봉스님의 탱화를 보는 순간 화면을 꽉 채운 강렬한 색채와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에 포만감과 환희심이 느껴졌습니다. 저것이야말로 내가 평생을 바쳐할 일이라는 생각이 불같이 일어나더군요."

그길로 박씨는 만봉스님의 제자가 되어 남자도 견디기 어렵다는 시왕초 천왕초 여래초 수천장을 그려내는 10년간의 습화기간을 훌륭히 견뎌내고 연이은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85년 전승공예대전에서 금니로 그린 가사탱화로 특별상을, 86년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붓에 순금가루를 묻혀 그린 '금니부모은중경'으로 제11회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87년에는 제48호 단청장 후보로 지정되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요즘 박정자씨는 불화박물관 건립준비에 여념이 없다. 올 9월에는 서울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고향인 나주로 내려갈 예정이다. 나주시 다시면에 땅 2200평을 구입해 놓았다. 그곳에 건립할 불화박물관에는 소장 작품의 상설전시장과 함께 전통불화를 가르치는 불화학교도 마련할 예정이다. 〈숙〉



◇불화를 그리고 있는 박정자씨.

MBC 베스트극장 극본 최우수작

'전등사' 쓴 이한호 씨



"전등사의 나체 여인상은 너무도 인상깊었습니다. 설화 속 도편수의 집착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인연의 고리를 상상의 세계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빗나간 사랑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전등사 설화가 작품의 모티브이며 등장인물 홍목 효임 윤중의 삼각관계 설정이라든가 현대의 주인공이 설화를 들으며 과거로 돌아가는 상황 설정등 세부적인 내용은 이씨의 펜끝에서 새롭게 살아나온 이야기다. 〈전등사〉는 MBC 베스트극장 올 겨울특집으로 제작돼 방영된다. 〈연〉

"나체여인상 설화 창작동기"

제6회 MBC 베스트극장 극본 공모 최우수작 〈전등사〉의 작가 이한호씨(32)의 창작동기다. 주인공 '홍목'이 일본에서 전등사를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해 광해군 폭정시대의 겨울로 거슬러 올라가 '효임'이란 여인과의

문화재

중원미륵사지 명칭 '대원사지'라 부르자

중원 미륵사지는 대원사지(大院寺址)로 고쳐불러야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네스코 충북협회 주최로 27일 열린 '내 고장 문화유산의 현황과 과제' 주제 세미나에서 김영진교수(청주대)는 "미륵리사지 발굴결과 중원미륵사지 명칭은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교수에 따르면 문화재 연구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해 충북지역 문화재 명칭중 일관성이 없거나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고 문화재 안내문도 오류투성이라는 것이다.

"옥룡사지서 나온 인골 도선국사의 것 확실"

지난 3월 전남 광양 옥룡사지서 발굴된 인골이 도선국사의 유골이 확실하다는 주장이 공식 제기됐다. 순천대박물관 발굴조사단 최인선 책임연구원은 최근 문화사학지(6-7호 합본호)에 '옥룡사 도선의 부도전지와 석관' 논문을 발표하고 "옥룡사 석관 안의 인골은 석곽 주변의 유물과 인골상태, 당시 葬法 등으로 미루어 도선국사의 것이 학실하다"고 주장했다. 〈본지 119호 15면 참조〉

한편 전남도는 6월 24일 옥룡사지를 전남도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

문화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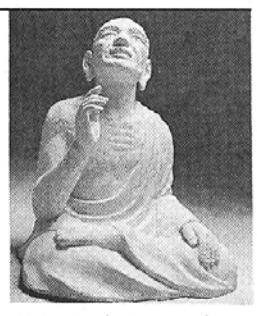
3개국어 문화재 엽서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청소년 수학여행단 및 관광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신라문화' 문화재 사진엽서를 제작 발매하고 있다.

특히 한국어판과 함께, 날로 급증하는 일본관광객과 서양인들에게 경주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일본어판과 영어판도 함께 펴냈다. (0561)771-1950

정경용 조각전 '호평'

조각가 정경용씨가 2~8일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첫번째 불교조각전을 가졌다. 제14회 불교미술대전에서 대상인 종정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정씨는 이번 조각전에서 나한, 관세음보살상 등 50여점의 작품을 전시해 호평을 받았다.



◇정경용作 '제14라한존지' 도조

제2회 불교출판문학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지음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

신국판 / 7,000원



김현준(金鉉埈)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월간 《법공양》 발행인

사찰의 초입(初入)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는 뜻, 범종 등의 사물(四物), 석등·탑·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 뿐 아니라, 대웅전·대적광전·극락전·미륵전·관음전·명부전·삼성각 등에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

* 불교신행연구원 《불교문화배움터》 동참 안내 *
· 매월 첫째 목요일 :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불상·불화·목공예 등)
· 매월 셋째 목요일 : 김현준 원장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강의
· 시간 : 오후 7시 / 장소 : 대학문화원 (장충동 앰버서더호텔 옆)
※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02) 587~6613

불교신행총서 II

관음신앙·관음기도법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

"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의 대자비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 관음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 관음의 구원능력,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 고난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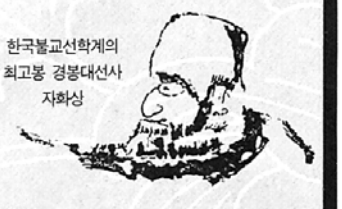
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 (관음신앙의 뿌리,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 제2장 자비관음의 여러가지 모습 (성관음·천수관음·십일면관음·육관음 등) / 제3장 관음관 (일념관법·경전 속의 관음관법 등) / 제4장 관음기도법 (관음색신관·관음염불·자광삼매기도법 등)

B6 / 160면 / 값 3,500원

경·봉·대·선·사·일·대·기

바보가 되거라

김현준 지음



한국불교선학계의 최고봉 경봉대선사 자화상

"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 일깨웠던 경봉대선사.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살아움직이게 하는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20면 / 값 4,300원

·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팩시밀리 : (02) 586~9078

"가람에 담긴 민족 정신사"

홍윤식교수 '한국의 가람'





신앙·사회변천 등 종합고찰
새로운 시각의 사원 연구서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인 홍윤식교수가 불교문화의 총체적 이해의 바탕이 될 한국사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연구서 〈한국의 가람〉(민족사)을 발간했다.

"각각의 불교문화에 대한 각론적 연구와 병행해 이들의 종합적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가람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홍교수는 이책에서 기존의 사원 연구 방식인 단순한 건축양식 위주의 미술사적인 고찰이 아닌 가람자체에 담긴 신앙적인 의미와 불교사상,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가람의 성격과 그 변천과정을 규명하고 있다.

이 책은 국내 16개 가람의 형성배경을 불교신앙적 측면,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비보(裨補)사상의 영향 등을 통해 고찰한다. 또 현존하는 사적기, 연기설화 등을 통해 그를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불교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홍교수는 "불교문화의 근원적 발생은 복잡한 중생계의 인연에 대응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라 말한다. 또 "지금 불교미술학계에서 현재의 문화이념에 대응하여 분류한 불교문학 불교미술 불교음악 불교건축 불교공예 등의 각론적 인식은 비록 그 분류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각 분야의 문화를 각기 따로 따로 이해하려는 데서 불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책에서 다룬 '사원을 통한 불교문화의 종합적 상관관계 연구'가 불교문화의 본질적 연구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홍교수는 따라서 이 책은 한국사원의 정체성을 규명하는데 기초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홍교수는 백제의 고찰인 미륵사와 금산사를 그 건립배경이 된 미륵사상과 역사적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신라 화엄신앙의 중심인 부석사를 통해서 당시의 화엄신앙과 정토종의 모습을 밝히고 있다. 건봉사는 서로 다른 신앙양식을 가지는 4지역으로 구분해 신라말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신앙의 변천을 보여준다.

송광사는 건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천과정을 고찰 분석하여 승보종찰로서의 성격을, 마곡사는 교화 수행의 2대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피면서 한국불교의 종합적 성격을 규명한다.

이밖에 직지사, 통도사, 갑사등 여러 사찰의 가람변천사, 사상적 배경, 사원구조가 반영하고 있는 사상사적 측면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책에는 가람의 형성배경과 그 현재적 의미, 가람의 성격과 형태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각 시대별 요구에 부응해 나타난 것이며 따라서 불교문화에 대한 점검은 사원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홍교수의 평소 지론이 그대로 담겨있다.

홍윤식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앞으로 가람의 모든 신앙의식과 생활양식까지 포함하는 연구를 거듭해 앞으로 '한국불교문화사론'으로 종합, 정리해 낼 계획이다.

중국선불교 답사기 '첫 권'

이은윤씨 '밥그릇이나 씻어라'





중국 행화도량 86곳 답사
선사들의 화두 쉽게풀이

묻는다: 전에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는가?
답한다: 예, 왔었습니다.
묻는다: 차나 마셔라! (다른 승려에게)전에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는가?
답한다: 아니오, 처음입니다.
묻는다: 차나 마셔라!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원주가 의아해 묻는다)
묻는다: 왜 와본 사람이나 처음왔다는 사람이나 다같이 차나 마시라고 하십니까?
답한다: 원주!
묻는다: 예.
답한다: 차나 마셔라!

일상적이면서 재치있고 함축적인 선문답으로 천하 선림을 제패한 조주종심선사(778~897)의 '끽다거(喫茶去)' 화두는 오늘날 우리 나라 선림에서도 많이 드는 화두가운데 하나다. 조주가 세 사람 모두에게 차나 마시라고 한 것은 자기자신으로 돌아가라는 내면자증(內面自證)의 요구다. 견성이니 성불이니 하는 공연한 망상에 빠져 관념적 유희를 일삼지 말고 조용히 내면을 성찰하라는 가르침이 '끽다거'에 담겨있다.

중앙일보 이은윤 종교전문기자가 파격적인 발상 전환을 통해 많은 수행자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었던 유명 선사들의 행화도량 86곳을 96년 3월부터 3개월간 현장답사했다. 답사후 선사들이 남긴 화두를 다양하고 재미있는 일화와 함께 흥미롭게 풀이한 책이 바로 〈밥그릇이나 씻어라〉(자작나무)다.

총 4권으로 기획된 '중국선불교답사기' 가운데 첫권인 이 책은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와 불법을 전한 최초의 선종사찰인 숭산 소림사를 비롯해 조주 백림선사, 진주 임제선사등 하북 하남성 내의 주요 선종사찰과 유적, 그와 관련된 거물 선사들을 다루고 있다.

이씨는 "21세기 이후를 이끌어갈 인류 보편사상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선사상에 비중을 두고, 구체적으로 답사한 사찰에 주석했던 선사들의 선사상이 응축되어 있는 중요 공안을 나름대로 재조명했다. 그리고 양자강 유역 내륙지방에 살고있는 민중들의 삶의 풍경도 간간히 담았다"고 말한다.

이 책에는 나체의 궁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태연히 목욕을 함으로써 측천무후를 감탄시킨 숭산혜안선사, 대나무에 벽돌조각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홀연히 깨달은 향엄지한선사, 목불을 태워 몸을 녹이고 불상에 올라가는 기행도 서슴지 않았던 단하천연선사 등과 관련된 일화와 그들이 남긴 화두들을 재미있게 해설했다.

이은윤씨는 또한 이 책에서 "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한 개방정책 이후 선종을 중심으로 한 중국불교의 부흥과 북원불사가 중국 경제성장보다 몇십배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선불교 관련서적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현장의 경험을 고스란히 전한다.

이은자 기자

법화경 1·2 | 이연숙 편저

화제의 책



"한문어투 탈피 한글세대 위해 번역"

누구나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 찾게 되는 책 한권이 있다. 〈법화경〉은 아마도 그런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책중의 하나일 것이다.

시공사가 펴낸 시공불교경전시리즈 〈법화경〉1·2권은 어려운 한문어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 새롭게 현대적인 감각의 한글로 쉽게 풀어썼다. 여기에 본문 내용과 관련된 변상도를 넣어서 그림을 통해서도 경전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또한 제1품 가르침을 위한 서광 제2품 방편과 참모습과 같이 〈법화경〉 28품 하나하나마다 한글제목을 붙였다. 〈법화경〉은 인도에 태동하고 있던 재가신도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대승불교 운동과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경전이다. 따라서 이 경의 사상과 내용은 다분히 대승불교적이다. 특히 이 경전의 주흐름은 '회삼귀일(會三歸一)'과 '영원불(永遠佛)' 사상이다. 앞부분에서는 일승(一乘)의 교리를 여러각도에서 조명하고 있으며, 뒷부분에서는 다른 경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공사 각 1만2천원〉

'佛名사전' 나왔다

1천4백여 거사·보살이름 의미 해설

불자들에게 있어 불명(佛名)은 자성(自性)을 일깨우는 도구다. 불자라면 누구나 생사의 끈을 끊고 불생불멸의 자유를 구하고자 심신을 갈고 닦아 5계를 신수봉행하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자성을 일깨우는 상징인 불명(佛名)을 수지해야 한다.

故 성훈스님이 생전에 세인들의 불심고양을 위해 기획해 7년만에 선을 보인 〈불명사전〉(우리출판사 刊)은 불자들에게 불명에 담긴 깊은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정진하도록 이끌어 준다.

이 책은 제1부 수계에서 수계식과 불명짓는법 등을 안내하고 제2부에서는 거사불명 700개를, 제3부에서는 보살불명 720개에 대해 그 뜻을 다양하고 자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보살불명인 반야심(般若心)은 불도의 근본이며, 일체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본연의 자성청정심을 깨닫는 지혜를 성취하라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

자신만을 위한 명성과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항상 깊이 새겨서 일체중생을 이익케 하는 지혜로써 중생의 근기에 맞는 방편으로 불도를 널리 펴라는 뜻의 지인(智仁)은 거사들의 불명으로 많이 쓰인다.

이책은 보살과 거사불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불명짓는법 등에 대해서까지 소개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불명사전〉이다.

'속고승전' 등 한글대장경 10권 '햇빛'

동국역경원이 한글대장경 10권을 새로 발간했다. 당나라 도선스님이 찬술한 고승전기 〈속고승전〉1, 2권을 비롯해 균여(均如)스님의 〈석화엄교분기원통초〉1, 〈계소재경 외〉, 〈삼법도론 외〉, 〈대승이취육바라밀경 외〉, 〈신화엄경론〉 1, 2, 〈대승아비달마잡집론〉, 〈대당대자은사삼장법사전 외〉 등이다.

이 가운데 〈석화엄교분기원통초〉는 현수 법장(賢首法藏)의 〈화엄경오교장〉에 의거해 서술된 책으로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화엄교분기원통초〉10권 끝에는 전진사 혁련정이 찬술한 〈균여전〉이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 이 〈균여전〉은 균여스님이 지은 향가 11수가 실려 있어 국문학적으로도 귀중한 연구자료다.

새로나온 책







▲선의 마음=참선을 통해 암을 이긴 저자 송지호씨가 초보자들도 쉽게 참선을 배우고 익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참선하는 법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수행의 필요성에서부터 실제 수행방법 교리적 근거 화두에 이르기까지 참선법을 분석하고 있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대흥기획 5천원〉

▲삶의 문턱에서=선화가로 유명한 성륜스님의 그림이 곳곳에 곁들여져 글의 멋을 더하는 이 책은 40여년동안 교직에 몸담아 온 불자 이강희씨가 예순이 되도록 살아온 인생역정을 담담한 필체로 표현한 에세이. '삶의 향기를 더하는 지혜' '서로 따스한 마음이 되어' '어머니라는 이름의 강' '만남이라는 인연 속에서' '모래밭에서 캐낸 진주들'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솔바람 6천원〉

▲한국 조각미의 발견=백제관음, 법주사 미륵대불, 부석사 무량수전 소조불 등의 불상을 통해 한국 조각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조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섯가지 테마를 통해 현대적인 감각과 민족적 특성이 드러난 동·서양 근대조각도 살피고 있다. 저자 조은정씨는 책을 통해 전통조각의 특성을 어떻게 현대에 되살릴 수 있을지도 고민한다. 〈대원사 7천5백원〉

▲쉽게 읽는 중국사상=공자를 시조로 2천년동안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던 유가의 사상이 전통과 혁신의 맞물림 속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담았다. 저자 안길환씨는 전통의 테두리를 뛰어 넘으려는 당대 사상가들의 치열한 학문세계를 그들의 삶과 더불어 단적으로 보여준다. 〈책만드는집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	윤청광	지식산업사
3	한국사찰음식	김연식	우리출판사
4	관음신앙 관음기도법	김현준	효 림
5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혜 원	가람기획
6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	유필화	한 언
7	암자로 가는 길	정찬주	좋은날
8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	류시화	열림원
9	천수다라니 공덕과 의미	전재성	이바지
10	그까짓 사좀 있으면 어때	학 림	여시아문

구입문의:(02)737-0695

성하출판 TEL:778-6826/7 FAX:778-6828



"생각없는 생각의 묘함으로서
끝없이 신령스런 불꽃을 숙고하여
존재의 근원에 돌아오면 둘이 아닌 원칙인
성품과 그 형상이 항상 머무르니, 이것이 참부처님이다."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 중에 -

"어디가 참부처님이 계시는 곳입니까?"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은 선(禪)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선이란 무엇인가? 이 책에선 '그지 지켜 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터득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대인에게 깨달음을 주는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의
진수를 경험해 보자!
그저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이미 당신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작은 부처, 깨달은 자로 존재할 것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김화영 옮김 / 값 6,500원

앙산 (仰山)
위산의 법제자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손가락 두 개를 자르고 출가했다.
마조선사의 많은 선 지식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담원을 만나 혜충국사의 원상법문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박에 깨쳐 그 자리에서 태워 버렸다.
스승 위산에게 머물면서 진리를 깨친 그는 중국의 소석가로
불릴 만큼 출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오가종(五家宗)의 하나인 위앙종의 문을 열었다.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송대 임제종의 원오스님이 운문계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평과 해설을 붙여 만든 〈벽암록〉은 종문제일서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 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서의 백미이다.



살아있는 선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장 옮김 / 값 9,000원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정수를 모아 42편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쇼 라즈니쉬는 특유의 페이소스 넘치는 우화를 곁들여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42장경
오쇼 라즈니쉬 지음 / 황광우·이경옥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CREATIVE WOO AD.

응용불교학 연구 '소극적'

불교학-타학문 연계 시대적 요구
전공영역확대…겉핥기式 경계해야

지난해 동국대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문·사회과학을 비교-연구하는 '응용불교학' 전공과정을 석·박사과정에 개설했지만 아직까지 불교와 타 학문간의 비교-연구는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국대 석·박사과정의 응용불교학 교과목은 △비교종교학 △불교사회학 △포교학 등 10여개. 지난해 7월부터 2학기동안 동국대에서 발표된 불교학 석·박사 논문 19편중 응용불교학 관련 논문은 3편, 그나마 복지만을 주제로 발표됐다.

불교학과 심리학, 철학, 과학 등 인문·사회과학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대중을 가르치는 학문이 응용불교학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의 불교학술지 〈태평양 세계〉(Pacific World)에 게재된 논문 '현대과학과 원시불교의 윤리' '컴퓨터공학을 이용한 불교미술 연구' 등이 응용불교학의 경향과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올해 상반기 10여개의 인문·사회과학 학술세미나에서 불교관련 주제가 다양하게 연구-발표된 것과 비교할 때 불교계 응용불교학 연구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박경준교수(동국대 불교학)는 "기성 불교학계는 자신의 전공 영역을 확장하고 개발하는 노력하고 종단에서도 타 학문을 연구하는 불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승무교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 역시 "불교학계의 응용불교학의 토양이 풍성하지 못하지만 21세기 다원주의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응용불교학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응용불교학은 경전의 깊이있는 이해와 인문·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의 균형있는 조화가 요구된다.

인문·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이 빈약한 불교학계는 타 학계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응용불교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를 임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게 학계의 지적이다.

한국에서 응용불교학이 보다 활성화될 때 '종토세' '사찰환경' '사찰경제' 등의 현안에 대해 불교계가 주체적으로 인문·사회과학적 견해를 적극 수용해 해답을 찾을 수 있게될 것이다.

오종욱 기자

동방학술상이란

일본 동방연구회(회장 나까무라 하지메)에서 주관해 시상하고 있는 동방학술상은 불교문화와 학술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인 학자에게 수상하는 국제적인 학술상이다. 동방연구회는 인도불교학을 주로 연구하는 순수학술단체.

불교학계 '권위인정' 김지견박사 올 수상

한국에서는 김지견박사(대한불교전통연구원장)가 '해동화엄(신라화엄)'의 주제 논문을 통해 해동불교의 주체적인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제10회 동방학술상을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학술상은 그동안 슈미트 하우젠교수(함부르크대) 판디야 교수(델리대학) 야마구지스이호교수(동경대) 등 세계적인 불교학자들에게 수여됐다.

학술단신

원전전문학림 여름강좌

가산불교문화원(원장 지관)이 원전전문학림 계절학기 강좌를 마련한다.

개설된 강좌는 지관스님의 '한문불전연구' 이지수교수(동국대) '벌어 어학연수' 이종철교수(정신문화연구원)의 '벌어 원전연구' 허일범교수(진각대)의 '티벳어 어학연수' 최봉수박사(동국대)의 '팔리어 어학·원전연구' 등. 교육기간은 7월 첫째주부터 10주간.

(02)765-9602

한국불교硏 학술 연수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정병조)이 제24회 한국불교硏 연수를 8월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직지사(경북)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는 〈계초심학인문〉〈염불요문〉 등 교양교육과 참선·기도정진 등이 실시된다. 연수 신청은 7월31일까지.

(02)3411-6167

해외 한국학전공자 연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원장 이영덕)이 한국학을 전공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7월14일부터 8월9일까지 '한국문화강좌'를 연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소개하고 한국학 연구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에서는 △한국문화 △유적답사 등을 교육하며, 중국 일본 몽골 미국 러시아 폴란드 등 16개국 35명이 참가한다.



◇지난 1, 2일 아산재단이 주최한 국제 학술회의에는 21세기 동양철학의 비전을 제시했다.

"禪사상 환경친화적 가치관"

심재룡교수 칼루파하나교수

"불교는 인간해방 가르침"

아산재단 국제학술대회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이사장 정주영)이 지난 1,2일 양일간 롯데호텔에서 동양사상과 서양사상의 조화를 통해 현대문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21세기의 도전, 동양윤리의 응답'의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칼루파하나교수(하와이대)는 '인간미를 지닌 도덕철학:21세기를 위한 초기불교사상'에서 "서양철학이 절대이성을 강조해 인간을 종속시킨 반면 불성(佛性)을 강조한 불교는 고정된 현상을 부정하고 변화와 연속성을 수용한 가르침으로 인간을 해방시켰다"고 말했다.

칼루파하나교수는 "만물의 이해와 포용을 바탕으로 한 불교의 도덕철학은 현대인의 이기주의를 다스릴 수 있는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심재룡교수(서울대 철학)는 '환경문제와 동양철학 사상'주제의 발표에서 "모든 존재는 상호 연기적이라는 선불교의 탁견은 환경보존과 개발이라는 환경의 난점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수는 "선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아(無我)와 도교의 무위(無爲)를 결합하고 그 위에 다시 도선의 풍수사상과 같은 심미적 자연관을 수용했기에 인간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 자연의 일부로써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뚜 웨이밍교수(하버드대) 위 잉스교수(프린스턴대) 등 해외석학 20여명은 동양윤리를 바탕으로 자연친화적 공동체적 가치관을 구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깨·사운동 실천력 부족"

연기영교수 日 동양철학회 초청강연서 지적



"조계종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토인비의 21세기 신문명론과 비교되는 한국불교계의 자성적 용단이었지만 이론과 실천은 부족하다".

연기영교수(동국대 법학)가 일본 동양철학회 초청 강연에서 '한국사회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과 현황'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연교수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시민운동단체와의 교류가 부족해 불교만의 사회운동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시민운동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한국에서 불교사회운동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교수는 "아시아의 참여불교운동(인도), 사회개혁운동(태국) 등과 같은 불교사회운동을 연구-수용해 한국적인 불교운동이론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욱〉

"돈황문학, 신라불교설화의 모태"

신상성교수 논문발표

〈삼국유사〉〈금오신화〉 등에 실린 불교설화는 '귀신'이 등장하고 '인과응보'의 주제를 다루는 등 전개 방식과 문체 등에서 돈황의 불교문학과 동일하다는주장이 나왔다.

신상성교수(용인대 국문학)의 '중국 돈황문학이 한국문학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한국 불교설화에 영향을 미친 돈황소설에는 〈환원기〉〈수신기〉〈계안록〉 등이 있다.

신교수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주인공이 귀신이 되어 악을 징벌한다는 '인과응보'의 주제를 다룬 〈환원기〉는 〈금오신화〉의 '이생규장전' 등과 유사하며, 〈수신기〉의 '초조목축'은 〈삼국유사〉의 '조신설화' 〈대장엄경〉의 '잡보장경' 등과 동일한 내용의 설화를 싣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신라향가, 고려가사, 조선시대의 소설 등에도 운문과 산문이 뒤섞인 돈황문학의 특이한 문체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

이 논문은 한국비교학회(회장 주종연)의 학회지에 게재된다.

나와 경전 14

아미타경



한 광 수
우석대 교수·생명자원학

불자라면 누구나 정토를 꿈꾸게 되고 더불어 그곳에 나기를 갈망하게 된다. 또한 인간이 갖는 어쩔 수 없는 유한성과 현실이 주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보다 나은 세계에 대한 바람과 영원한 생명성에 대한 동경심은 비례로 커지기만 한다.

불국정토는 중생이 사는 현세계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거나, 이 세계와는 다른 청정한 정토로 중생을 인도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극락세계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해 놓은 정토경전의 본의가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몇년전 정해사에 계신 강사스님과의 인연으로 〈아미타경〉을 보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때만 해도 자구 해석에 급급해 깊이있게 새기지를 못했다. 그런데 마침 지난 해에 전북불교대학에서 정토사상에 대한 강의가 있어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 등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이 〈아미타경〉에 대한 나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미타불이 계신 곳을 극락정토라 하는데 그곳은 아무 괴로움이 없이 즐거움만 있는 곳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것은 불교의 극락세계가 시공의 개념이기 보다는 번뇌가 다한 지극한 안락국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극락세계를 이상적으로 그려 놓은 것은 대승적 정토에 대한 표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중생을 청정하고 완전하게 하는 일인 것이다.

유심정토설에서는 만약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하면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 마음 청정함에 따라 불국토가 청정해진다고 하였다. 또 육조혜능의 단경에서는 "어리석은 이들은 스스로의 성품을 깨닫지 못해 동과 서를 원하지만 깨달으면 어디든지 다 정토이다"하였다.

물질문명의 그늘속에서 자기를 잃고 방황하며, 자신속에 내재돼 있는 불성(佛性)을 찾지 못하는 현대의 우리들에게 있어 극락정토에 대한 새로운 자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독송경전의 으뜸…극락정토 염원담아
번뇌다한 안락국 제시한 중생 귀의처

〈아미타경〉은 앞의 두 경과 함께 〈정토삼부경〉의 하나이면서 절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불설아미타경〉, 구나발타라가 번역한 〈소무량수경〉, 현장의 〈칭찬정토불섭수경〉이 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가지 번역본 중 구마라집 역본이 널리 유포되었다. 이 역본은 간결하고 유려한 문장으로 독송경전의 으뜸으로 꼽힌다.

경의 내용은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사리불과 많은 보살, 제자들에게 아미타불과 그 국토인 극락세계의 공덕장엄을 말씀하시고, 명호를 칭하여 현세의 제불호념과 내세의 정토왕생을 설하며, 최후에 육방제불이 석존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증명하셔서 경설을 들은 모두가 환희법열에 심취한다는 것이다.

정토경전의 성립배경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소승불교의 전래지역 보다는 대승불교의 흥기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지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대승불교에서는 많은 부처님의 세계와 정토가 있음을 설하고 있고, 그 중 가장 널리, 오래 신앙되고 있는 것이 아미타불신앙이다.

극락정토는 모든 번뇌를 여의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를 뛰어넘은 안락하고 지극히 평정한 곳이며, 모든 불보살들의 한량없는 공덕의 과보로 나타나는 곳이다. 따라서 극락정토에 가기위한 한 방편으로 우리는 항상 아미타불을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여 칭송 염불해야 한다. 스스로의 질적 변화를 통해서 마음의 청정함을 가꾸고, 이타의 보살행을 실천할 때 극락정토의 세계는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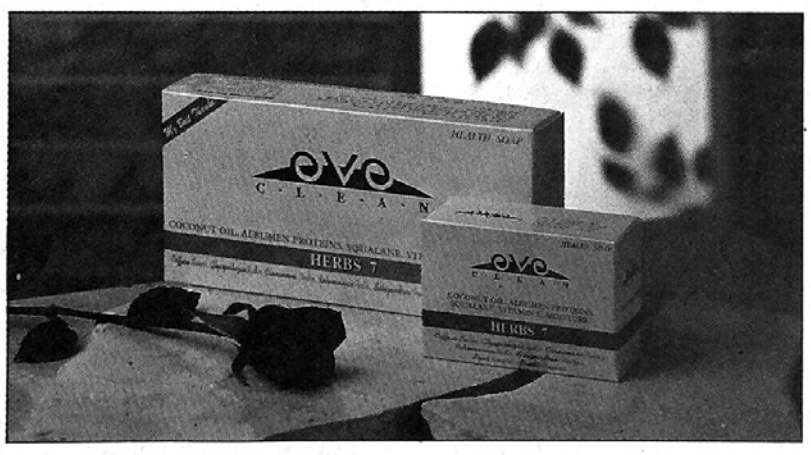
지난 겨울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공림사에서 탄성스님을 만나 법을 청했더니 "죽기전에 나무아미타불을 열번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던 말씀이 지금 내귀에 쟁쟁하게 울린다. 스님의 말씀은 아마도 우리 중생들이 죽는 순간까지 불법을 실천하고 의지하라는 깊은 가르침이 아닌가 싶다. 여러불자들도 이 말씀을 명심하고 항상 〈아미타경〉을 염송하며 불교공부에 더욱 매진하기를 바란다.

〈아미타경〉과 정토사상에 대한 연구서를 더 보기 위해서는 〈정토삼부경〉(청화 역)과 〈정토삼부경〉(법정 역), 〈정토교개론〉(보광 역) 등을 찾아 읽으면 된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自然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 한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n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낸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C·L·E·A·N

광고문의
현대불교 생활정보 광고 효과도 좋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광고주께서 기대하시는 광고효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상품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신생아작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전문시술원 張三洙
목·허리 디스크 **중풍 좌골 신경통** 오십견·비안
퇴행성·류마티스관절염
압구정역 (주)543-7306 (야)711-4370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흘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톡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철학의 길잡이
● 90분 녹음 166회(교재 4권) ●
이석영 선생님의 제자 단원 선생님 강의
대구 단원문화생. 단국철학
053)475-2746
012)753-2746 · 011)535-2746

사찰안내

부산근교 명당에 자리잡은 암자
▶ 부 지 : 935평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 매 가 : 1억 8천
연락처 015)5935-6738 051)558-0042

- 복터도량(대지 760평, 건평 120평) -
조용하며 맑은공기, 편리한 교통(서울 2시간 20분, 제천·영월 각20분), 신축-석탑등 2년 6개월, 크고 견고한 대웅전·산신각, 요사채·보일러시설 완비(객실10개), 현대식주방, 수세식 화장실, 대형석불, 석탑등 '최적의 기도처'
연락처 0373)374-7417

나대지
● 위치 : 경북 봉화
명당으로서 약수가 나오고 사찰부지로 적당합니다.
● 평수 : 550평
● 금액 : 상담후 결정
02)968-2680
011)286-2680

▶ 지 역 : 강원도 춘천부근
▶ 금 액 : 전세 8,000만원
※수려한 산세를 낀 기도도량임.
연락처 0361)262-8570

▶ 위 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대 지 : 100여평
- 법 당 : 20평 - 요사채 4개
▶ 보증금 : 500만원(권리금 2천5백만원, 월80만원)
▶ 버스종점에서 150m 정도, 교통편리, 경관수려
연락처 02)998-1027 015)8349-3813

포교당 안내

▶ 위 치 : 평택 대로변(서울에서 1시간이내, 서장·티미널·주요관공서와 10분이내)
▶ 평 수 : 57평
▶ 보증금 : 5,00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최고시설)
연락처 0333)665-6686 0522)87-2276

◈ 위치 : 마산시 석전1동(대로변 위치)
▶ 빌딩 3층 30평
▶ 전세 3천만원, 월세 15만원
▶ 경전 및 시설 천만원 장엄물은 모두 보시
▶ 장기 계약 가능
연락처 : 0551)99-2984

기타정보

⊙피아노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자 3개월 완성
(가요·팝송·가곡) Jazz·찬불가
강남피아노 02)554-1512

● 위 치 : 경기도 여주군
- 법당 10평, 요사채 30평(기름보일러)
- 양도가 2천5백
- 시설비 별도상담
- 교통편리(여주읍에서 10분거리, 서울에서 1시간거리)
※ 개인사정으로 급매함
연락처 0337)84-4420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사찰안내

10여년 정성으로 살아온
도량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 양도하고자 합니다.
포교와 노후를 위해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연락처 015-124-6334
02-511-4632(조법사)

◆ 사찰안내 ◆

대연동 **대덕사**

대 지 : 144평
법 당 : 20평
요사채 : 30평
※ 평 당 : 330만원
연락처 051)627-5252

간경화·완치보장
성인 백혈병·AIDS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 · 8118
H.P. : 011-559-8128 보은암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대화사) 법당 수미단 용각 복전함
• 용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아산(천관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貞玉 합장

不老化精 안내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천태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혹엄지(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장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밭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아무것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살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목부에 주름살이 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맑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如來健康院 合掌
☎ 053)655-2227

如來美術院
* 탱화 * 개금 * 불상
鄭慧峯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 92-1
사무실 0346)571-5537/575-5133
011-324-5133

大圓佛教美術院
金魚 李鍾春
* 불화 조성 전문
13, 15, 16회 불미전 입상
사무실 0346)571-6581(화실)
011-737-6581

2천만의 깨달음을 찾아 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 · · 현대불교

● 단위조직 안내 ●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1-9317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08-0961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사랑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있는 곳에 간절히 도움을 바라는 중생의 원(願)과,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부처님의 원(願)이 만나게 됩니다.
중생의 원과 여래의 원이 만나는 그곳에서 장엄한 생명공양의 불사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로심장회와 함께 여래의 大悲願心의 佛事에 동참합시다.

● 환자를 도와드립니다 ●
심장병 안면기형 안과(백내장 녹내장)

● 환 자 접 수 서 류 ●
- 종합병원 진단서(병명기재)
- 주민등록 등본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환자 증명사진 2매
- 의료보험카드 사본
- 추천서

사단법인 대한불교 감로심장회 사무국
주소 : 경남 진주시 계동 55번지 진주불교회관 (660-240)
전화 : (0591)747-0106 팩스 : (0591)747-0107
● 후원회비 송금안내 ●
▶ 국민은행 : 652-01-0484-878 ▶ 우체국 : 610774-0243181
▶ 지 로 : 7616413 ▶ 예금주 : 감로심장회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감로심장회의 사업에 동참하실 분은 아래의 접수처로 연락바랍니다.

책방 여시아문이 마련한 7월 불서 특선

여행·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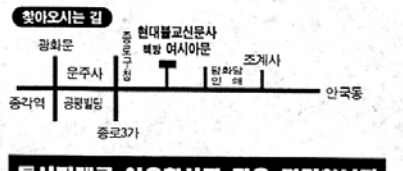
우리 비경 답사기 태일/ 김정배 외 41인/ 6,000원
우리 민속 현장 답사기 태일/ 민속학회/ 6,500원
태고 보우 국사 유적 답사기 불교영상/ 안덕암/ 8,000원
우리의 옛절 대원정사/ 김장호/ 7,500원
명산 답사기 솔/ 김창형/ 7,500원
살아있는 국토박물관 심지/ 안정애/ 6,000원
부끄러운 문화답사기 실천문학사/ 기록문학회/ 7,500원
한국의 성지(불교편·민족 종교편) 샘터/ 이선민/ 각 4,000원
북한산 가는 길 평화출판사/ 박창규/ 8,500원
북한산 역사 지리 범우사/ 김윤우/ 9,000원
북한의 문화 유적 순례 백산출판사/ 양태진/ 9,000원
암자로 가는 길 좋은날/ 정찬주/ 9,500원
우리 명산 답사기 1, 2 자유문학사/ 류인학/ 각 7,000원
문화 유산을 찾아서 매일경제신문사/ 이형권/ 7,800원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서서 학고재/ 최순우/ 10,000원
읽고 떠나는 국토 순례 집문당/ 임덕순/ 7,000원
명산 고찰 따라(상·하) 운주사/ 이고운/ 각 5,500원
명산 고찰 따라(속1, 속2) 운주사/ 이고운/ 각 5,000원
명찰 한국문원/ 이상용/ 15,000원
명찰 순례 1, 2, 3 대원사/ 최완수/ 각 8,500원
절로 가는 마음 1, 2 책만드는집/ 신영훈/ 7,000·9,000원
걸망여행 불지사/ 동학사승가대/ 3,500원
답사 여행의 길잡이1(전북) 돌베개/ 한국문화유산답사회/ 9,000원
〃 2(동해, 설악) 돌베개/ 한국문화유산답사회/ 9,000원
〃 3(충남) 돌베개/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2,000원
〃 4(전남) 돌베개/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2,000원
〃 5(지리산 자락) 돌베개/ 한국문화유산답사회/ 9,000원
〃 6(경기남부와 남한강) 돌베개/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0,000원
〃 7(팔공산 자락) 돌베개/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5,000원
〃 8(경기북부와 북한강) 돌베개/ 한국문화유산답사회/ 12,000원
관음 성지를 찾아서 우리출판사/ 정만/ 5,000원
미륵 성지를 찾아서 우리출판사/ 정만/ 5,000원
신왕오천축국전 동아출판사/ 고은/ 8,000원
그 곳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 유림/ 주경업/ 8,000원
히말라야 기행 초당/ 김홍성/ 7,500원
혼자 가는 실크로드 문창/ 도춘길/ 6,500원
인도와 네팔의 불교성지 불광/ 정각/ 15,000원
히말라야의 순례자 한길사/ 임현담/ 9,000원
서역 실크로드 탐사기 한·언/ 문명대/ 7,900원
중국 실크로드 기행 한·언/ 문명대/ 6,800원
우리 문화 이웃 문화 문학수첩/ 신영훈/ 13,000원
절을 찾아서 책세상/ 고은/ 5,000원
미얀마 72마일 논장/ 현오/ 4,300원
배낭여행 밀알/ 권지영/ 6,000원
티베트 방랑 한양출판/ 박매영/ 8,800원
인도불적답사기 불교시대사/ 윤호진/ 10,000원
히말라야 인도에 빠진 닥터 효형/ 임현담/ 6,000원
우리는 지금 인도로 간다 한서출판사/ 정창권/ 18,000원
세계를 간다(인도) 중앙일보사/ 10,000원
세계를 간다(중국) 중앙일보사/ 10,000원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열림원/ 류시화/ 7,800원

취미

다도 대원사/ 이기윤/ 3,500원
서예 대원사/ 선주선/ 3,500원
도예 대원사/ 임무근/ 3,500원
동양란 가꾸기 대원사/ 윤국병/ 3,500원
분재 대원사/ 김세원/ 3,500원
수석 대원사/ 장준근/ 3,500원
인테리어 디자인 대원사/ 조성열/ 3,500원
집 꾸미기 대원사/ 뿌리깊은나무/ 3,500원
거실 꾸미기 대원사/ 뿌리깊은나무/ 3,500원
색지 공예 대원사/ 금광복/ 3,500원
실내 원예 대원사/ 방광자/ 3,500원
애견 기르기 대원사/ 윤신근/ 3,500원
한국 춘란 가꾸기 대원사/ 강법선/ 3,500원
사진 입문 대원사/ 홍순태/ 3,500원
현대 무용 감상법 대원사/ 남성호/ 3,500원
오페라 감상법 대원사/ 조성진/ 3,500원
연극 감상법 대원사/ 정소영/ 3,500원
발레 감상법 대원사/ 서차영/ 3,500원
한국화 감상법 대원사/ 박용숙/ 3,500원
서양화 감상법 대원사/ 오광무/ 3,500원
추상화 감상법 대원사/ 유재길/ 3,500원
중국화 감상법 대원사/ 한정희/ 3,500원
행위 예술 감상법 대원사/ 윤진섭/ 3,500원
설치 미술 감상법 대원사/ 서성록/ 3,500원
옛그림 감상법 대원사/ 한정희/ 3,500원
근대 유화 감상법 대원사/ 윤범모/ 3,500원
전통차 사회교육연구원/ 강우석/ 6,500원
한국 차생활 총서 서울출판사/ 김승희/ 8,000원
한국 차문화 너럭바위/ 정영선/ 8,000원
우리차와 건강 성림/ 윤기석/ 6,000원
차문화 유적 답사기(상·중) 불교영상/ 김대성/ 각 7,000원
차요리 초롱/ 이연자/ 6,000원

건강

선체조108 가람기획/ 혜원/ 5,000원
식초 건강 요법 가람출판사/ 신재용/ 6,000원
버섯 건강 요법 가람출판사/ 김병각 외/ 8,000원
김정덕 할머니의 황토건강법 경향신문사/ 김정덕/ 7,000원
심장병 알면 이길 수 있다 고려원/ 이종구/ 10,000원
몸에 좋은 부처님 의학 고려원/ 가네마루소테스/ 5,000원
참선과 건강 호흡 고려원미디어/ 하기욱/ 6,000원
선의 정신의학 한강수/ 김종해/ 6,500원
현대인의 정신건강 한강수/ 이동식/ 4,000원
홍문화 박사의 건강장수법 한강수/ 홍문화/ 5,000원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 100 한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6,000원
불교와 의학 홍법원/ 박경훈/ 6,000원
선과 건강 요법 홍법원/ 서경보/ 3,500원
사상체질 건강법 태웅출판사/ 설영상/ 8,000원
수맥을 바로 알면 건강이 보인다 태일/공문룡/ 6,000원
음양 감식 조절법 평천문화사/ 이상문/ 8,000원
풀이 만병을 이긴다 하나로/ 권혁세/ 13,500원
생활 속의 다이어트 하남출판사/ 김용/ 6,500원
사람을 살리는 단식 정신세계사/ 장두석/ 6,500원
사람을 살리는 생채식 정신세계사/ 장두석/ 10,000원
자연치유 정신세계사/ 앤드류 와일/ 12,000원
병든 몸은 이렇게 다스려라 초롱/ 백은선사/ 4,500원
건강요법 태웅출판사/ 고오다 미츠오/ 8,000원
불교건강법 태웅출판사/ 아사쿠라 고타로/ 6,000원
생활 참선 건강법 문창/ 박희선/ 7,000원
쑥뜸 치료법 서울문화사/ 김용태/ 6,800원
쪼개본 건강 상식 대원미디어/ 리류하/ 6,000원
생약과 건강 대흥기획/ 한영태/ 6,000원
차와 건강 등지/ 유태종/ 3,500원
그까짓 살좀 있으면 어때 여시아문/ 학림/ 5,000원
성훈따주기 우리출판사/ 고성훈/ 3,000원
완치, 당뇨일기 우리출판사/ 영암 스님/ 4,000원
호흡으로 쉽게 살빼는 비결 우리출판사/ 김종성/ 4,300원
현대인을 위한 선단식 운주사/ 여도권/ 4,000원
마사지 테크닉 민족사/ 루신다리델 외/ 7,500원
한국 사찰 음식 우리출판사/ 김연식/ 12,000원
요가 여래/ 사토 노리미츠/ 4,000원
요가 민족사/ 쉬바난다요가센터/ 7,500원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 시공사/ 정창영 외/ 8,000원
현대인을 위한 요가 서광/ 장우인/ 7,500원
약초의 활용과 가정 한방 가림/ 이인성/ 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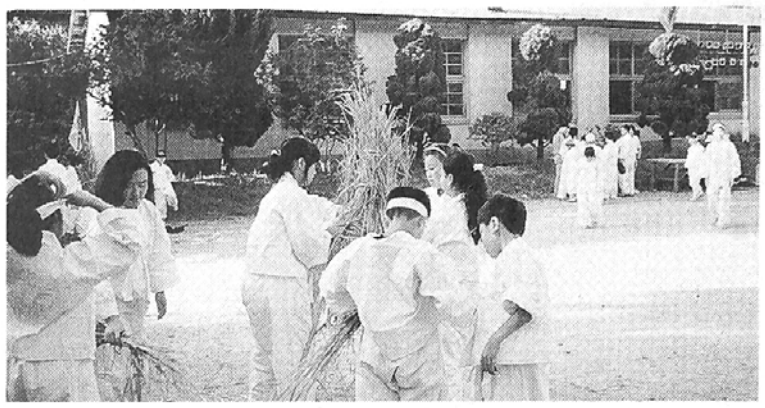
찾아오시는 길


통신판매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737-0695, 732-1521
팩스 : (02)737-0696

여름불교학교 테마 2제



◇거친 물살을 헤쳐가는 동안 협동심과 인내력·잠재된 불성을 발견하게 된다.



◇폐교를 인수해 열리는 분황사 새벽문화학교의 '숲속창조학교'는 수련생활과 함께 자연을 배우고 역사의식을 키울 수 있어 주목된다.

모험 즐기며 심신수련

국토사랑 대탐험

급류타기·동굴탐사 담력 길러
108배·참선통해 불심함양도

'가자, 부처님과 함께 모험의 세계로' 금빛물살 가르며 만끽하는 짜릿한 스릴, 태초의 암흑지대에서 맛보는 신비함, '불성'의 감지. 찌는듯한 더위를 넉다운(Nuck Down)시킬만한 모험의 세계가 펼쳐진다.

현대불교신문사가 7월21일부터 8월6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3차에 걸쳐 '부처님과 함께하는 국토사랑 대탐험'을 개최한다. '국토사랑 대탐험'은 108배, 래프팅(급류타기), 원시동굴탐사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심신을 길러주고 우리 국토의 빼어남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는 탐험전문 캠프다. 탐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전문강습기관인 한국탐험학교(교장 심상돈)의 전문 프로그램과 국가대표급 강사들에 의해 진행된다.

'국토사랑 대탐험'에서는 래프팅(급류타기), 트레킹, 미공개 원시동굴 탐험이 단연 압권. 래프팅은 강원도 정선 동강에서 10명이 한조로 고무보트에 의지한 채 거친 물살과 바위폭포 등 온갖 장애를 헤쳐가는 레포츠로, 모험과 도전이 가득하다. 물살의 흐름과 속도, 방향감각을 익혀가는 동안 협동심과 인내력을 자연스럽게 배운다. 랜턴 하나로 칠흑같은 월정사-상원사 간의 오솔길을 완주하는 프로그램 또한 청소년들에게 담력을 키우고, 행선(行禪)의 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동굴탐험은 영월일대 인적이 닿지 않은 미지의 동굴을 찾아 동굴의 종류와 형성과정, 생태의 특성등을 탐사하며 원시세계를 체험한다. 동굴탐험에서는 또 빛과 어둠을 이용해 '절대고독'의 시간을 경험토록 하는, 동시에 관계의 소중함을 체득하게 한다. 그 밖에도 야영훈련, 108배, 참선교실, 캠프파이어 등 흥미진지한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 ◆일 시: 7월21일~8월6일(3차)
- ◆장 소: 월정사 상원사 적멸보궁 정선 영월 미탄 천연동굴 용평
- ◆참가비: 13만원(숙식 교통 강습 티셔츠 보험료 등 기타 일체 포함) ※현대불교신문 구독자는 11만원
- ◆접 수: 현대불교신문사·한국탐험학교(02)738-0997

테마가 있는 곳에 젊음이 있다. '심심하면 싫다'는 것이 요즘 청소년들의 취향. 그들의 구미를 당기는 이색 여름불교학교가 있다.

현대불교신문사의 '국토사랑 대탐험'과 분황사를 비롯한 사찰의 '숲속학교'. 이들 여름불교학교는 각각 '탐험'과 '자연 속 전통문화체험'이라는 뚜렷한 테마로 펼쳐진다. 또 전문 진행팀들에 의해 운영되는게 특징. 뜨거운 태양아래서 탐험을 즐기고, 자연과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산사의 숲으로 떠나보자. 〈편집자 주〉

전통문화로 감성계발

사찰숲속학교

벼집짓고 탈만들며 민속체험
진흙밟기·찬불가로 정서순화

올해 사찰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여름불교학교는 '숲속학교'라는 이색테마를 갖고 개최되는 것이 특징. '숲속학교'는 놀이문화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탈피, 자연 속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분황사 분황사가 폐교를 3년간 임대해 여는 새벽문화학교의 '숲속창조학교'. 전통문화체험을 주된 내용으로 한 문화교실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색적이다. 불교문화의 중심지인 경주에서 벼집짓기, 새끼꼬기, 탈만들기, 솟대세우기, 대동놀이, 전통혼례놀이와 감자를 구워먹으면서 자연과 역사를 호흡할 수 있다. '숲속창조학교'는 초·중등학생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8월2일부터 8월말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8차에 걸쳐 열린다. 참가비는 6만원이며, 현대불교신문이 후원한다. (0561)42-9922

석왕사 '자연과 우리는 하나'라는 슬로건을 내건 석왕사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고, 그 속에서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7세~13세 학생을 대상으로 7월18일부터 20일까지 충주 자혜방생원에서 열린다. (032)663-7776

선암사 매주 일요일 열리며 무료다. 명상교실, 진흙밟기, 주말농장체험, 연극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개금사회복지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051)893-5034

선덕사 부모님의 은혜와 환경의 소중함의 일깨우는 수행학교. '열린마음 향기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21일부터 23일까지 선덕사에서 열린다. 발우공양 배우기, 1알에 1배씩 부모님 생각하며 108염주 만들기, 환경배움마당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접수는 10일까지. (062)264-8024

봉선사 유치부~초등부 학생 3백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24회 봉선사 여름숲속불교학교는 광릉의 맑은 공기 속에서 자연을 호흡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가비는 3만원이며, 선착순 마감. (0346)68-1951

만화 백유경 百喩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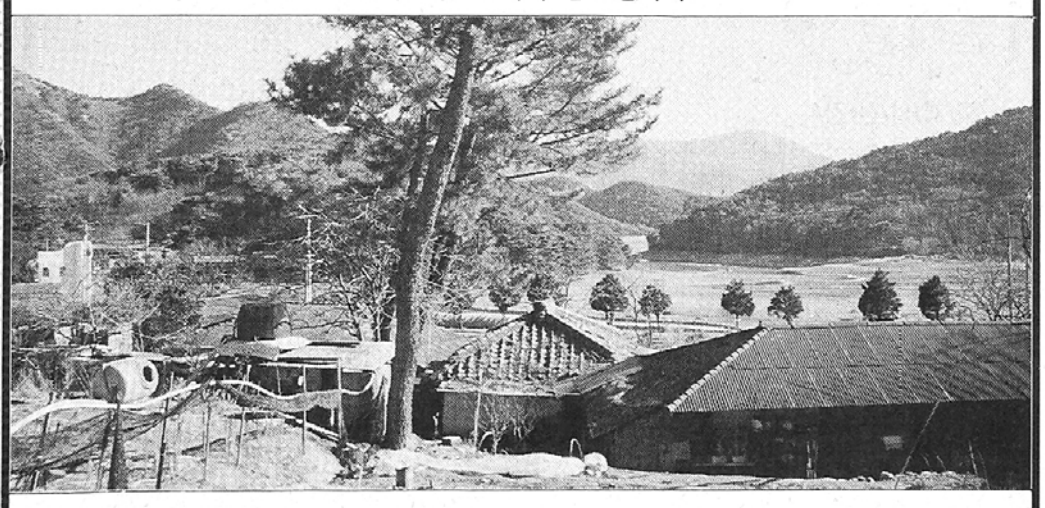
이향원



사찰·수련원·휴양시설·노인복지회관 부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오륜수원지 인접

동래관광호텔에서 단 15분거리



소 재 지 ● 부산시 금정구 ● 면 적 : 1,352평 ● 건 물 : 4동 (법당, 요사채, 식당으로 사용)

불사에 원력을 세우신 스님, 불자님들께서 직접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 상담문의 : (051)516-9997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卍 육신통(육경신)도통·정진법회 卍

무위진인 육신통 대용맹정진에 입문하시여 대도인의 경지에서 도인·선사·신선의 지도자가 되시고 이 기도는 주인공과 장열한 氣를 찾아서 심신·정신·육신의 번뇌마장의 고통을 근본심지에 맞게 성취하는 대용맹 정진기도로써, 이 기도는 외도나 사도나 잡신수행도 아니고 이 정진수행으로 敬天動地 聖人出 亦江三日眞人出 六神道通奇人出 神出鬼沒正人出 參禪道通禪(仙)人出 소림사에서 직송하는 도장경중의 육경신 주문과 기문둔갑 심기선법·옴마니반메홈·참선 10장생법 강의·풍수지리등 강의.



입제일 : 97년 7월 16일 음 6.12. 亥時. 토요일
해제일 : 97년 7월 17일 음 6.13. 亥時. 일요일
회 비 : 5만원. (1박 2일 침식제공)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구모자원고개 하차)
전 화 : (휴대폰)017-236-3110
02-821-6622 (야)02-923-3110
육신통(육경신)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종단소식

조계종

은해사 교구 정기종회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6월 28일 보화루에서 교구정기종회를 개최하고 성보박물관에 말사 성보 20점을 전시키로 결의했다.

또 이날 종회에서는 2/4분기 예산 및 결산보고, 거조암 영산전 등 말사불사현황보고, 성보도난방지기 설치, 영천 청송 하양포교당의 어린이집, 유치원 건립 및 복지타운 조성의 건 등이 논의됐다.

직지사 말사주지 연수회

김천 직지사(주지 녹원)는 14일~15일까지 1박2일간 설법전에서 말사주지 연수회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불교와 사회복지(김응철교수 중앙승가대), 성보관리의 중요성과 보존(장충식교수 동국대), 현대승가의 위상(의룡스님 직지사 강주)강의와 주제토론(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과 문제점), 좌선 등이 진행된다.

월정사 소쩍새마을 봉사

평창 월정사(주지 현해) 중고등학생회는 6일 원주 소쩍새마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서는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 청소, 목욕시키기 등의 활동을 펼쳤다. 한편 월정사는 21일~23일 중고등학교 수련회, 25일~27일 유치원교사수련회를 각각 실시한다.

태고종

충남교구 제1회 연수교육

충남종무원(원장 대연)은 3, 4일 이틀간 종무원 설법전에서 종무원 산하 사찰 스님 50여명을 대상으로 '제1회 충남교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종단 활성화 및 종조론' '수행자의 의식개혁 및 실천방향' '불교개론' 등에 대한 강의와 '수행자의 지구촌 세계화에 대한 실천적 활동방안' '지방자치의 현실과 종도들의 능동적 활동방안' 등에 대한 분과토론 및 발표가 이어졌다.

천태종

전국청년회 하계수련회

총무원(원장 운덕)은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 구인사에서 제15회 전국 청년회 하계수련법회를 개최한다.

3백50여명의 청년회원이 참가하는 이번 수련법회에는 신심고취와 봉사를 통한 사회기여를 주제로 한 강의와 설법이 열리며, 환경수호캠페인을 벌이고 구인사 인근 환경정화작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진각종

자성학교 지도교사 연수

통리원(원장 성초)은 1일부터 4일까지 3박4일간 총인원에서 제22기 자성학교 지도교사 연수를 실시했다.

'21세기를 향한 자성동이 포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는 교육원장 일정정사의 주제강연과 '자기확립과 자기확대' 등의 교리강좌, '지도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양강좌 및 분임토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총화종

국제보살 수계 산림법회

총무원(원장 남정)은 15일 오후2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금강계단 국제보살 수계 산림대법회를 개최한다.

창종 31주년을 기념하고 불국정토 건설을 염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법회에는 인도 불교대학 총장 아눌라다 스님, 일본 진언종 대승정 이케다 게이찌, 스리랑카 불교연합회 회장 실라완자와 사무총장 야우팔라 테로스님 등이 동참한다.

법회는 동광 종정스님의 법어와 수계식, 연예인 불자들이 마련하는 여흥 한마당 순으로 진행되며, 모두 5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타종

원광법사 부도탑 제막

경주 금곡사(주지 청운)는 8일 경내에서 벽암 종정스님과 권성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광법사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제막식은 그동안 모퉁이 구석구석이 훼손돼 있는 부도탑 보수를 위해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 3개월간의 보수를 마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것이다.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美 청소년에 희망심어

대행스님 초청 LA·시카고 법회 '성황'

현지인 참석률 높아…소년원 방문 교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 초청 LA법회와 시카고법회가 대성황을 이루며 회향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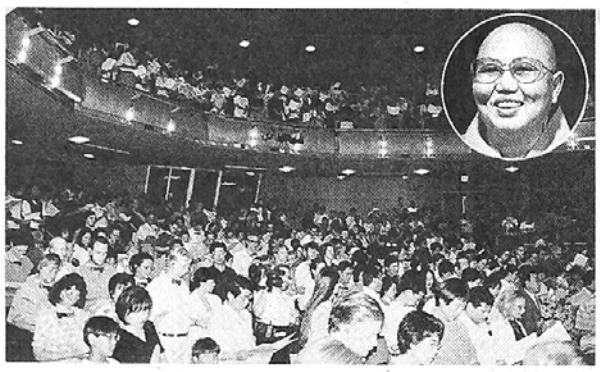
우리들의 미래와 청소년을 위한 대행스님 큰법회로 봉행된 두 차례의 법회에서 대행스님은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내용의 법문을 통해 동참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제시했다. 특히 현지 미국인들의 참석률이 높아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것도 화제가 되고 있다.

6월13일 한마음선원 LA지원(지원장 혜중)주최 남가주한국불교사원연합회 후원으로 열린 LA법회에서는 1천5백여명이 참석 법회장인 이벨극장을 꽉 메웠다.

이어 6월21일 한마음선원 시카고지원(지원장 혜지) 주최로 마련된 시카고법회는 스코기 시카고시장, 前 상원의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는데, 이가운데 6백여명이 현지 미국인이었다. 주최측이 준비한 3백여개의 동시통역 이어폰이 턱없이 부족한 이번을 낳으면서 진행된 이날 법회는 미국인 중소불교협의회 공동회장 건키드법사의 축사가 있었다.

한편 대행스님은 6월 28일 중범죄를 범한 청소년들이 수용된 줄리어드스쿨원을 방문하고 25명의 미국인 원생들을 교화했다.

1시간여 진행된 대화의 시간동안 흐트러짐없이 경청하는 태도에 소년원관계자들은 놀라움을 표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스님은 LA 시카고법회에서 모아진 성금 2백70만원을 전달했다. 〈위영란 기자〉



◇현지 미국인 6백여명을 포함 1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시카고에서 열린 대행스님 큰법회(원내는 대행스님).

동국대-印 네루대 교류

교수·학생 교환…학술 심포지엄 공동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가 인도 네루대학과 학술정보교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송석구 총장은 6월28일 힐튼호텔에서 네루대학 아시스 다타 총장과 만나 양교 자매결연 협정식을 갖고 교수·학생 교류 및 학술 심포지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학술교류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교는 올 11월 상호교류 협정 및 인도 독립 50주년을 기념해 동국대학교에서 '인도 독립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98년에는 인도 네루대학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날 협정식에는 양교 총장을 비롯해 정병조 동국대 부총장등 학교관계자와, 임덕규 한·인도친선협의회장, 사상크 주한인도대사, 김양수 한·인도 친선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불교방송 4개지국 추진

대전 춘천 창원 전주 …제주 등 5곳 중계소도

불교방송(사장 서돈각)은 춘천, 창원, 대전, 전주 등 4개 지국과 충주, 진주, 강릉, 울산, 제주 등에 5개 중계소 설립계획을 추진중이다.

불교방송은 최근 정각회를 비롯한 신한국당불자회 연등회 자민련 불자회 등 3당 불자회 대표들을 만나 불교방송 4개지국 추가 설립건 통과문제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폐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불교방송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존폐논란과 관련 평화방송, 기독교방송등과 만남을 갖고 국회에 한국방송광고공사 폐지 반대입장을 조만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홍콩반환 종교발전 好機"

中 신화통신 특집보도

홍콩반환을 계기로 중국 종교계의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 도교 등 전통종교는 물론 신흥종교의 해외교류와 종교활동영역이 확대, 발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종교전문가들의 분석이 보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례적으로 중국의 종교문제에 대한 특집기사를 내고 중국의 종교적 자유를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

중국에는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등 종교신자가 1억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각종 종교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예배장소 관리규정'에 따라 종교시설은 해당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 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광고의존 심화 방송질 저하"

범대위 강연회서 소유 경영분리등 제기

"불교방송이 수입원중 77%가량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라는 주장이 6월 30일 불교방송정상화를 위한 범불교대책위(위원장 지원스님, 이하 범대위) 주최로 열린 '라디오 경영의 봉건성 비판과 대안'이라는 강연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강연에 나선 김승수교수(전 북대 신문방송학과)는 더불어 "재단이사회의 기부금이 고정 수입원중 최소한 40% 정도로 안정돼야 언론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금횡령 등과 같은 불교방송의 현안문제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권한분리 미비 등 비합리적인 경영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불교방송이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거듭나기 위해서 △소유자인 재단과 실질 경영진 분리 △편성의 독립 △이사장 권한 강화 △사회비판 프로그램 강화 △ 전문성 대중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김교수는 제시했다.

부산 청년연합회 9곳 통합단체 결성

조계종 부산광역시 불교청년연합회가 6월 29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교계인사와 회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가졌다.

기존 부산광역시 청년연합회 11개 지회중 9개가 흡수 통합돼 출범한 연합회는 이날 초대 회장 김홍기씨의 취임식도 함께 가졌다.

부산대불청 회관개관

법당·사무국 등 마련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회장 이건국)는 청년회관 개관 및 봉불 점안법회를 2일 범일동 청년회관에서 녹야원주지 회암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했다.

청년회관에는 사무국, 법당, 강당 등이 들어서있어 각종 법회와 신행활동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개관행사는 혜총 감로사 주지, 정각 미룡사 주지, 양승찬 역대회장과 청년회원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방송가 단신

BBS 뉴스신뢰 최하위

불교방송이 KBS·MBC·sbs·TBS등 국내 9개 라디오방송국의 뉴스보도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사실은 C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 6월 4일~9일까지 서울지역 성인 5백1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드러난 것.

이 조사에서 일반조사대상자 3백10명 중 0.6%인 2명만이 불교방송 뉴스를 꼽았다. 특히 54명의 불자답변자 가운데 3.7%만이 불교방송 뉴스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리프로 진행자 교체

불교방송 '교리강좌'와 '경전공부'가 새 진행자를 맞았다. 교리강좌를 맡은 권탄준 교수는 〈화엄경〉을 현대적으로 풀이해 초보자들도 알기쉽게 강의한다. 정인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14일부터 〈묘법연화경〉으로 '경전공부'를 진행한다.

"경주남산 문화재 보존하자"

청정운동실천대회 단체-문화재 결연

'전통문화의 유지 계승을 위하여 한가족 한단체가 하나의 문화재를 선정하여 보호하고 선양하자'

땅위에 옮겨놓은 부처님 나라이며 노천박물관인 경주 남산국립공원 삼릉 솔숲에서 6월 29일 청정운동추진위(총재 서돈각·진홍원이사장) '97 제 1회 청정운동실천 경주대회가 열렸다.

서다림회 선다회 회원들의 남산 부처님에 대한 헌다의식 봉행을 시작으로 열린 경주대회에서 불국사부주지 성천스님, 서돈각총재, 이원식 경주시장, 김병기 동국대부총장, 김주락 신라문화원이사장등 6백여 참가자들은 남산을 청정하게 보존하여 부처님의 땅으로 길이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것을 다짐했다.

2부 식후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단체별로 15개 팀을 이뤄 남산의 15곳 등산로로 오르며 남산 일대에서 불적순례및 대대적인 주변정화활동을 펼쳤다.



◇제1회 청정운동실천 경주대회가 6월 29일 남산 솔숲에서 개최됐다.

마음 본래 벽은 없다

본래로 벽은 없다. 사방이 턱 터져 있어 뚫어야 할 은산철벽은 없다. 그러면 본래 멱힌것도 아닌데 왜 답답한 벽이있다 하는가. 스스로 벽을 쌓아올린 탓이다. 마음으로 그렇게 한 때문이다.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우란분절법회 · 칠석법회 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

우란분절과 효이야기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우란분절 법어 및 발원문, 백중기도와 부모님을 위한 발원, '효'에 대한 부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 영원한 사랑이야기…칠석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칠월칠석과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 록 내 용

제1부 우란분절 기념 법회
우란분절 법어/우란분절 발원문

제2부 백중기도와 부모님을 위한 발원
목련의 효행과 우란분절의 시작/우란분절과 백중/거룩한 효심, 뜨거운 실천

제3부 '효', 부처님의 한결같은 가르침
경전에서 보는 효의 말

제4부 영원한 사랑이야기…칠석
그리움으로 사는 삶…견우와 직녀/자손위한 사랑으로 회향하는 기도…칠성불공 칠성부적으로 이어지는 끊없는 기도/칠원성군 진언과 부작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명단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법보시 가격/각 권당 1,500원
◈ 크기/신국판, 80페이지

우란분재와 칠석이야기 정가/1,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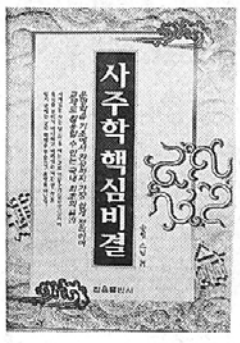
우리말 부모은중경 · 우란분경 · 목련경 정가/1,500원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팩스(02)738-8682

사주학 핵심비결 송월스님 著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화/제/의/신/간/
운명의 카운트 - 다운 시대가 왔다



신국판/값2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이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이책을 펼쳐 보십시오.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A5신/양장본 /35,000원

관음출판사 전화 : 921-8434 팩스 : 929-3470

먹거리와 바꾸는 北문화재

불상 · 도자기등 대량 해외유출…국내 반입 가짜 많아

정부 회수대책 절실

최근 식량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북한의 문화재들이 일본이나 홍콩 등 해외로 대량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회수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로 반입되는 북한문화재 대부분이 가짜로 판명돼 무분별한 구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한국고미술협회(회장 김종춘)는 "북한에서 유출되는 불상 도자기 등 문화재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데도 외환관리법상 상인들이 1만달러 이상을 갖고 외국으로 나갈 수 없어 중요문화재들이 일본이나 홍콩상인 손에 넘어가고 속수무책"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협회측은 "이들 문화재의 국내반입이 용이토록 정부가 세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법적 제도를 마련한다면 적극적으로 환수작업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골동품을 밀거래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최근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간여해 국보급 문화재까지 빼돌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95년에는 노동신문 북경특파원이 불상 2점을 중국으로 밀반입, 판매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북한 현지에서 거래되는 문화재의 가격은 순금불상 1천5백달러, 금동불상 1천달러 정도로 가격이 비싼 편. 이처럼 고가로 판매됨에 따라 북한 내의 문화재 도굴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유적지 훼손까지 덩달아 심각하다. 현재 중국의 심양, 단동 등지에는 국내의 골동품업자 2~3백여명이 머물면서 문화재 구입에 열중하고 있으나 지닐 수 있는 돈의 한정된 액수로 인해 일본이나 홍콩의 상인들과 힘겨루기가 벅찬 상태.

또 북한내 조선중앙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외화벌이사업소에서는 모조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전문적 밀매거간이나 북한내 화교, 방북해외동포 등을 통해 중국으로 반출하고 있다. 김포공항 문화재감정소에는 보통 한달에 3~4건씩 북한문화재 감정의뢰가 들어오고 있고, 고미술협회도 북한에서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의 감정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거의가 모조품이거나 중국산으로 판명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내로 유입돼 가짜로 판명된 금동미륵반가상은 그 좋은 예다.

김포공항의 문화재감정관 김형우씨는 "여행객들이 애국심 차원에서 북한문화재로 오인해 사오는 것을 삼가고, 대신 전문적인 감식안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하에 이를 구입하는 등 북한 유출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기석 기자〉

'캄' 승가교육 지원금
월주스님 2천불 전달
텝퐁왕사 예방받고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은 2일 캄보디아 왕사인 텝퐁스님의 예방을 받고 승가교육 지원금 2천불을 전달했으며 내년 부처님 오신날 방문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대해 텝퐁스님은 "앞으로 양국간의 불교교류가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며 "내년 부처님오신날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인덕노인복지관 개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노인복지회관(이사장 · 성운스님)이 29일 개원됐다. 민간시설로는 최초의 전용복지회관인 인덕원은 60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최신식 건강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을 갖췄다. 이날 법어를 내린 설정스님 수덕사 주지 법장, 제원, 자용, 지원, 명성, 진관, 명우스님 등과 권익현, 이재오, 손세일 국회의원, 서찬교 은평구부청장, 현대불교 김광삼사장 등 5백여 대중은 인덕원 개원에 큰 박수를 보냈다.

전법도량 지정 · 법사단 구성

조계종 '전법의해 추진위' 올 하반기사업 확정

조계종 전법의해 조직위원회(위원장 월주 총무원장)는 3일 전법도량 지정(9월중), 10~12월 전법도량 순회 법회봉행등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전법도량은 당초 2곳에서 시범사찰 5곳, 거점사찰 2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7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한달간 실사와 심사를 거쳐 9월중 확정한다. 전법도량은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전법도량이 지정되면 원로스님과 총무원장, 총무원 부장급스님, 교구본사주지 등으로 50인 내외의 법사단을 구성, 10~12월 두달 동안 전법도량을 순회하는 대규모 법회봉행을 계획하고 있다.

또 '사회변동과 불교의 과제' '새롭게 요구되는 불교의 모습'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향후 전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화장 반대않지만 관습때문에…"

수도권 1천1백명 '장묘의식' 조사 "납골당 알고있다" 73.6%

수도권주민들은 심각한 묘지문제의 대안으로 화장에 찬성률이 높은반면 전통적인 관습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의 홍보대책 마련과 함께 불교계의 장의포교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서울시민 공청회에서 동국대 김익기교수가 서울 · 경기지역 1천1백여명을 대상으로 한 '묘지와 화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40.7%가 화장을 찬성했으며 88.9%는 '묘지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남성(38.2%)보다는 여성(44.1%)이 나이가 많을수록 화장 찬성률은 높았다. 납골당에 대해서는 73.6%가 알고있다고 말했으며 41.1%는 사용을 고려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S경제연구소가 "납골당사업의 수익성은 10~20년이 지나야 될 것"이라는 경제성조사와, 지자체들이 종교납골시설에도 과세를 부과하고 있어 납골묘지 조성바람이 위축될 우려에 처해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장묘문화 개선의 시급함은 인지하면서도 관습에 의하여 화장을 꺼리고 시설설립을 반대하는 상황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활용도를 높이고 불교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장묘제도 개선으로 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납골당 탑묘제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고취, 포교에 직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등 4백여명이 6월30일 동아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대구=이윤호 기자〉

동아골프장 반대 '군민 한목소리'

산림황폐화 예방등 결의 가두행진

동아골프장(늘밭골프장) 건설반대 주민대책위원회(공동의장 황현석의 5인)와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해인총림대책위(위원장 보광스님) · 덕곡면 대책위(위원장 도영환) 대구환경운동연합 · 진주환경운동연합 소속 4백여명은 6월30일 가야면 버스정류장뒤에서 해인사 인근에 추진중인 동아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갖고 면사무소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골프장이 건설되면 맹독성 농약에 의한 식수원 오염과 산림의 황폐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한뒤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앞서 해인총림대책위 선용스님(해인사 총무국장)은 연대사를 통해 "골프장 건설은 불교성지인 해인사의 청정성과 수도도량으로서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다"며 골프장 건설을 방관치 않을 것을 천명했다.

한편 각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11개단체는 2일 합천군을 방문 강석정군수와 면담을 가진 뒤 동아골프장사업계획의 철회를 촉구하는 반대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강 군수는 "제출한 민원에 합당하고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골프장 사업계획서가 반려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종교 · 시민 · 사회단체 1백곳 연대
'북돕기 전국회의' 발족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펼치고 있는 종교 · 시민 · 사회단체들이 연대해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전국회의'(이하 동포돕기전국회의)를 발족했다.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 등 1백여개 단체 대표들은 6월30일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포돕기전국회의를 통해 단체간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남북한 민간차원의 상호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자들은 발족선언문을 통해 "곡물구입과 수송, 전달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민간단체 공동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북한동포돕기운동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매진할 것"을 천명했다.

목탁소리

북한문화재 지키자

윤 기 석 〈취재2부 기자〉

한 아동극단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북한소재 고구려 고분(본지 제129호 13면 참조) 등 북한 문화재 복원기금 마련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극단 안데르센이 8월 15일부터 12월14일까지 통일호 열차가 닿는 전국 총95개역에서 아동극 '깨비깨비 도깨비' 공연을 갖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북한 문화재 복원기금용으로 내놓겠다는 것.

한 아동극단의 일이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내 문화재 훼손이 식량난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식량난으로 인해 도굴이 자행되고 있으며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자금과 기술부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가 어렵다며 유네스코에 협조를 요청했다.

우리도 정부나 학계, 불교계 차원에서 북한문화재 보존위원회를 구성, 북한문화재 보호에 나서야 할 때다. 현재 정부의 반응은 미지근하고 오히려 일본학자들이 북한문화재 보존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 앞장서 자체 모금을 하고 있다.

통일한국은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통합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문화적 교류를 통한 동질감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엄연히 북한문화재도 우리 조상들의 얼과 슬기가 담겨있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정부는 단순히 국가간의 외교문제를 걱정하기 보다는 북한과의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상호 문화교류를 통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민간차원에서는 불교계가 앞장서야 한다.

북한소재 문화재 역시 대부분 불교문화재다. 더욱이 그 실체와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 한국불교사 연구에 어떠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을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성보보존위원회에 북한담당기구를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불교계가 북한소재 문화재의 현황 파악 및 보존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필요하다.

뉴스 & 뉴스

조계종 '깨사 기획단' 구성

조계종 깨달음의사회화 운동본부는 6월 25일 서울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깨사 연구기획단'을 구성했다.

지도 연구 기획 세분야로 구성된 깨사 기획단은 이날 △사회쟁점문제에 대한 자문단 구성 △각 신행단체의 사회성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자료집 발간 △주제별 워크숍 및 의제(議題)구성 기초사업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한 경전자료모음집 발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프로그램 정보제공 등 9개항의 사업을 논의했다.

中信會 북돕기불교위 동참

조계종중앙신도회 송재건회장은 3일 저녁 자택으로 총무원 간부스님들을 초청, 북한동포돕기와 교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월주 총무원장과 총무부장 혜창스님 등 총무원 간부스님 10여명과 중앙신도회에서는 사무부총장 백영식법사와 궁인창 교화부장이 참석했다.

송회장은 북녘동포돕기 불교추진위원회(위원장 지선)에 동참, 북한동포돕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승가와 재가가 힘을 합쳐 불교중흥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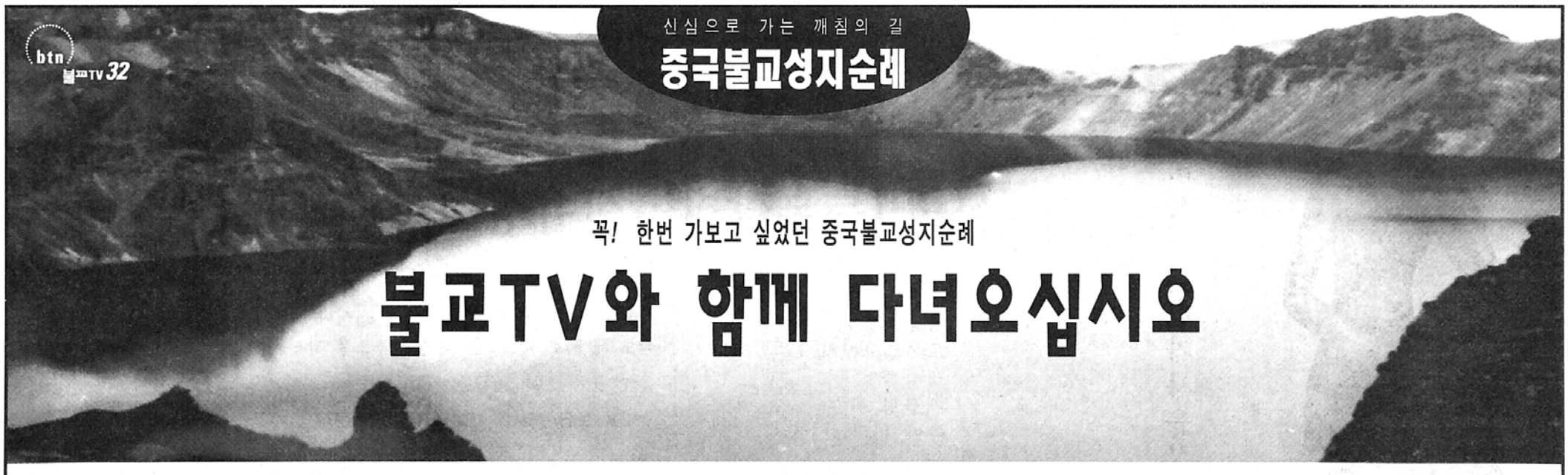
"전통강원 先인가 하라"

전국승가대학인연합(의장 원돈 · 이하 전승련)은 지난 5월 개정된 강원령의 입법예고기간 만기 하루전인 1일 성명을 내고 전통강원을 종단의 주 기본교육기관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전승련은 성명에서 "현 강원령은 전통 강원교육의 장점을 무시한 채 제도를 통한 통제만을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행풍토나 수행방향을 감안한 기본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교육원의 답변과 대안을 요구했다.

김현안씨 징역10년 구형

서울지검 서부지청 김형순 검사는 3일 열린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 공판에서 피고 김현안씨(前 경리부직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선고공판은 18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상징하는 부석사 가람배치는 소백산 능선과도 조화의 극치를 이룬다.



◇안양루 밑에서 바라본 석등(국보17호)과 무량수전(국보18호).



◇의상스님의 진영을 모신 조사당의 건축기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있는 답사객들.

"33계단 오르니 화엄세계가…"

우아한 배흘림기둥·단아한 조사당 '매료'

일주문-천왕문-안양루 '조화미' 극치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6월 부석사·희방사

한국목조건축의 아름다움

태백산과 소백산의 두 산맥이 마주하고 있는 봉황산 중턱에 자리잡은 부석사는 지리조건과 풍경만으로도 화엄 강산이었다. 부석사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직후인 문무왕 16년(676)에 의상스님이 왕명을 받들어 창건했다. 여름에는 그늘에서, 겨울에는 양지바른 곳에서 의상스님은 〈화엄경〉을 강의했다. 물병 한개와 발우 하나로 국토를 만행하던 의상스님이 부석사에서 내려다본 소백산맥의 풍경은 어떠했을까. 1천3백년전 의상스님의 숨결은 지금도 부석사 곳곳에서 느낄 수 있다.

부석사는 서울에서 4시간 거리. 일주문에서 천왕문, 범종루를 지나 안양루와 무량수전 까지는 걸어서 15분 남짓. 이 길은 여느 사찰과는 달리 수많은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참으로 매력적이다. 부석사의 공간구조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점차 넓어지고 높아지고 낮아지면서 서방정토의 극락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가람배치는 부석사 자체를 하나의 커다란 불국의 세계로 상징화하기 위해 9품 만다라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9품 만다라는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극락세계에 이르는 방법으로 하품하생(下品下生)에서 중품중생(中品中生)을 거쳐 상품상생(上品上生)에 이르기까지 9단계를 행실과 공력으로 지극히 수행하면 극락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석사 가람배치는 바로 그 9품 만다라의 상징을 잘 나타낸다. 천왕문은 하품하생, 범종루는 중품중생, 안양루는 상품상생이고, 무량수전 앞에 이르면 누구라도 업을 씻고 극락정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부석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높은 축대가 계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층단형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다른 건축물과 마주치지 않고 옆으로 비켜져 있습니다. 건축물들은 웅장한 산하를 정면으로 마주보지 않고 산하의 풍경으로부터 어느 정도 비켜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이를 불문하고 천천히 한계단씩 오를 때마다 눈을 감았다가 정면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부석사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범종루 앞에서 안내자 이강근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부석사의 3단계 석축들은 서로 평행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각도로 어긋나 있다. 안양루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앞뒤 건축선이 30도 정도로 꺾인다. 부석사 경내는 기하학적인 대칭이나 평행선을 그리는 공간은 없다. 앞산 능선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조금씩 각도를 달리한 것이다. 때문에 무작정 오르기만 하면 부석사 건축의 아름다움을 전혀 느낄 수 없다.

범종루, 유물전시관을 둘러본 답사객들은 이교수의 안내에 따라 무량수전을 향해 한계단 한계단 엄숙하게 오르기 시작했다. 첫발을 내디딜 때는 무량수전의 모습이 아련히 보였건만 오를수록 그 자취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웬 다섯계단을 올랐을 때는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다. 안양루만 머리위에 떠있는 것이다. 마치 번뇌 덩어리를 이고 있는 느낌이다. 답사객들은 더위에 다소 지쳤지만 호기심을 안고 또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석등이 시야를 가렸다. 마지막 33계단을 올랐을 때 무량수전이 드디어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다. 배흘림기법으로 조성된 6기둥, 간결하면서도 견실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외관, 몽골족의 침입으로 피난해 왔던 공민왕이 쓴 무량수전 편액앞에서 답사객들은 황홀함에 심취해 법당으로 발길을 돌렸다.

법당에서 답사객들은 그동안 지은 모든 업장소멸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참회 기도를 올렸다. "짧은 기도였지만 아미타부처님이 그동안 지은 모든 업장을 말끔히 씻어주신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김경희씨(서울 대치동)는 말한다. 부석사 무량수전 아미타부처님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이어 답사객들은 부석사를 뒤로한 채 선덕여왕 12년(643) 두운스님이 창건했다는 희방사로 발길을 돌렸다. 기암괴석과 울창한 산림을 지나 희방사를 참배한 답사객들은 잘아래 위치한 희방폭포에 들러 더위로 범벅이 된 땀과 속진의 때를 깨끗이 씻고 경건한 마음으로 귀경길에 올랐다.



◇부석사를 창건할 때 선묘가 바위로 변해 시정잡배를 물리쳤다는 전설이 담긴 부석(浮石).

의상대사를 향한 선묘낭자의 지순한 사랑이야기가 창건설화로 전해지고 있는 부석사. 사랑을 불심으로 승화시킨 선묘낭자의 넋이 '뜬 돌(浮石)'로 변했다 해서 사찰명이 유래되었다는 부석사를 찾은 날은 장마기간임에도 비기 엄추고 화창했다.

6월29일 불교문화테마여행단 126명은 화엄의 강산, 만다라의 불법세계로 가볍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편집자 주〉

글=김중근 사진=고영배 기자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

전문가 안내

이강근 〈경주대 교수·문화재학〉

가람배치 깨달음 이르는 길 상징

심미적 공간설계 기법 탁월



무량수전은 배흘림기둥으로 널리 회자되고 있지만 이 건물의 아름다움은 비단 기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건물의 안팎에서 읽을 수 있는 구조의 간결한 짜임새와 웅장한 구도, 구조 부재의 세부에까지 미친 정성스런 조각술, 동향하도록 모셔진 부처님(고려시대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을 향해 합장·배례할 때 느껴지는 장엄한 공간감 등 어느 하나 빼어난 건축술의 소산이 아닌 것이 없다.

부석사의 아름다움은 무량수전 때문에 유명해진 일면이 있긴 하나, 실은 절의 입구에서부터 무량수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아름다운 장면의 연속적인 연출이다. 언덕을 올라서 일주문을 지나 당간지주에 이르는 과정은 비록 신라 당시의 모습은 아니지만 앞에는 봉황산의 우뚝한 봉우리가 다가서고, 옆으로는 사과밭으로 이어지는 정겨운 수풀이 경사진 참배로를 따라 펼쳐져 있다.

그러나 진정 부석사의 건축적 아름다움은 당간지주 옆, 천왕문을 향해 난 구도의 길 위에 합장하고 섰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길을 끌어당긴다. 천왕문의 문틀 사이로 난 창은 우리가 가야 할 구도의 길이 낮으막한 축대와 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음을 미리 보여준다. 천왕문을 나서면 멀리 2단으로 된 대석축이 보이고 그 석축 위에 세워진 건물의 모습이 잠깐 나타났다가 우리가 걸음을 옮기면 곧 사라진다. 축대 위로 오르면서 위를 보면 다시 건물들이 나타나고 완전히 올라서면 멀리 부처님의 세계가 건설되어 있을 법한 축대와 그 위에 세워져 있는 불전의 지붕만이 아스라히 시야에 들어온다.

그 앞 아래쪽엔 마루 밑을 통과하도록 설정된 두 채의 누각이 앞뒤로 늘어 서 있고 누각으로 다가서면 멀리서나마 보이던 부처님세계는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된다. 그러나 법고와 목어가 걸려 있는 2층 누각 밑 어두운 곳을 반쯤 통과한 지점에서 앞을 보았을 때 우리는 아! 하는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마루 밑으로 난 통로 위에 열린 공간적 창을 통해 광명한 부처님세계, 아미타여래의 무량수전 그리고 3층의 석탑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석사의 공간구성에서 보이는 이렇듯 탁월한 설계기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가는 과정을 건축공간인 가람의 구조 속에서 이해시키기 위한 스님 건축가의 치밀하고도 심미적인 배려의 결과로 보인다. 자장율사(590~658)가 문수보살을 이곳 태백산(신라 당시에는 오대산이라고 불렀음)한 언덕에서 잠깐 만나 법고도 그를 몰라본 결과 끝내 문수대성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삼국유사〉의 일화를 상기한다면, 지극히 깊은 불교적 사유 속에서 배태된 부석사의 공간 구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사정이 이러하기에 오늘날 한국의 건축가들도 부석사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전통건축이라는 찬사를 아낌없이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97 문화유산의 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축소작품) 보급

· 청동 100%
·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높이 40.5cm

조각기능 지정문화재 이진형 선생이 재현한
국보 제 83호 축소모형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2,737-8881

■ 지역 구입 문의
안산 (0345)411-4580 목포 (0631)281-2534 부산 (051)634-5114 광주 (062)375-9986
속초 (0392)636-3923 인천 (032)461-3461 강릉 (0391)651-9317 영주 (0572)34-3429
대구 (053)768-8008 대전 (042)625-1080 공주 (0416)55-0020 청주 (0415))63-3873
진주 (0591)747-0106 예산 (0458)33-5097 포항 (0562)252-7749 마산·창원 (0551)84-0735

■ 불교문화의 정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개인소장용으로 간직하실 수 있는 더없는 기회입니다. ■